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  
추진지역 주민공동체 교류정도 변화 및  
가로 내 활동 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A Research on the Change of 'Community Communications' and  
'Behaviors on the street' of Dwellers in  
'the Eco-Mobility World Festival Suwon 2013' Area.

2013

---

## 연구진

연구책임

● 김주석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연구원

● 권범철 /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원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및 정책건의

## 1. 연구 개요 및 결과

- 수원시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을 통해, 기성시가지인 신평동·장안동을 대상으로 기 조성된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으로 정비하고, 9월 한달간 지역내 일반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세계최초의 시도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는 자동차 중심 가로환경에서 보행중심으로 가로환경이 정비되었을 때, 나타나는 지역 커뮤니티 인식변화 및 가로활동내용에 대한 조사연구로서, 보행중심의 가로환경과 거주민 커뮤니티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음.
- 생태교통 수원2013 관련 담당자들의 인터뷰, 신평·장안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인식변화와 가로상 활동내용을 확인하였음.
- 근린교류 정도는 거주자의 거주년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보행환경의 정비에 따라 전반적으로 교류가 증가하였다는 인식이었음.
- 특히, 자택을 방문하여 교류하는 대상주민의 평균인수가 20.5% 증가하는 등 거주민간 교류의 상승경향이 확인되었음.
- 교류장소로서 정비이전에는 식당·술집의 빈도가 가장 높고, 커피숍이 가장 낮았으나, 정비이후 식당·술집의 빈도가 가장 낮아졌음.
-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장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주민간 일상적교류가 증가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음.
- 가로 대해서는 정비이후, 이동교통로로서의 기초적 기능보다는, 가로상의 커뮤니티 활동 등이 증가하였고, 향후 대화 및 교류공간으로서의 기대 또한 확대되었음.

## 2. 연구의 제언

- 상기 결과를 기반으로 기성 시가지 가로환경을 이제까지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대상지역 거주민의 교류활동 증진과 가로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유효하며, 관련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운용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주민들이 보행환경 정비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직접 체험하더라도, 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라는 현실적 문제의 해결방안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성시가지의 보행환경의 정비에 있어, 가로환경정비와 더불어 주차공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목 차

<b>제1장 서론</b> .....	<b>3</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1. 연구의 범위 .....	6
2. 연구의 방법 .....	7
제3절 보행환경과 커뮤니티 .....	9
1. 보행환경과 커뮤니티에 관한 역사적 논의 .....	9
2. 관련 연구경향 검토 .....	12
<b>제2장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의의와 사업내용</b> .....	<b>17</b>
제1절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의미 .....	17
1. 생태교통의 의미 .....	17
2. 생태교통 수단 및 체계 .....	18
3.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의의 .....	21
제2절 주요 정비사업 내용 .....	24
1. 사업 개요 : 보행환경 중심의 가로환경 정비와 교통통제 .....	24
2. 대상지 선정과정 .....	25
3. 대상지 특성 .....	26
4. 주요 정비실행 내용 .....	31
<b>제3장 커뮤니티 교류정도 및 가로 내 활동행태 변화</b> .....	<b>41</b>
제1절 조사기획 .....	41

1. 평가기준항목 .....	41
2. 평가대상항목 .....	42
제2절 거주민 인식 설문조사 .....	48
1. 단순집계 결과 .....	48
2. 정비 전·후 변화 분석 .....	106
3. 정비 전·후 거주자 인식 주요변화 종합 .....	116
제3절 가로이용자 현장관측 및 추적조사 .....	118
1. 가로상(가로변 공원포함) 활동조사 .....	118
2. 이용자 추적조사 .....	119
<b>제4장 결론</b> .....	<b>127</b>
1. 연구 개요 및 결과 .....	127
2. 연구의 제언 .....	128
<b>참고문헌</b> .....	<b>131</b>
<b>영문요약</b> .....	<b>137</b>
<b>부록</b> .....	<b>141</b>

# 표 목 차

<표 II-1> 신평장안동 인구현황 .....	27
<표 II-2> 수원성 내부 행궁동 전체의 주택유형 .....	28
<표 II-3> 신평장안동 차량보유현황 .....	28
<표 II-4> 행궁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2012년 12월 기준) .....	29
<표 II-5> 시범지역 내 보행환경 개선방안 .....	32
<표 II-6> 유형별 분류 및 세부사업내용 .....	33
<표 III-1> 가로이용행태 현장조사 내용 .....	45
<표 III-2> 가로활동 조사표 .....	46
<표 III-3> 가로이동 행태 조사표 .....	47
<표 III-4> 가로활동 조사표 .....	47
<표 III-5> 거주자 특성별 지역 주민조직참여 정도(1차 설문) .....	53
<표 III-6> 거주자 특성별 인지하는 동네사람의 수(1차 설문) .....	55
<표 III-7> 거주자 특성별 인사하는 사람의 수(1차 설문) .....	57
<표 III-8> 자택방문 교류를 하는 사람의 수(1차) .....	59
<표 III-9> 방문교류 목적(1차) .....	62
<표 III-10> 20분 이상 교류 빈도(1차) .....	64
<표 III-11> 대화장소(1차) .....	67
<표 III-12> 소요시간(1차) .....	69
<표 III-13> 가로이용목적(1차) .....	72
<표 III-14> 가로에 기대하는 것(1차) .....	75
<표 III-15> 참여모임(2차) .....	81
<표 III-16> 인지하는 사람의 숫자(2차) .....	83
<표 III-17> 인사하는 사람의 숫자(2차) .....	85
<표 III-18> 자택방문교류 숫자(2차) .....	87
<표 III-19> 방문교류 목적(2차) .....	89
<표 III-20> 교류 빈도(2차) .....	91

<표 III-21> 근린교류 변화(2차) .....	93
<표 III-22> 대화장소(2차) .....	96
<표 III-23> 소요시간(2차) .....	98
<표 III-24> 가로이용목적(2차) .....	100
<표 III-25> 가로에 기대하는 것(2차) .....	102
<표 III-26> 가로이용 변화(2차) .....	104
<표 III-27>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거주기간 .....	110
<표 III-28> 가로상 활동내용 .....	118
<표 III-29> 추적조사에 따른 보행이용자 활동내용 .....	120
<표 III-30> 가로보행자 활동(평일) .....	121
<표 III-31> 가로보행자 활동(주말) .....	121

# 그림 목 차

<그림 I-1> 생태교통 대상 및 연구대상 구역범위 .....	6
<그림 I-2> 연구방법 .....	8
<그림 I-3> 코르뷔제의 모듈러(장 장제르, 1997:94) .....	9
<그림 I-4> CIAM멤버(The OpenLearn team, 2001) .....	10
<그림 I-5> 하워드 의 전원도시계획 .....	10
<그림 I-6> 제이콥스 .....	11
<그림 II-1> 생태교통 수원 2013 대상지 범위와 가로망 구성현황 .....	26
<그림 II-2> 대상지역 사업전 가로현황 (2011.10) 출처: 도중호 주민추진단장 소장자료 .....	30
<그림 II-3> 생태교통 수원 2013 지역 내 주요가로 및 골목길 정비 현황 .....	34
<그림 II-4> 정비전(좌), 후(우) 지역내 주요가로(화서문로) 경관 비교 ..	35
<그림 II-5> 정비 이후 나타난 상점들의 새로운 가로 이용 및 대응 현황	36
<그림 II-6> 정비 이후 나타난 자발적 골목길 관리 주민활동 모습 .....	36
<그림 II-7> 생태교통 수원 2013 종료후 자동차 재사용에 따른 가로 현황	37
<그림 III-1> 조사대상 주요 가로 및 가로활동 관찰 지점 .....	44
<그림 III-2> 성별 구성(1차 설문) .....	48
<그림 III-3> 가족구성(1차 설문) .....	49
<그림 III-4> 연령 구성(1차 설문) .....	49
<그림 III-5> 거주기간(1차 설문) .....	50
<그림 III-6> 직업 구성(1차 설문) .....	50
<그림 III-7> 가구소득 구성(1차 설문) .....	51
<그림 III-8> 참여모임 비율(1차 설문) .....	51
<그림 III-9> 인지하는 동네사람의 수(1차 설문) .....	54
<그림 III-10> 인사하는 사람 숫자(1차 설문) .....	56
<그림 III-11> 자택교류 숫자(1차 설문) .....	58
<그림 III-12> 자택방문교류의 목적(1차 설문) .....	60

<그림 III-13> 교류빈도(1차 설문) .....	63
<그림 III-14> 아동이 있는 가구 특성(연령/ 직업/ 거주기간) .....	65
<그림 III-15> 대화장소(1차 설문) .....	66
<그림 III-16> 대화시간(1차 설문) .....	68
<그림 III-18> 가로이용목적(1차 설문) .....	70
<그림 III-19> 가로에서 기대하는 것(1차 설문) .....	73
<그림 III-20> 성별 구성(2차 설문) .....	77
<그림 III-21> 가족구성(2차 설문) .....	78
<그림 III-22> 연령 구성(2차 설문) .....	78
<그림 III-23> 거주기간(2차 설문) .....	78
<그림 III-24> 직업 구성(2차 설문) .....	79
<그림 III-25> 가구소득 구성(2차 설문) .....	79
<그림 III-26> 참여모임 비율(2차 설문) .....	80
<그림 III-27> 인지하는 사람 숫자(2차 설문) .....	82
<그림 III-28> 인사하는 사람 숫자(2차 설문) .....	84
<그림 III-29> 자택교류 숫자(2차 설문) .....	86
<그림 III-30> 자택방문교류의 목적(2차 설문) .....	88
<그림 III-31> 교류빈도(2차 설문) .....	90
<그림 III-32> 근린교류 변화 여부(2차 설문) .....	92
<그림 III-33> 아동이 있는 가구 특성(연령/ 직업/ 거주기간) .....	94
<그림 III-34> 대화장소(2차 설문) .....	95
<그림 III-35> 대화시간(2차 설문) .....	97
<그림 III-36> 가로이용목적(2차 설문) .....	99
<그림 III-37> 가로에서 기대하는 것(2차 설문) .....	101
<그림 III-38> 가로이용 변화 여부(2차 설문) .....	103
<그림 III-39> 성별 근린교류정도(정비 후) .....	106
<그림 III-40> 가족구성별 근린교류정도(정비 후) .....	107
<그림 III-41> 연령별 근린교류정도(정비 후) .....	108
<그림 III-42> 거주기간별 근린교류정도(정비 후) .....	108

<그림 III-43> 직업별 근린교류정도(정비 후) .....	109
<그림 III-44> 마을주민간 자택방문 교류 비율 .....	111
<그림 III-45> 이웃과 대화하는 장소 변화 .....	113
<그림 III-46> 가로이용 목적 변화 .....	114
<그림 III-47> 가로이용 희망 변화 .....	115
<그림 III-48> 가로상 활동내용 .....	119
<그림 III-49> 지점1: 화성행궁 방향에서 진입하는 보행자의 이동동선과 활동(평일) ..	122
<그림 III-50> 지점1: 화성행궁 방향에서 진입하는 보행자의 이동동선과 활동(주말) ..	122
<그림 III-51> 지점2(화서문방향)에서 진입하는 보행자의 이동동선과 활동(평일) ..	123
<그림 III-52> 지점2(화서문방향)에서 진입하는 보행자의 이동동선과 활동(주말) ..	123
<그림 III-53> 지점3: 정조로에서 진입하는 보행자의 이동동선과 활동(평일) ..	124
<그림 III-54> 지점3: 정조로에서 진입하는 보행자의 이동동선과 활동(주말) ..	124



---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수원시는 이클레이(ICLEI) 및 유엔 주거개선활동(UN-HABITAT)과 공동으로 ‘생태교통 수원 2013’을 2013년 9월 한 달 동안 개최함.
- 대상지인 신평동-장안동 내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적 교통기관인 자동차 교통을 제한하고 자전거, 보행(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 활용) 등 생태교통 수단 만을 이용하는 교통환경을 기획하였음
- ‘생태교통 수원 2013’은 기존 도시 내 주거지역에서 자동차 교통을 제거하는 최대규모(범위, 시간)의 사업으로 교통분야의 환경부담 감소와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대뿐만 아니라, 도심 주거지를 주민들과의 협동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로 재편성하는 프로젝트임. 이에 따라, 주거지 보행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하는 ‘생태교통 수원 2013’에 따른 지역거주민의 커뮤니티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함으로써, 보행환경이 지역 커뮤니티에 미치는 변화를 실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 특히, 이번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 공동체적 관점에서의 효용성 검토는 향후 주거지 정비 정책의 방향설정에도 있어 실증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기성시가지에서 보행중심의 가로환경 구축과 그에 따른 지역 커뮤니티 인식변화 및 가로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임.

- 도시정비에 있어 보행환경조성과 지역 커뮤니티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경향을 보면,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산업에서의 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과 기능주의 및 기계주의와 효율성이 중시되었고,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자동차 교통이 전제조건으로 다루어졌음. 이에 따라 한 때, 자동차는 생활수준을 높여주고, 이동의 자유도를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커뮤니티에 기여하며, 자동차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Woollard, 1945)도 제시 되었음.
- 이러한 경향은, 표준화된 인간모듈 등 기계적 효율성에 관심이 많았던 르코르뷔제(Le Corbusier) 등으로 구성된 C.I.A.M.(근대건축국제회의, Congrès Internationaux d'Architecture Moderne)<sup>1)</sup>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 근대건축운동을 통해 공공히 되었고, 오늘날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에 의한 ब्ल럭계획과 용도지역 구분 등 도시계획 수립의 기본전제로 이어지고 있음.
- 한편, 실제 도심의 혼잡 상황과 도로확장의 한계성, 거주민의 삶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위한 주거지와 (대형)자동차교통의 분리등 이미 20세기 초부터 자동차 교통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도 주장되어 왔음.(John Ihlder, 1924: 204-205)
- 도시계획에 있어 보행환경과 지역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제이콥스(J. Jacobs, 1961)에 의한 당시 불도저 개발이라 불리던 재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제이콥스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도시정비에 있어 기존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 슬럼의 철거 후, 공원이나 광장으로 도시를 장식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재개발계획, 표준화된 기계적 인간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하고, 도시계획에 있어 혼합적 토지이용과 인간(건축을 포함)의 다양성 반영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음. 특히 이러한 논의는 도시의 지속성에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계획수립과 해당 지역 주민의 계

---

1) 당시, 기존 역사주의적 경향에 반하는 비교적 젊은 건축가들의 모임

획참여에 관한 논의로 진전되었으며, 테일러 등에 의해 당시의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논점들이 정리되었음.(Ralph B. Taylor 편저, 1986)  
국제적으로는 UN 브룬트란트(Brundtland, 1987)보고서와 후속의 리오 서밋(Rio summit, 1992)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되었고,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재개발 및 뉴타운개발 방식이 아닌 기존의 도시구조 및 주거지의 재생에 관한 논의가 주된 화제로 다루어지게 되었음.

- 지역 커뮤니티 측면에서 보행자 중심의 지역계획이 중요하다는 믿음 속에서 보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음.
- 관련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면, 실증적 행태조사 등을 통해 보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자특성으로는 세대수입, 거주기간, 6세이하 어린이유무, 주택 자가소유 등이 강조되었고(Buckner 1988; Skjaeveland, Garling and Maeland 1996, Lund 2002), 이의 실현을 위한 공간계획상의 주요요소로서 가로교차, 인도관리상태, 가로조명, 범죄안전, 경관, 목적지접근 용이성 등이 강조되었음.(Frank et. al., 2005; Leslie et al., 2007; Sundquist et al. 2011; Larco et. al. 2012).
- 이제까지 도시 주거지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형성의 필요성과 계획상의 주요요소에 관해서는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성 도심지 거주지를 대상으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를 정비, 교통체계를 재편한 실행사례에 대한 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음.<sup>2)</sup>
- 본 연구는 기성시가지내에서 자동차 중심의 도로를 보행친화적인 노면 및 가로시설물로 정비하고,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대규모 실행사례로서 교통환경변화에 따른 커뮤니티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이제까지 강조되어왔던 보행중심의 가로환경과 거주민 커뮤니티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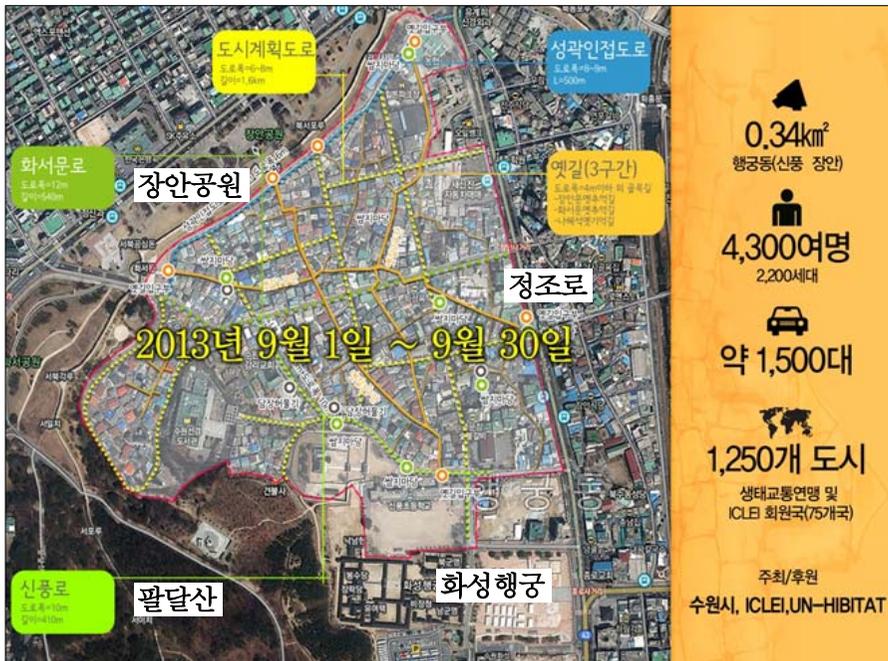
---

2) 도시근교의 소규모 특정 커뮤니티 혹은 주거지가 아닌 쇼핑몰 등 특정 상업가로의 경우는 국내외에 걸쳐 다수 존재.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기성시까지 내 거주지에 있어 자동차 중심의 가로 환경을 보행 중심의 가로환경으로 변경하였을 때 해당 공간에서 생활하는 기존 거주민의 커뮤니티 인식 및 가로 내 활동에 대한 전·후 비교 조사를 통해 그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 따라서 조사대상자는 2013년 조사 시점기준, 해당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으로 한정하였으며, 커뮤니티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비교시점으로는 지역 전체를 보행전용화하여 생활하는 2013년 9월 1일~30일을 기준으로 관련 가로환경 정비공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동년 3월과 이후인 10월을 설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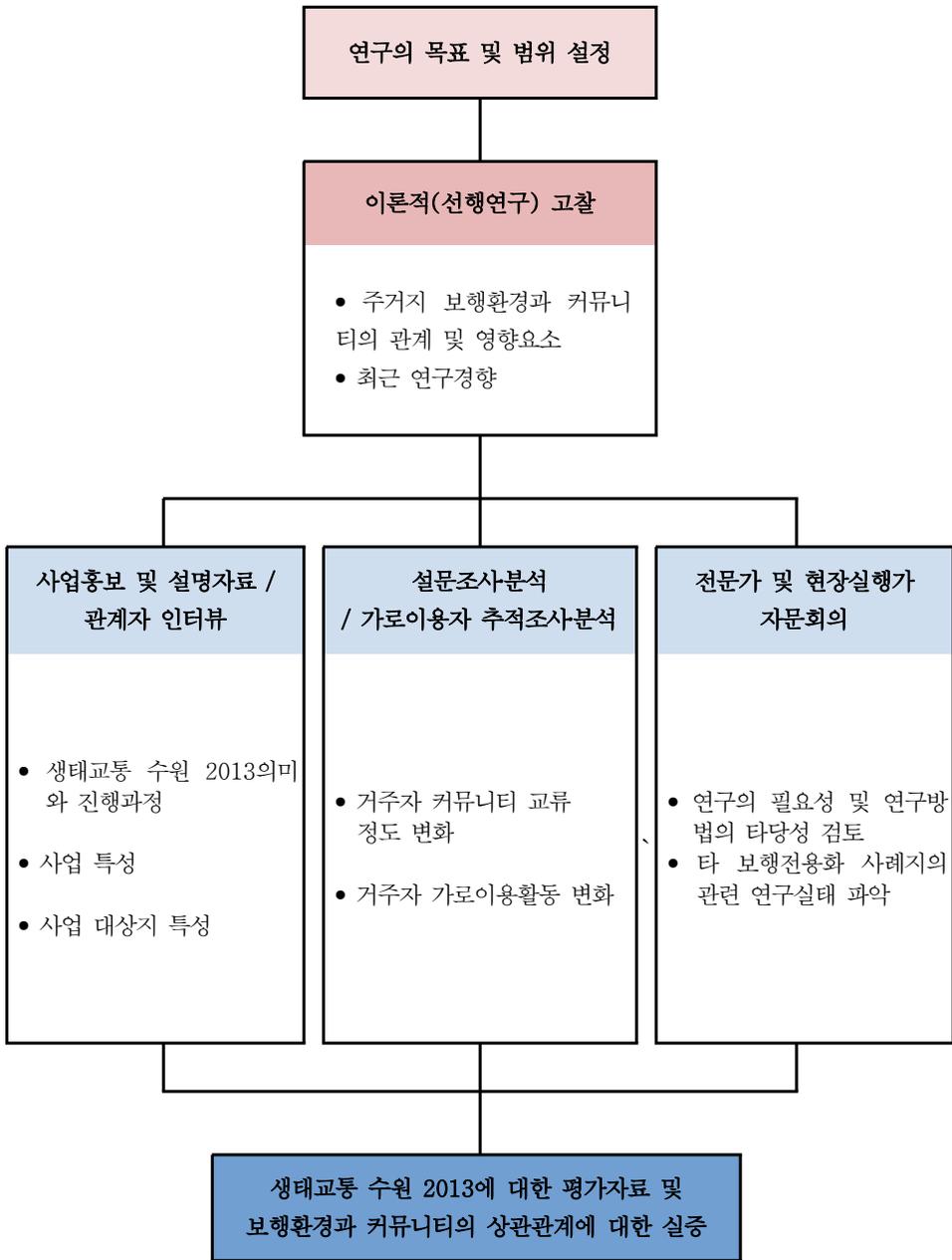


〈그림 1-1〉 생태교통 대상 및 연구대상 구역범위

- 커뮤니티 인식 정도는 거주민 상호간 교류관계수준을 기준으로, 단순인지 수준, 일상적 인사 교환수준, 자택 방문교류 수준로 구분하고, 이와 더불어, 20분이상 교류빈도를 조사함.
- 공간적 범위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의 대상구역 중, 보행 중심의 가로환경정비가 이루어지는 신평동과 장안동 일대로 면적은 약0.34km<sup>2</sup>이며, 거주 인구는 약 4300여명(2200세대)임. 대상지는 지역 공동체 범위에 대한 물리적 구분이 명확한 곳이다. 북으로는 수원성 성역보존을 위해 성벽을 따라 조성된 장안공원이 있고, 서측으로는 팔달산, 남측으로는 국가 지정 문화재(사적 제478호)로 주변의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화성행궁 및 광장, 동측으로는 약24m 폭원을 갖는 왕복 4차선 도로인 정조로에 의해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I-1 참조)

## 2. 연구의 방법

- 주거지 보행환경과 커뮤니티의 상관성에 대한 기존 연구문헌 등을 통해 관계요소와 최근 연구경향 등을 확인함.
- 생태교통의 의미와 사업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홍보 및 설문자료 그리고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커뮤니티 인식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거주민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하며, 가로활동에 대한 분석자료는 위해 설문조사 및 이용자 추적조사를 통해 수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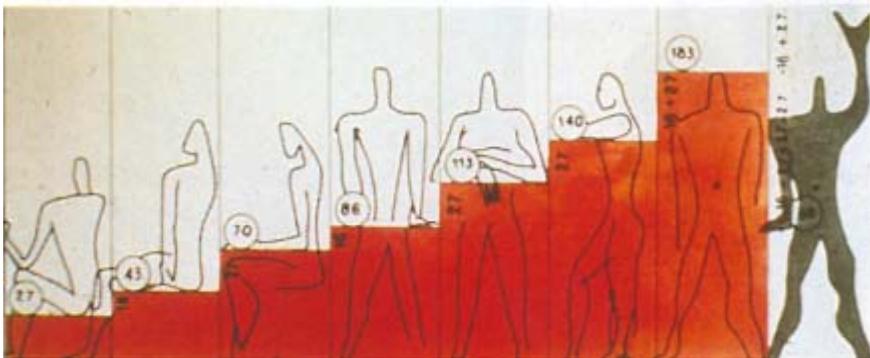


〈그림 1-2〉 연구방법

## 제3절 보행환경과 커뮤니티

### 1. 보행환경과 커뮤니티에 관한 역사적 논의

- 1886년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가 영국의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한 이래로 자동차는 도시와 국가간 시간거리를 줄여주고, 삶에 혁명을 불러왔으며, (Thomas, 1926: 6-7), 생활수준을 높여주고, 이동의 자유도를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커뮤니티에 기여하며, 이전과 달리 주택의 소형화와 핵가족화를 불러오고, 세금, 보험, 렌트 등 새로운 직업 등 커뮤니티 변화를 이끌고 있다. 또한, 국가 및 개인의 교통에 의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자동차 도로의 정비가 요구되며, 보다 편리한 자동차 교통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필요성도 주장 되었음. (Woollard, 1945:3-8.)
- 이러한 경향은,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나타난 철강과 기계에 대한 믿음, 산업에서의 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과 효율성에 대한 중시 그리고, 이를 대변하는 기능주의 및 기계주의 등 당시의 철학사조에 의해 강화되었음.



〈그림 1-3〉 코르뷔제의 모듈러(장 장제르, 1997:94)

-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자동차 교통이 전제조건으로 다루어졌다. 표준화된 인간모듈 등 기계적 효율성에 관심이 많았던 르코르뷔제(Le Corbusier) 등으로 구성된 C.I.A.M.(근대건축국제회의, Congrès International d'Architecture Moderne, 1928~1956)<sup>3)</sup> 등이



〈그림 1-4〉 CIAM멤버(The OpenLearn team, 2001)

주축이 되어 추진한 근대건축운동을 통해 공공히 되었고, 오늘날의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자동차 중심의 도로교통에 의한 ब्ल럭계획과 용도지역구분 등이 기본전제로 상정되고 있음.

- 한편, 자동차 교통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의 확장은 결과적으로 도심혼잡 상황을 불러일으키며, 도로 확폭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시거주민의 삶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위한 주거지와 (대형)자동차교통의 분리 필요성 제기하는 등의 도시계획에 있어 자동차도로의 확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이미 20세기 초부터 인식, 주창되어 왔음.(John Ihlder, 1924: 199, 204-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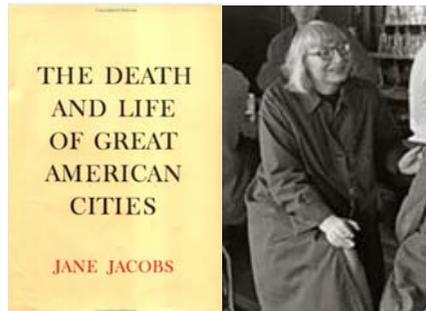


〈그림 1-5〉 하워드의 전원도시계획

3) 당시, 기존 역사주의적 경향에 반하는 비교적 젊은 건축가들의 모임

○ 보행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 단위의 도시계획은 1850년대 이후 도심과 교외를 잇는 철도교통의 확충과 도시 황폐화슬럼화에 따른 중산층의 교외이주 등 경향을 반영하여 하워드(Ebenezer Howard, 1902)에 의해 주창된 전원도시운동 등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었으나, 도시계획에 있어 보행환경과 지역커뮤니티의 중요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제이콥스(Jacobs, 1961)에 의한 당시 불도저 개발이라 불리던 재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음.

○ 제이콥스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도시정비에 있어 기존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 슬럼의 철거 후, 공원이나 광장으로 도시를 장식하는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재개발계획을 부정하고 도시계획에 있어 혼합적 토지이용과 인간(건축을 포함)



〈그림 1-6〉 제이콥스

의 다양성 반영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음.(Jacobs, 1961:151)

- 이러한 논의는 도시의 지속성에 있어서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계획수립과 해당 지역 주민의 계획참여에 관한 논의로 진전되었으며, 테일러 등에 의해 당시의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논점들이 정리되었음.(Ralph B. Taylor 편저, 1986)
- 국제적으로도 Brundtland Report(UN, 1987)에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sup>4)</sup>)이 제창되고, Rio summit(UN, 1992)을 통해 이의 실현을 위한 Agenda 21이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계획분야에서도 재개발(urban renewal) 및 뉴타운 개발 방식이 아닌 기존의 도시구조 및 주거지의 재생(rehabilitation)에 관한 논의가 주요 화제로서 다루어지게 되었음.

4) 지속가능한 개발: 자신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implies meeting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By Brundtland Report,

## 2. 관련 연구경향 검토

- 아젠다 21이후 ‘지속가능성’은 전세계적 관심사이며,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의 사용자이며 동시에 관리자인 지역 커뮤니티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음. 특히, 가로 보행환경은 해당 커뮤니티와 상호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 한편, 보행은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통행수단으로서 교통의 시작과 끝을 장식하는 교통수단이며, 누구에게나 관련되는 교통수단임. 도시가 순조로운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도 보행자 환경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정창식, 1985:122)
- 프랭크 등(Frank, 2003)은 의학적 측면에서 북미에서 활발히 적용된 자동차 중심의 용도분리, 도심직장 교외주거(de-centralization) 등의 근대적 도시환경이 육체적 활동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교통면에서 보행과 자전거이용이 독일이나 네덜란드(44-50%)에 비해 미국은 6.2%로 극단적으로 낮음을 보이며, 보행등의 사회적 이익에 대해 강조하고, 별도의 운동이나 달리기가 아닌 일상적으로 접하는 도시환경과 교통환경이 보행등의 육체적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버크너 등 다수의 연구자들(Buckner 1988; Skjaeveland, Garling and Maeland 1996)이 실증적 행태조사 등을 통해 보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주자특성으로는 세대수입, 거주기간, 자가, 어린이 등을 강조하였고, 룬트(Lund, 2002:310)는 보행환경 요소 중 세대수입, 거주기간 보다는 자가, 세대안의 6세 이하 어린이 유무가 커뮤니티에 영향이 큼을 확인하였음.
- 주민들이 보행과 자전거교통을 선호하기 위해서는 가로교차, 인도관리상태, 가로조명, 범죄안전, 경관, 목적지접근 용이성 등이 중시되며(Larco 2012:304), 특히, 이들은 활동패턴에 영향을 주는 다른 개인적 특성들과 독립적으로 작용함.(Frank et al., 2006; Saelens & Handy, 2008)
- 이의 실현을 위한 공간계획상의 주요요소로서 가로교차, 인도관리상태,

가로조명, 범죄안전, 경관, 목적지접근 용이성 등을 다루고 있으며(Frank et. al., 2006; Leslie et al., 2007; Wood et. al., 2010; Sundquist et al. 2011; Larco et. al. 2012), 특히, 레슬리등(Leslie et al., 2007)은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하여 보행가능성에 미치는 요소로 제시되어온 주거 밀집도, 교차정도, 용도혼재, 소매점 면적 비율이 유의미함을 밝혔으며, 프랭크 등(Frank, et. al., 2012)은 이에 더해 인접한 양질의 공원이 아이들의 보행활동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우리나라의 도시내 보행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연구로는 정창식(1985)에 의한 도심지에서의 보차분리 및 보행자 우선교통로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87년 광주 예술의 거리 조성계획을 시작으로 많은 보행자 위주의 거리들이 생겨났음(손장원·이동배, 2002:95- 96). 최근의 관련 연구를 보면, 박병철(2009)등은 진주시의 사례를 대상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 이후 가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가로변 점포의 용도변화를 통해 확인하였고, 청주시 중앙로 및 전주시 걷고싶은 거리 등에 있어서도 사후 평가는 주로 빈점포 등의 감소등 상권활성화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sup>5)</sup>, 보행전용화 등에 대한 주변 상가민 등의 인식변화는 보행 전용가로 확대에 대한 주변 상가민 반대 비율의 현격한 저하 체감 정도로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성시가지의 자동차 중심으로 정비된 도로를 보행친화적인 노면 및 가로시설물로 새로이 정비하고,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대규모 실행 사례에 대한 실증연구임.
- 보행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커뮤니티관련 거주민 인식 변화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행과 커뮤니티의 상관성을 특정요소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장소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규명하던 연구와 달리, 동일대상지에서 직접 확인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음.

---

5) 행정 보고자료 및 주변인 인식에 대한 인터뷰조사결과, 인터뷰(일시/장소/대상): 청주(2013.11.23./중앙로 현지 사무실/현장활동가), 전주(2013.12.13./전주 현지 사무실/현지 교수)



---

## 제2장

#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의의와 사업내용

제1절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의의

제2절 주요 정비사업 내용



# 제2장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의의와 사업내용

## 제1절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의미<sup>6)</sup>

### 1. 생태교통의 의미

- 생태교통(EcoMobility)은 이클레이(ICLEI)<sup>7)</sup> 사무총장이자 세계생태교통 연맹(EcoMobility Alliance) 총장인 오토 짐머만(Konrad Otto-Zimmerman)이 주창<sup>8)</sup>한 개념으로, ‘걷기, 자전거, 기타 바퀴달린 수단과 같은 무동력 교통수단의 이용과 대중교통 및 경전기차량(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이용을 결합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지역교통’<sup>9)</sup>을 말함.<sup>10)</sup>
- 이러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생태교통은 크게 두 가지 지향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친환경성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포용성임.
- 친환경성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환경오염물질의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지향하는 것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 교통체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이산화황, 산화질소류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에너지자원의 고갈을 가속화한다.

6) 수원시(2012):11-21을 기반으로 수정, 보완 편집함.

7)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 통칭 ICLEI로 약칭한다.

8) 오토 짐머만은 1980년대 후반,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이라는 친환경적 교통약식의 통합에 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독일어 ‘UMweltverbun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영어로 ‘ecomobility’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생태교통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생태교통 프로그램(EcoMobility Program)이라는 도시여객수송에서의 배출저감프로그램을 수행한바 있으며, 프랑스 국영철도회사인 SNCF도 생태교통의 개념과 원칙을 경영목표와 프로그램에 널리 사용하고 있음.

9) <http://www.ecomobility.org/home/about-ecomobility/>, 2013.12.13. 최종확인

10) 위키피디아 웹사이트(영문), <http://en.wikipedia.org/wiki/Ecomobility>, 2013.12.13최종확인

생태교통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사회적 포용성은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빈민 등의 이동권 혹은 보행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행과 자전거와 같은 무동력 수단을 기본으로 하지만, 휠체어 전기수쿠터, 유모차, 아동자전거, 가족자전거 등의 이용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의 교통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함. 특히, 자가용 중심의 기존교통체계에서는 자가용을 소유할 수 없는 빈민들이 자유로운 이동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나, 생태교통에서는 보행, 자전거 등 비교적 저렴한 이동수단이 중심이 될 뿐 아니라 공유자전거, 공유자도아와 같은 공동이용체계를 제시하여 경제적 약자의 교통소외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녹색교통, 지속가능한 교통 등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님.

## 2. 생태교통 수단 및 체계

- 생태교통에는 무동력이동수단, 대중교통수단, 전기이동수단이 포함되며, 개인 승용차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교통수단으로 봄.

### 1) 생태교통 수단의 분류

#### (1) 무동력 이동수단(non-motorized transport)

- 보행, 자전거, 수레, 유모차, 휠체어, 인력거 등이 있으며, 화석연료나 전기를 이용한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바퀴를 이용하는 이동형태를 말함. 에너지소비, 온실가스 배출,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2) 대중교통수단(public transportation)

- 버스, 전철,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들은 아직 화석연료에 의존하여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인승용차에 비하면 같은 연료소비로 많

은 사람들을 저렴하게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이며, 친 사회적인 이동행태임.

### (3) 전기이동수단(electric transportation)

- 전기자전거, 전기스쿠터, 전기자동차, 전기휠체어 등으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이 없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임, 특히 이상화황이나 산화질소류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배출된 장소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기차량이 운행되는 도시지역의 대기오염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다만, 비록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효율은 높지만 화석연료나 댐 건설 등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상적인 수단은 아니나,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단임. 생태교통에서 말하는 전기이동수단은 가능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기 자전거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과 그 편리성 부문의 균형 잡힌 우수한 수단이라 볼 수 있음.

## 2) 생태교통 운용체계

- 생태교통이란 개념은 상기 수단들의 집합이라기 보다는 이들간의 조합 및 연계(intermodality), 공유(sharing) 등 운용방식, 사람들의 사고 및 생활 방식, 도시기반(infra-structure)의 구축 등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교통체계로 보는 것이 적절함.

### (1) 생태교통 수단간의 조합 및 연계

-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 등 서로다른 생태교통 수단간의 조합 및 연계로 다양한 통행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
- 대중교통과 자전거의 연계강화: 전철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온 뒤 전철로 갈아타기 쉽도록 전철역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자전거를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버스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 전철내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는 공간 및 제도 마련 등.

## (2) 공유체계

- 공유자전거, 자동차, 전기자전거 등의 방식으로 생태교통 수단을 개인이 구매하여 소유하는 대신 공공부문에서 구매하고 이용자들이 대여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함.
- 개별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적합하며, 수단구매를 위한 대규모 비용이 들이지 않고도 이동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도 있음.
- 공유자전거의 경우 지역 곳곳에 설치된 보관소에서 대여, 이용하고, 다른 보관소에 반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운용 가능함.
- 공유자동차의 경우 미리 회원가입과 사용예약을 하고(사용시간, 대여/반납장소 등) 예약된 대여/반납장소에서 빌려 운행후 반납하는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음.
- 카풀(Car-pooling)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특정 통행을 공유하여 같이 가는 방식으로 자동차의 완전한 개인소유, 개인이용에 비하면, 단위 통행당 환경오염이 적어 생태적이라 할 수 있으나, 공유자동차 방식에 비하면 덜 생태적임.

## (3) 도시기반의 구축

- 생태교통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시설기반과 제도기반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함.
  - 시설기반: 보행자 위주의 도로설계, 자전거 주행환경 구축, 주요건물 및 지역 곳곳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 및 정비소, 전기차를 위한 충전소 등.

- 제도기반: 자동차 속도제한, 진입제한, 기타 보행자와 자전거의 안전을 위한 도로운영 방식 등.

#### (4) 생활방식의 전환

- 생태교통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과 생활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 자신들의 행동의 환경적 영향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활방식을 바꾸려는 의지가 필요함.
- 가까운 거리는 걷기, 자가용 대신 자전거 및 대중교통 등의 이용, 보행자 및 자전거를 배려하는 운전태도, 자동차 등 교토수단 구매에 있어 친환경 모델에 대한 선호 인식 등이 요구됨.

### 3.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의의

-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이상에서 살펴 본 생태교통 수단과 운영체계를 자동차 중심의 도로체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성시까지 현장에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시범사업임.
- 따라서,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기성시까지 거주민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정비, 지역 내 생태교통 수단, 그리고 지역 외부 현존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보행중심의 가로환경이 자동차 중심의 가로환경에 비해 환경적 부담이 적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외부의 관조자가 아니라 해당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인식되어 지는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될 수 있으며,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 (1) 생태교통(Ecomobility)에 대한 생각과 인식의 전환 유도

- 생태교통은 도시의 사람들이 인간 및 생태적 건강함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통수단에 접근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임. 그러나 자동차 중심의 생활에 익숙한 현실을 고려하여 생태교통의 실현을 위한 인식제고 및 학습 기회 제공이 필요함.
-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보다 생태교통을 실제 구현함으로써 그것의 실현을 앞당기고 보다 많은 지역에 전파하는데 있음.
- 더불어, 기존의 차량 이용을 줄임으로써 환경보전 및 혼잡해소라는 환경적 편익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함.

### (2)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민관협동체계의 구축

- 생태교통은 자연생태계를 보존, 복원하는 것과 다르며, 기술적으로 친환경적인 탈 것을 도입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태교통을 직접 활용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임. 따라서 대상 지역 주민들의 합의와 참여가 중요함.
-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은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 진행 초기부터 주민들 상호, 그리고 행정과 주민간의 논의와 협력을 강조하며, 지역 공동체와 민관협동의 역할체계의 구축을 전제하였으며,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민관협동 체계의 강화를 목표로 함.

### (3) 시범사업 대상 거주지 환경개선

- 시범사업 대상지는 수원화성 내에 위치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각종의 제한이 적용되어, 성 밖 지역에 비해 낙후지역으로 인식되어 왔음.
- 이제까지 지역정비에 걸림돌로 여겨지던 수원성 등 우리의 전통 문화 시설물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 오히려 해당 시설물들이 지역에 기여하며, 자연에 어우러져 조성된 해당 문화재와 어울리는 탈 근대적인 보행중심의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새로운 도시정비 방안을 제시함.

- 시범사업을 통해 가로정비, 환경개선 사업 등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4) 생태교통 도시로서의 수원시 국제 위상제고

-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사업을 실행하는 생태교통 선두도시로서 각인시킴.
- 이클레이(ICLEI),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 같은 국제적 공신력이 있는 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계적 프로젝트로 국제적 선진 환경도시로서 수원시 위상을 제고함.
- 시범사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생태교통 체험 코스를 개발하고 세계 여러나라의 방문객(관계 연구자 및 실행가 등)을 유치하여 수원을 해당분야의 명소로 자리매김 함.
-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성곽 등 역사문화적 관광자원 생태교통을 연계하여 방문객을 유치함으로써 전통문화와 새로운 전진적 시도의 균형있는 도시로서의 수원시 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함.

## 제2절 주요 정비사업 내용

-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었으나,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보행환경 관련 사업으로 한정, 기술함.

### 1. 사업 개요 : 보행환경 중심의 가로환경 정비와 교통통제

- 생태교통 수원 2013(Ecomobility World Festival 2013 Suwon)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가 구축된 미래에 대한 상상을 재현, 체험하고 전 세계와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생태교통의 도시 ‘환경수도 수원’을 비전으로 추진된 사업임.
- 사업 대상지는 수원시 신평·장안동이며, 2013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수원시가 이클레이(ICLEI),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 공동으로 주최함.
- 생태교통의 재현과 확산이라는 기치 하에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의 세계최초 사례구현’, ‘수원화성과 연계한 역사, 문화, 환경 도시의 기반 구축’, ‘보행환경 개선에 따른 보행자 안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음.<sup>11)</sup>
- 기본적인 사업실행방식은 시범지역 주민들이 행사기간 동안 지역내에서 자동차 대신 생태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는 것임. 즉, 출퇴근, 등하교, 장보기, 여가활동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걷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전기자전거, 대중교통과 같은 생태교통을 이용하는 것임. 이를 위해 생태교통 중심의 가로환경 정비 및 교통통제, 생태교통수단의 이용 지원, 생태교통형 마을만들기, 부대행사(축제 등) 개최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1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태교통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12.7., 2013수원 세계생태교통 축제 홈페이지(<http://www.emwf2013.suwon.go.kr>).

## 2. 대상지 선정과정

○ 시범사업 대상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선정되었음.

### 1) 시범지역 공모접수

○ 해당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생태교통에 대한 소개와 사업내용을 공유한 뒤, 사업대상지를 공모함. 2012년 4월 2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받았고, 접수 결과 2개 지역(신평·장안동, 평동 동남아파트 일원)이 신청함.

### 2) 공모심사

○ 2012년 4월 수원시청 관계자, 시민사회 대표,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태교통 기획운영위원회에서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함. 심사기준에는 참여단체 수, 주민참여 동의율 등을 검토하는 주민참여도(40%), 대중교통 접근성,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는 시범지역 적정성(40%), 생태교통수단의 지속활용 가능성, 관광연계자원 등을 다루는 효과성(20%)이 주요 평가기준으로 고려되었음.

### 3) 심사결과

○ 심사결과 정량적 평가와 기획운영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 신평·장안동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음. 이 지역은 많은 지역단체 참여와 수원화성, 공방거리, 벽화골목 등 지역관광자원에 기반한 관광연계 가능성, 행궁동 레지던시를 비롯한 마을만들기 단체의 활발한 활동 등 그동안 지역에서 행해져 온 활동 등에 의해 높은 평가를 받음.

### 3. 대상지 특성



〈그림 II-1〉 생태교통 수원 2013 대상지 범위와 가로망 구성현황

#### 1) 인구

- 생태교통 2013의 대상지인 행궁동은 행정동으로서 12개 법정동으로 구성됨.
- 본 연구의 대상지는 실제 보행환경정비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행궁동내의 법정동중 신풍동과 장안동 구역을 대상으로 함.(이후 '신풍·장안동'으로 표기)
- 신풍·장안동(0.34km<sup>2</sup>)의 인구는 총 4,343명, 세대수는 2,220 세대이다. 연

령별 인구구성을 수원시 전체와 비교해보면, 19세 이하 유소년층의 비율이 13.6%(수원시: 25%)로 현저히 낮고, 50세 이상 장년층 및 노인인구 비율이 42.9%(수원시: 23.1%)로 월등히 높은 특징을 띠고 있음.<sup>12)</sup>

〈표 II-1〉 신평장안동 인구현황

법정동	인구					세대수
	연령	남	여	계	비율	
신평장안동	0-19	318	271	589	13.6%	2220
	20-29	284	229	513	43.5%	
	30-39	367	250	617		
	40-49	391	372	763		
	50-59	434	422	856	42.9%	
	60-69	229	281	510		
	70세 이상	202	293	495		
	소계	2225	2118	4343	100%	

2011년 수원시청 통계자료 기준,  
<https://stat.suwon.go.kr/sub/present/population.asp?menuCode=010204&seqNo=277652>  
출처: 수원시2(2012) 표2-4-2: 15 수정보완

## 2) 주거형태

- 시범지역 내에는 총 965호의 주택, 2,200세대가 위치하고 있다.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시범지역 일대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많은 저밀도 주거 지역으로 단층·복층의 상업시설이 혼용되어 있으며, 아파트는 없음.<sup>13)</sup>
- 주거형태 비율은 신평장안동을 포함하는 행궁동 전체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12) 2011년 통계기준.

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2~33쪽.

〈표 II-2〉 수원성 내부 행궁동 전체의 주택유형

주택종류		주택수	구성비
단독주택	일반	832	31.6%
	다가구	698	26.5%
	영업겸용	241	9.1%
아파트		84	3.2%
연립주택		185	7.0%
다세대주택		459	17.4%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137	5.2%
계		2,636	100.0%

주: 행궁동 전체자료; 수원시2(2012): 33재인용  
출처: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2010기준)

### 3) 차량보유대수

시범지역인 신흥·장안동의 차량대수는 모두 1,516대로 관용차량이 5대, 영업용이 30대, 비영업용이 1,481대로 파악되었음.

〈표 II-3〉 신흥·장안동 차량보유현황

구분	관용	영업용	비영업용	합계
대수	5	30	1481	1516

수원시2 (2012) 표2-4-4: 17 기준

### 4) 사업체 현황

○ 다음 자료는 대상지역이 포함된 행궁동 전체의 사업체 현황이다. 산업별 사업체 구성비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4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17.7%)이 그 뒤를 잇고 있음. 종사자수

구성비를 보아도 도매 및 소매업이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14.3%)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록 대상지역이 포함된 행궁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므로 대상지역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현장조사에서도 식당, 여관, 점술집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외에 카페, 가게, 병원, 세탁소 등의 업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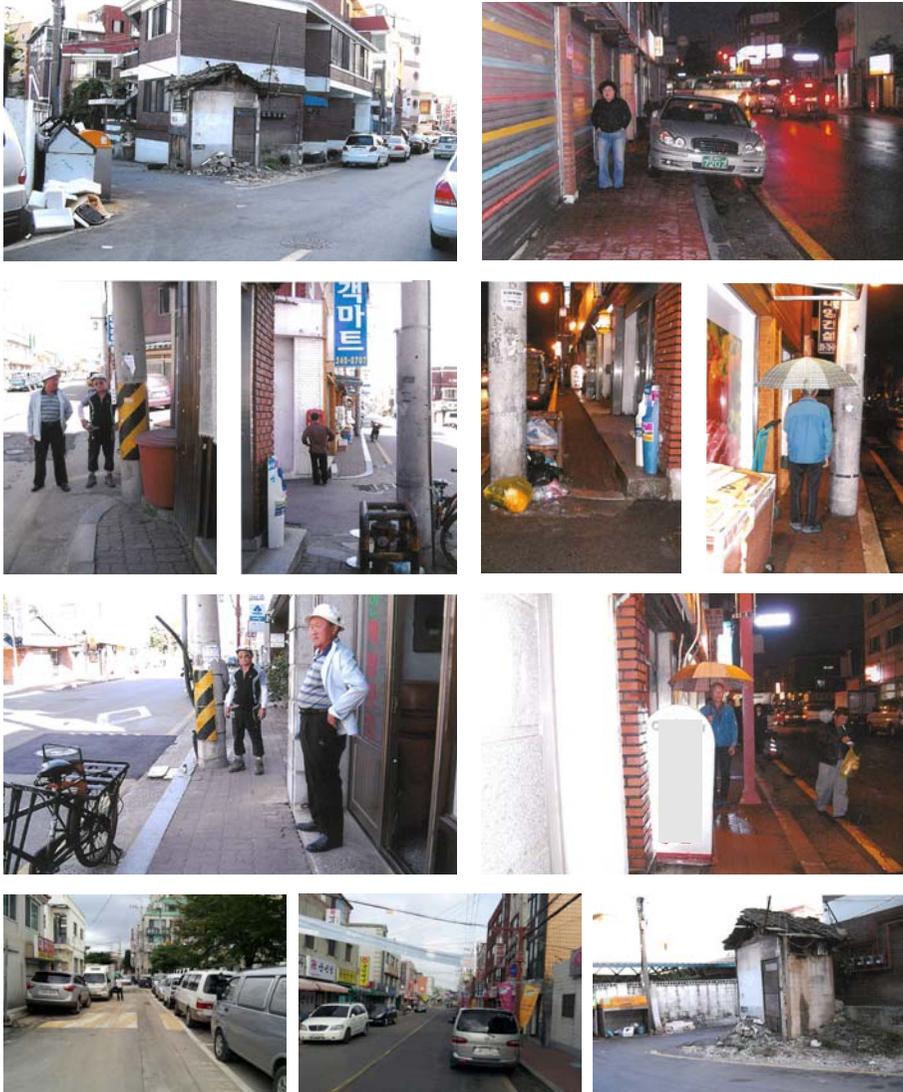
〈표 II-4〉 행궁동 산업별 사업체 현황(2012년 12월 기준)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개)	%	(명)	%
제조업	154	6.2	353	5.0
건설업	42	1.7	140	2.0
도매 및 소매업	1,102	44.3	2,514	36.0
운수업	93	3.7	120	1.7
숙박 및 음식점업	441	17.7	1,001	14.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9	0.4	51	0.7
금융 및 보험업	25	1.0	323	4.6
부동산업 및 임대업	34	1.4	86	1.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2	0.9	53	0.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7	1.9	353	5.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0.1	66	0.9
교육서비스업	85	3.4	787	11.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5	3.4	476	6.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69	2.8	167	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75	11.1	503	7.2
계	2,486	100	6,993	100

출처 : 수원시 홈페이지 통계자료, (<https://stat.suwon.go.kr>)

## 5) 보행여건

- 시범사업 대상지를 관통하는 도로(화서문로)는 화서문에서 장안사거리까지 동서로 가로지르는 왕복 2차선 도로로, 통과차량이 많고 도로변 무단 주정차 차량이 많음.



〈그림 II-2〉 대상지역 사업전 가로현황 (2011.10) 출처: 도종호 주민추진단장 소장자료

- 사업시행전 대상지 가로의 보행환경을 보면, 보도는 폭이 매우 좁으며, 그에 더해 전신주, 소화전 등 보도상에 설치된 다양한 가로 설치물들이 보행상의 장애물이 되고 있어 보행이 매우 불편한 구간이 많음.
- 특히, 좁은 보도폭은 우천시, 우산을 쓴 상태에서는 보도통행이 불가능한 정도로, 반드시 차도로 지나야 하는 상황이며, 야간에는 보도를 점유한 형태의 주차로, 보행쾌적성은 물론, 보행안전면에서도 위험도가 높음.
- 거주블럭 내부 도로나, 겨우 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골목길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노상주정차 차량이 많아 보행환경이 열악함.
- 가로경관은 방치된 폐가옥, 무질서한 상점가로 등이 두드러지고, 여기저기 쓰레기가 무단투기된 모습이 자주 보이는 상황임.

## 4. 주요 정비실행 내용

### 1) 생태교통 운용

#### (1) 생태교통 수단 확보 및 기반구축

- 행사기간중 이용이 제한되는 일반 자동차를 대신할 수 있는 생태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여건을 구축하는 일은 ‘차 없는 마을’을 위한 중요조건임.
- 차량을 대신하는 생태교통 수단으로 자전거, 가축자전거, 아동자전거, 유모차, 수레 등 무동력 수단 및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왕발이(SEGWAY) 등의 전기동력수단을 확보하고 지원함.
- 또한 생태교통 수단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태교통 수단을 행사장 인근에 전시하는 행사와 새로운 수단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행사지역을 찾은 방문객들을 위해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투어 코스에 다양한 생태교통 수단이 사용되었음.

## (2) 차량이용제한

- 행사 기간 동안 시범지역 내에는 대중교통과 기타 생태교통수단을 제외한 차량운행은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진입금지 안내판 설치, 진입로에 안내요원 배치 등이 제시되었음.

## (3) 보행환경 개선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차량 진입이 금지되므로,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은 필수적임. 보행환경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폭 확보, 보행자 휴식공간 설치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음.

〈표 II-5〉 시범지역 내 보행환경 개선방안

항목	개선전략
보도포장	지역적 특색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획일적인 포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상징문양, 재질로 보행자에게 걷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보도포장으로 개선
보행자 휴식공간	보행공간을 넘어 보행로의 소공원화로 보행과 휴식을 함께할 수 있는 보행환경 마련
유도블럭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과 점자블럭을 설치하여 보행여건 개선
보도폭 확보	단순히 보행통행만을 위한 보도가 아닌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협소한 보도폭을 확폭하거나 보행혼용 형태로 운영
조명시설	야간 보행자를 위한 보행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대중교통 지원시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쉽도록 시설 개선, 벤치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
시설물 유지관리	보도 상에 설치된 수목지지대나 기타 보행관련 시설물은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 유지
보차 미분리 도로 정비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지역 주민들 간의 공동공간인 이면도로는 대부분 보행자만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들 도로가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차분리, 보차 미분리시 통과 교통 배제 등의 적극적 정비 시행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공간 확보

출처: 수원시(2012):94

#### (4) 도로유형별 운영

- 다양한 도로유형을 지닌 시범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유형에 따른 사업 방안이 제시되었음.(아래 <표 II-6> 참조)

<표 II-6> 유형별 분류 및 세부사업내용

유형별 분류	세부사업내용	비고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 보행공간 및 시설물 정비 - 임시 정류장 설치여부 - 진입금지 대책 및 회차공간 확보	
학교통학로 및 이면도로	- 보행동선 단절구간 보도 및 횡단시설 확보 - 교통정온화 기법을 통한 차량속도 감속 - 보행공간 및 시설물 정비	
시민 휴식공간 및 상가밀집도로	- 보행편의시설과 휴식공간 조성 - 보행공간 및 시설물 정비 - 축제 및 이벤트 공간 조성	
보도 정비 및 횡단보도	- 보도 파손 및 돌출부 정비 - 보도경사, 단차 등 구조 정비 - 노상시설 정비 및 안전시설 설치	
대중교통 연계	- 접근도로 개선, 보행동선 연계 - 교통 수단 간 환승체계 구축	
차없는 거리 및 구역	- 차량통행 제한 - 보행공간 및 시설물 정비 - 보행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	
보행약자	-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시설 확충 및 정비	
생태교통수단	- 생태교통 수단 이동 차로 확보 - 생태교통수단 주차공간 확보	보행자 생태교통수단 혼용 운영
공유체계 마련	- 자전거 공유체계 및 카풀, 카셰어링 등 공유 체계 마련 및 확보공간 마련 - 골프카트 공유체계 마련	
주차공간 확보	- 방문차량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교통처리 대책	- 차량 우회처리대책 수립 - 진입금지 차량의 회차공간 확보	
차량 진입금지 대책	- 비상차량을 제외한 특정시간대 전차량 통행 제한 - 특정시간 대 특정(서비스 차량-조업차량, 택배차량 등) 허용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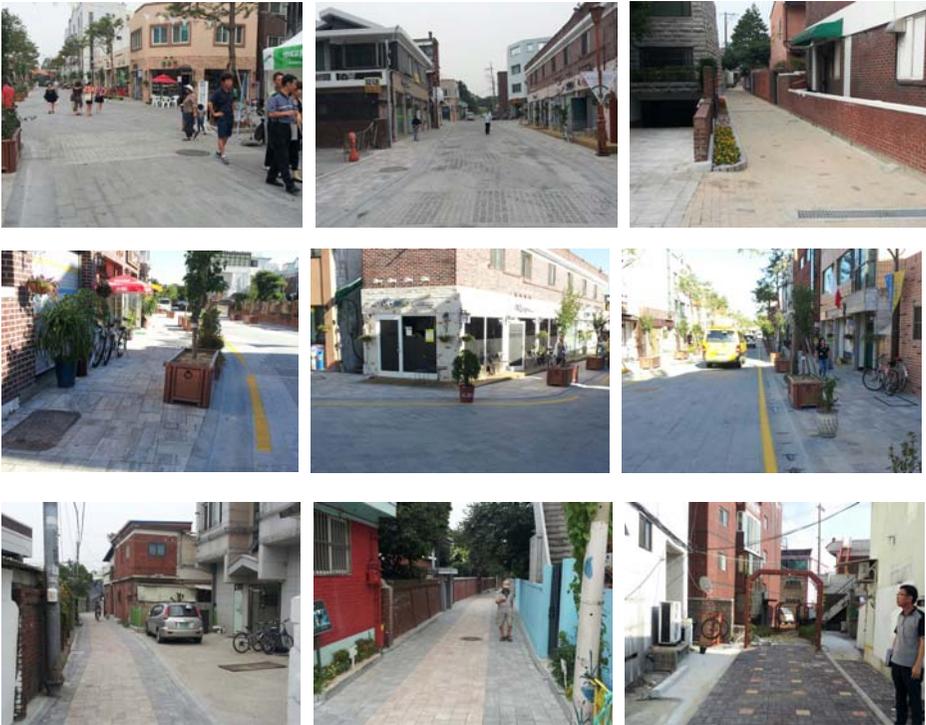
## (5) 주차공간 확보

- ‘차 없는 마을’이라는 원칙에 따라 시범지역 내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두 가지로 제시되었음.
- 첫째는 시범지역 반경 2km 이내에 위치한 대형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2km 이내 주차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하여 분산 수용하는 것임.

## 2) 정비 현황

### (1) 주요가로 및 골목길 정비 모습

- 보행확폭과 전봇대 등 가로 시설물 지하화, 보행자 우선형 노면포장 등



〈그림 II-3〉 생태교통 수원 2013 지역 내 주요가로 및 골목길 정비 현황

## (2) 정비 전과 생태교통 기간 중 화서문로 가로경관 비교

### ① 정비이전

- 경관 : 개별 상점별 임의의 색상, 형태, 크기로 설치된 무질서한 입간판과 차양, 현수막, 광고대 등 개인시설물에 더해 전신주 및 전선 등 각 담당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디자인된 공공시설물이 통일성 없이 설치되어 전체 적 가로 경관은 매우 무질서한 모습이었음.
- 가로 보행현황 : 좁은 보행로 위에 다양한 개인 및 공공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무단으로 주정차 된 차량들 사이로 차량이 운행되고 보행자들은 보행에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② 정비이후 생태교통 기간 중

- 경관 : 개별 건축물의 입간판이 통합적 기준하에 각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되었고, 전선이 지중화 되고, 가로수<sup>14)</sup>가 심어짐으로써, 다양하면서도 정리된 외관으로 정비됨.
- 가로 보행현황 : 도로 전체가 보행자 친화형 재료로 포장되었으며, 보도를 확보하였음. 차도와 보도 구분을 팬스가 아닌 화단을 배치함으로써, 보행전용공간 및 보행안전을 확보하면서 경관과 보행편이성을 해치지 않도록 정비됨.



〈그림 II-4〉 정비전(좌), 후(우) 지역내 주योग로(화서문로) 경관 비교

14) 가로수종은 입간판의 가시성을 위해 소나무로 선정됨.

### (3) 정비이후 거주자 가로 이용행태 현황

#### ① 주요 가로 변

- 주요가로변 상점가 앞으로 테이블 등이 놓여지고 상점이용자 및 가로 이용자가 이용함.
- 상점앞에 화분을 내 놓는 등 가로 접면을 단장함.

#### ② 골목길

- 아스팔트 포장이 걷히고 블록으로 포장되었으며, 요소요소에 접하는 필지 등의 주민과 협의를 거쳐 화단을 설치함.
- 골목에 사는 장노년층이 낮 시간에 자신의 집 앞과 주변 골목길 일대를 스스로 개별적으로 청소하고, 골목에 조성된 화단에는 자신의 집에서 호스를 끌어내어 자발적으로 물을 줌.



〈그림 11-5〉 정비 이후 나타난 상점들의 새로운 가로 이용 및 대응 현황



〈그림 11-6〉 정비 이후 나타난 자발적 골목길 관리 주민활동 모습

### (3) 행사이후 노상 주정차현황 및 주민들 인식변화

#### ① 가로내 주정차 현황

- 행사중에는 지역내에 일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였으나, 행사이후 자동차를 다시 지역 내로 들여왔을 때, 이전에 비해 무단 주정차가 줄었음.
- 그러나 일부 시간대 및 구간에서는 자신의 자동차(점포 이용자자동차 포함)를 보도 확폭 구간에 무단 주정차 시키는 사례가 보여지고 있음.
- 향후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그림 II-7〉 생태교통 수원 2013 종료후 자동차 재사용에 따른 가로 현황

#### ② 주민들의 인식변화<sup>15)</sup>

-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것도 가능함.
- 주차장 문제만 해결된다면 계속 자동차가 없어도 좋겠음. (개인의 주차를 공공이 해결하는 것에 대한 공정한 부담 검토 필요)
- 계속 자동차가 안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노인들과 아이가 있는 엄마들의 목소리가 있음.
- 과거와 달리 배달오토바이/자동차에 길을 비켜주는 것이 신경에 거슬림.
- 누구네 가족이고, 무슨 생각이고, 어떤 사람인지 주민에 대한 인지의 범위가 넓어짐.
- “우리 동네는 쇠락해 간다”에서 “우리 동네는 뭔가 될 것 같다.”로 바뀜 (주민이 투자자로서 새로운 점포 직접 시행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15) 생태교통 주민추진단 운영위원회(2013.9.24.)에서의 각 위원들 발언 및 현황 참조.



---

## 제3장

# 커뮤니티 교류정도 및 가로 내 활동행태 변화

제1절 조사기획

제2절 거주민인식 설문조사

제3절 가로이용자 현장관측 및 추적조사



# 제3장 커뮤니티 교류정도 및 가로 내 활동행태 변화

## 제1절 조사기획

- 본 연구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 주거지 보행가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상지역 내 주민의 커뮤니티 교류정도 및 가로이용 행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인식변화는 전·후 2회의 설문문을 통해 확인함.
- 가로이용 행태의 변화는 가로이용에 대한 전·후 2회의 설문조사와 현장관찰조사, 현장추적조사를 통해 확인함.
- 다만, 정비 이전 가로이용 행태에 대한 현장조사가 예산 및 연구기획시기 등에 의해 사전에 수행되지 못하였기에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개별 관측 및 거주민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추정함.

### 1. 평가기준항목

- 거주민의 커뮤니티 교류 인식의 변화 정도에는 외부 환경영향 뿐만 아니라 거주민의 개별특성에 의해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거주민 개별특성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연구들(Buckner 1988; Skjaeveland, Garling and Maeland 1996, Lund 2002, Wood 2010)에서 사용되었던 항목을 기반으로 성별, 가족구성, 나이, 거주년수, 직업, 소득 수준을 기준항목으로 설정하였음.
- 가족구성은 독신, 부부, 미취학아동 동거여부, 3세대 동거여부 등을 확인하고, 나이는 20세미만에서 60세 이상을 범위로 하여 10세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거주년수는 5년이내, 5~10년, 10~20년, 20년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직업은 회사원, 가정주부, 자영업(지역내), 자영업(지역외), 공무

원, 교사, 시민단체로 구분하고, 소득수준은 8000만원 초과까지 2000만원 단위로 구분, 설정하였음.

## 2. 평가대상항목

### 1) 커뮤니티 교류정도

-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교류정도에 대한 기준으로는 지역에 대한 참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내 주민조직 활동에의 참여정도를 확인함.
- 거주민간 교류정도를 가장 낮은 수준의 교류단계인 단순인지에서, 일상적 인사를 교류하는 수준, 그리고 가장 강한 교류수준인 자택방문교류의 3단계 수준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교류빈도에서의 교류로 보는 대상을 20분 이상 교류<sup>16)</sup>경우 한정하여 조사하였음.

### 2) 가로이용

- 가로이용에 대한 조사는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와 실제 현장의 가로이용행태에 대한 관찰 및 이용자 추적조사로 이루어 짐.
- 인식조사 대상항목은 이웃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가로상 대화시 소요시간, 가로 이용목적, 가로에서 하고 싶거나 기대되는 것으로 하고이의 사업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확인함.
- 이용행태에 대한 조사는 가로상(가로변 공원포함)에서 이루어지는 보행이외의 활동내용과 주요 활동지점에 대한 파악을 위한 현장 관찰조사를 행함.
- 가로 이동자 추적조사를 통해 지역에 진입하는 보행자들이 단순 통과자인지, 지역 내 점포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인지를 확인함.

---

16) 대상지 주민추진단 운영위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단순 안부인사 수준을 넘어서, 특정 화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가능한 수준으로 20분 이상 교류를 설정함. 특히, 20분 이상은 물리적 측정값이 아니라 주민들의 인지정도 값으로, 설문답변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류강도를 설정하는데 있어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됨.

### 3) 설문조사 설계

- 조사지역 : 생태교통 행사대상지인 신흥장안동 일대
- 조사대상자 : 조사지역 내 거주민
- 조사방법 : 자택 방문 면접 / 길거리 대면 작성요청<sup>17)</sup>
- 조사기간 : 정비 전 2013.3.20.~4.1. / 정비 후 2013.10.21~11.1.
- 표본수 : 정비 전(n1) 205 / 정비 후(n2) 404
- 모집단 : 2220세대(2011년 통계기준)
- 추정오차 한계 : 정비 전  $\pm 3.86\%$  / 정비 후  $\pm 3.48\%$

$$\text{추정오차 한계식} = \pm 2 \times \sqrt{\text{추정분산}}$$

$$\pm 2 \times \sqrt{\frac{p(1-p)}{n-1} \times \frac{N-n}{N}}$$

$$p = \frac{n}{N} \quad n = \text{표본 수}, N = \text{모집단 수}$$

$$n_1 = 205, \quad n_2 = 404, \quad p_1 = 0.092, \quad p_2 = 0.182, \quad N = 2220$$

- 정비전

$$\pm 2 \times \sqrt{\frac{0.092(1-0.092)}{204} \times \frac{2220-205}{2220}} = \pm 3.86\%$$

- 정비후

$$\pm 2 \times \sqrt{\frac{0.182(1-0.182)}{403} \times \frac{2220-404}{2220}} = \pm 3.48\%$$

---

17) 정비전 설문조사는 통장 등 주민들과 함께 개별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이 '주민간 인지정도' 이기 때문에 거주지 변동이나 인지능력 상실 등 특수상황이 있기 전에는 인지하던 주민을 모르게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확대될 것이 예측됨. 이를 보정하기 위해 표본수를 늘리고, 조사방법을 바꿈.

#### 4) 가로이용 형태 조사 설계

##### (1) 조사대상 가로 및 시설물

- 신평장안동 일대(0.34km<sup>2</sup>), 지역 내 주요 상업가로로서, 자동차 및 보행자의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되는 주요가로인 화서문로 및 연계 진출입로를 가로활동 및 이동행태에 대한 조사 대상공간으로 설정함.
- 특히, 가로이와 더불어 생태교통 수원 2013을 통해 새로이 조성된 지역 내 가로변 공원 등 휴게시설용지 및 그 부근을 고려하여 조사 및 관측 지점을 설정함.



〈그림 III-1〉 조사대상 주요 가로 및 가로활동 관찰 지점

## (2) 조사내용

- 대화, 놀이, 운동 등의 노상 활동과 공원과 연계된 활동조사
- 보행자의 동선 및 보행 중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가로이동행태조사
- 가로내 설치 시설물 및 해당 시설물 관련 활동조사

〈표 III-1〉 가로이용행태 현장조사 내용

분류	기록대상	조사자의 위치	수집내용	
			항목	내용
가로 활동	대화, 놀이, 운동 등의 활동	지도상의 번호	행위자의 성별, 연령, 숫자	예) 50대 남성 두 명
			위치	지도 상에 순번을 표시
			활동 내용	예) 대화
			지속시간	대략의 시간 기록
	공원 주변 지역의 활동	조사지역 내 공원 주변	행위자의 성별, 연령, 숫자	예) 50대 남성 두 명
			위치	지도 상에 표시
			활동 내용	예) 대화
			지속시간	대략의 시간 기록
가로 이동 행태	보행자의 동선 및 보행 중의 활동	화살표로 표시된 곳에서 보행자를 따라 이동	보행자의 성별, 연령, 숫자	- 관측 관정
			동선	지도에 선으로 기록
			보행시간	조사 지점부터 조사대상 지역을 벗어나기까지의 보행시간
			보행 중 활동 및 특이사항	예) 보행 중 누군가를 만나 벤치에서 약 5분간 대화, 화분에 걸려 넘어 짐 등
가로 환경	가로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	대상지역 전체	시설물의 종류	- 화분, 건조대, 야외테 이블, 운동기구 등
			시설물의 규모	- 일시적인 시설물 포함 - 지도에 기록
	설치시설물과 관련된 활동		행위자의 성별, 연령, 숫자	예) 50대 남성 두 명
			위치	지도 상에 표시
			활동 내용	예) 화단에 물주기
			활동 사진	활동에 대한 사진

### (3) 조사방법

- 정비전 가로활동 및 이용행태에 대해서는 주민추진단<sup>18)</sup> 내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 등을 통해 의견청취 및 사진 등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고, 정비이후는 다음과 같음.
- 현장조사 자료의 표기와 축적에는 위치정보와 연동되는 구글맵상의 내장소 서비스를 활용함(<https://maps.google.co.kr/>).
- 추적조사시점은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정조로에서 진입부, 화서문에서의 진입부, 주민센터 방향에서의 진입부로 설정하였음.
- 조사시기: 2013.11.21.~11.28.
- 조사시간<sup>19)</sup>: 10시~12, 14시~16시, 18시~20시(총 6시간/일)

#### ① 가로활동

- 앞서 제시된 지도(그림3-1)상 해당 위치에서(공원 조사의 경우 공원에서) 각 1명의 조사원(총 4명)이 평일/주말 각 1일씩 조사
- 기록방법: 해당 위치에서 관측되는 활동에 대해 기록 및 사진촬영

〈표 Ⅲ-2〉 가로활동 조사표

활동번호	행위자 정보	관찰시간	활동 내용	지속시간	위치	특이사항
예)	20대 남성 1명, 50대 여성 1명	오전 10시	인도 위에서 운동	약 15분	00수퍼 앞	
1						
2						
...						

18) 생태교통 수원 2013의 민관협력의 효율화를 위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온 주민들을 운영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주민조직

19) 지역내 일상적 가로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 외 시민 등이 점심식사 등을 위해 지역 내로 유입되는 점심시간대를 제외함.

### ② 가로이동행태

- 지도(그림3-1)상 화살표로 표시된 곳에서 각 1명(총3명)의 조사원이 평일/주말 각 1일씩 조사
- 보행자를 따라 이동하면서 기록 및 사진촬영
- 보행자 선택 시 연령/성별 분포를 고르게 할 것

〈표 III-3〉 가로이동 행태 조사표

보행자 번호	보행자 정보	시작 시각	보행 중 활동		보행 시간	특이 사항
			활동내용	위치		
예)	30대 남성 1명	오전 11시 30분	이동 중 누군가와 만나 대화	동사무소 앞	약 30분	
1						
2						
...						

### ③ 가로환경

- 1명의 조사원이 평일/주말 각 1일씩 조사
- 조사대상지역의 가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거리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도에 기록하고 사진촬영
- 이동하면서 발견되는, 시설물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기록 및 사진촬영

〈표 III-4〉 가로활동 조사표

시설물 번호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시설물과 관련된 활동		특이사항
		행위자 정보	활동내용	
예)	화분 3개, 벤치 2개 등	60대 여성 2명	벤치에서 대화	
1				
2				
...				

## 제2절 거주민 인식 설문조사

### 1. 단순집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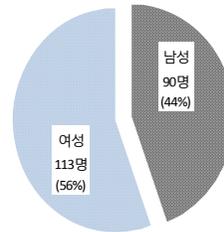
#### 1) 1차 설문조사결과

##### (1) 응답자 특성

- 1차 설문조사의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44%, 여성이 56%였음.
- 가족구성을 보면, 1인가구가 14.6%, 부부, 친인척, 동거 등 1세대 동거가구가 24.9%, 2세대 이상 복수세대 가구가 60.5%이었으며, 아동(초등학생 이하)유무를 기준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가 14.1%, 없는 가구가 85.9%를 차지함.
- 50대 이상 장·노년층이 응답자의 64.2%를 차지하며, 10년이상 거주자가 68.5%를 차지함.
- 직업은 가정주부(41.3%)와 회사원(28.7%)이 가장 많으며, 이들을 합하면 유효응답의 70%를 차지함.
- 가구소득은 2000만원 이하가 55.7%이며, 전체 응답자의 86.6%가 4000만원 이하임.

##### ①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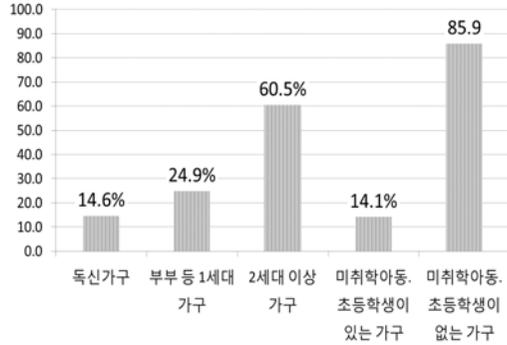
성별	응답자수 (명)	비율(%)
남성	90	44
여성	113	56
계	203	100



〈그림 III-2〉 성별 구성(1차 설문)

### ② 가족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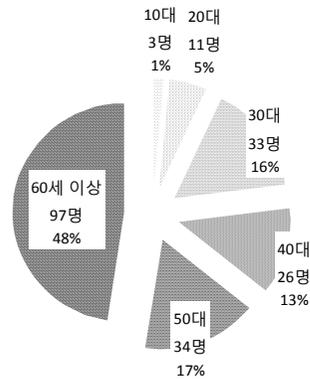
가족구성	응답 자수	비율 (%)
독신(1인)가구	30	14.6
부부등 1세대 가구	51	24.9
2세대 이상 가구	124	60.5
소계	205	100
미취학아동.초등학생 이 있는 가구	29	14.1
미취학아동.초등학생 이 없는 가구	176	85.9
소계	205	100



〈그림 III-3〉 가족구성(1차 설문)

### ③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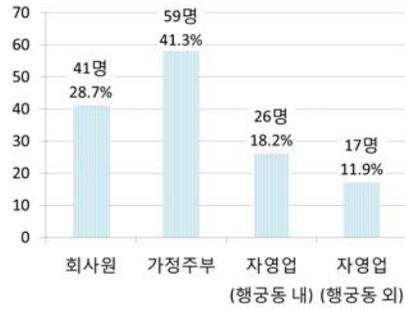
연령	응답자 수(명)	비율(%)
10대	3	1.5
20대	11	5.4
30대	33	16.2
40대	26	12.7
50대	34	16.7
60세 이상	97	47.5
계	204	100



〈그림 III-4〉 연령 구성(1차 설문)

#### ④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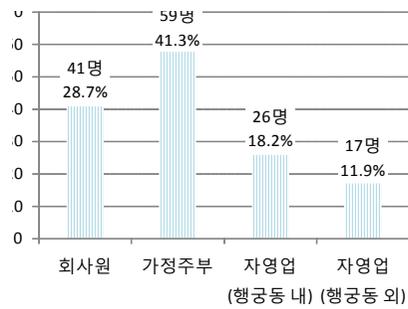
거주기간	응답자 수(명)	비율(%)
5년 이내	37	18.5
5-10년	26	13.0
10-20년	43	21.5
20년 이상	94	47.0
계	200	100



〈그림 III-5〉 거주기간(1차 설문)

#### ⑤ 직업

직업	응답자 수(명)	비율(%)
회사원	41	28.7
가정주부	59	41.3
자영업 (행궁동 내)	26	18.2
자영업 (행궁동 외)	17	11.9
계	143	100



〈그림 III-6〉 직업 구성(1차 설문)

⑥ 가구소득

가구소득	응답자 수(명)	비율(%)
2000만원 이하	108	55.7
2000-4000만원	60	30.9
4000-6000만원	23	11.9
6000-8000만원	3	1.5
8000만원 초과	0	0.0
계	194	100



〈그림 III-7〉 가구소득 구성(1차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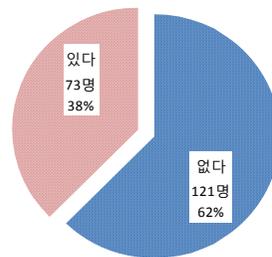
(2) 근린교류 특성

○ 근린교류에 대한 특성은 각 거주자 특성별 표본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각 특성별 빈도를 기준으로 평가함.

① 행궁동 일대를 활동범위로 하는 주민모임 참여 여부

○ 지역 주민모임 참여 비율은 응답자의 37.6%로 62.4%에 이르는 응답자가 지역내에 참여하는 주민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73	37.6
없다	121	62.4
계	194	100



〈그림 III-8〉 참여모임 비율(1차 설문)

- 성별로는 남성응답자의 43.5%가 참여하고 있고, 여성 응답자의 경우는 33.6%에 그쳐, 남성이 여성보다 지역 주민모임 참여비율이 높음.
- 거주기간이 길수록 참여비율이 높고, 직업은 ‘지역 내 자영업’(56.0%)과 가정주부(43.9%)가 높은 참여비율을 보이며, 회사원(16.7%)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역 주민조직 참여에 대한 해당 항목의 영향도에 대한 일반적 기대수준을 만족함.
- 그러나 아동 유무면에서는 아동이 없는(40.1%), 50세이상(50.8%)의 부부등 1세대 가족구성(44.9%)인 경우가 모임 참여비율이 높았음. 이는 대상지역의 경우, 주민모임 참여에 있어 아동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오히려, 자녀를 출가 시킨 장노년층 부부세대가 지역 주민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 소득수준에 따른 참여비율은 약 35%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다만, 소득구간 4000~6000만원의 경우는 52.4%로 비교적 높은 참여비율을 보였음.
- 이상을 보면 현행 지역 주민모임 참여에는 지역 내 거주기간과 직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향후 지역 주민모임 활성화에 있어서는 지역 내 장기 정주환경의 조성 및 지역 내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중요하며, 특히, 장노년층의 교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주민모임에 참여빈도가 적은 젊은, 회사원 등의 지역예의 의사전달 및 교류 통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표 III-5〉 거주자 특성별 지역 주민조직참여 정도(1차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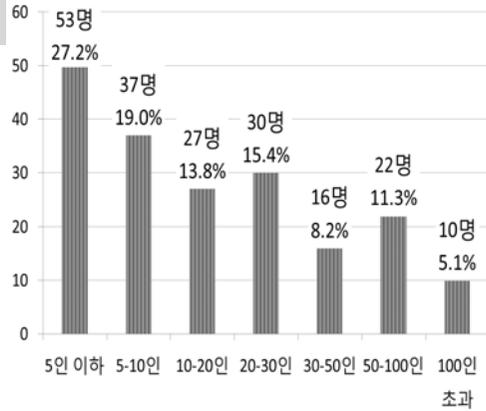
구분		계		있다		없다		
		개체수	구성비%	빈도	빈도비%	빈도	빈도비%	
전체		194	100	73	37.6	121	62.4	
성별	남성	85	43.8	37	43.5	48	56.5	
	여성	107	55.2	36	33.6	71	66.4	
가족구성	독신가구	29	14.9	12	41.4	17	58.6	
	부부 등 1세대	49	25.3	22	44.9	27	55.1	
	2세대 이상 가구	116	59.8	39	33.6	77	66.4	
	아동 (초등학생 이하)	있음	27	13.9	6	22.2	21	77.8
		없음	167	86.1	67	40.1	100	59.9
연령	19세 이하	2	1.0	0	0.0	2	100.0	
	20~29세	11	5.7	0	0.0	11	100.0	
	30~39세	29	14.9	2	6.9	27	93.1	
	40~49세	23	11.9	6	26.1	17	73.9	
	50세 이상	128	66.0	65	50.8	63	49.2	
거주기간	5년 이내	32	16.5	6	18.8	26	81.3	
	5~10년	25	12.9	5	20.0	20	80.0	
	10~20년	42	21.6	15	35.7	27	64.3	
	20년 이상	90	46.4	44	48.9	46	51.1	
직업	회사원	36	18.6	6	16.7	30	83.3	
	가정주부	57	29.4	25	43.9	32	56.1	
	자영업(내부)	25	12.9	14	56.0	11	44.0	
	자영업(외부)	16	8.2	4	25.0	12	75.0	
연 가구소득	2000만원 이하	106	54.6	40	37.7	66	62.3	
	2000~4000만원	54	27.8	18	33.3	36	66.7	
	4000~6000만원	21	10.8	11	52.4	10	47.6	
	6000~8000만원	3	1.5	1	33.3	2	66.7	
	8000만원 초과	0	0	0	0.0	0	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194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 ② 인지하는 동네사람의 숫자

- 대상지 주민의 인적 인지정도는 5인 이하인 경우가 유효응답자의 27.2%에 달함.

	응답자 수(명)	비율(%)
5인 이하	53	27.2
5-10인	37	19.0
10-20인	27	13.8
20-30인	30	15.4
30-50인	16	8.2
50-100인	22	11.3
100인 초과	10	5.1
계	195	100



〈그림 Ⅲ-9〉 인지하는 동네사람의 수(1차 설문)

- 인지하는 사람 수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가족구성에 있어서는 부부등 1세대 가구가 인지하는 동네사람 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며, 독신가구의 경우에는 인지할 수 있는 동네사람이 5인이하가 32.1%로 가장 높고, 20~30인에서도 28.6%로 높아 개인별 인지도의 편차가 큼
- 아동이 있는 가정은 인지정도가 작음, 이는 해당 지역에 최근 전입 온 젊은 가구인 경우가 많아, 거주기간에 의한 교류영향도의 영향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이해됨.
-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인지도가 높음. 다만 거주기간은 5~20년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면에서는 회사원보다 가정주부나 자영업자 등의 인지 인수가 많음. 다만, 지역 내 자영업자는 5인 이하도 28%로 개인별 편차가 큼.
- 소득수준을 보면 가구소득 4000~6000만원 정도인 경우가 가장 인적 인지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2000~4000만원인 경우가 2000만원 이하 경우보다 더 낮은 인적 인지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000만원 초과소득 가구는 인적 인지도가 매우 낮음.

〈표 III-6〉 거주자 특성별 인지하는 동네사람의 수(1차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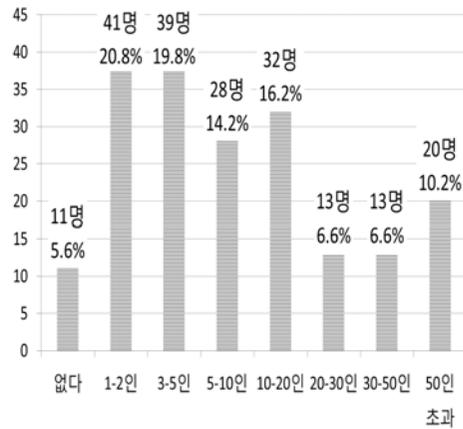
구분	계		5인 이하		5~10인		10~20인		20~30인		30~50인		50~100인		100인 초과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5	100.0	53	27.2	37	19.0	27	13.8	30	15.4	16	8.2	22	11.3	10	5.1		
성별	남성	86	44.1	22	25.6	17	19.8	15	17.4	12	14.0	6	7.0	9	10.5	5	5.8	
	여성	107	54.9	31	29.0	20	18.7	11	10.3	18	16.8	9	8.4	13	12.1	5	4.7	
가족구성	독신가구	28	14.4	9	32.1	2	7.1	3	10.7	8	28.6	2	7.1	3	10.7	1	3.6	
	부부 등 1세대	49	25.1	9	18.4	8	16.3	9	18.4	6	12.2	4	8.2	8	16.3	5	10.2	
	2세대 이상 가구	118	60.5	35	29.7	27	22.9	15	12.7	16	13.6	10	8.5	11	9.3	4	3.4	
	아동(초등학생 이하)	있음	27	13.8	11	40.7	8	29.6	1	3.7	2	7.4	2	7.4	3	11.1	0	0.0
		없음	168	86.2	42	25.0	29	17.3	26	15.5	28	16.7	14	8.3	19	11.3	10	6.0
연령	19세 이하	3	1.5	2	66.7	1	33.3	0	0.0	0	0.0	0	0.0	0	0.0	0	0.0	
	20~29세	11	5.6	5	45.5	4	36.4	2	18.2	0	0.0	0	0.0	0	0.0	0	0.0	
	30~39세	30	15.4	15	50.0	8	26.7	2	6.7	3	10.0	2	6.7	0	0.0	0	0.0	
	40~49세	25	12.8	10	40.0	4	16.0	5	20.0	5	20.0	1	4.0	0	0.0	0	0.0	
	50세 이상	125	64.1	21	16.8	20	16.0	18	14.4	22	17.6	12	9.6	22	17.6	10	8.0	
거주기간	5년 이내	33	16.9	15	45.5	4	12.1	8	24.2	5	15.2	1	3.0	0	0.0	0	0.0	
	5~10년	24	12.3	7	29.2	7	29.2	3	12.5	3	12.5	2	8.3	1	4.2	1	4.2	
	10~20년	42	21.5	13	31.0	8	19.0	6	14.3	7	16.7	4	9.5	3	7.1	1	2.4	
	20년 이상	91	46.7	16	17.6	17	18.7	9	9.9	15	16.5	8	8.8	18	19.8	8	8.8	
직업	회사원	38	19.5	14	36.8	10	26.3	3	7.9	6	15.8	2	5.3	2	5.3	1	2.6	
	가정주부	57	29.2	11	19.3	7	12.3	8	14.0	13	22.8	8	14.0	7	12.3	3	5.3	
	자영업(내)	25	12.8	7	28.0	2	8.0	4	16.0	3	12.0	1	4.0	4	16.0	4	16.0	
	자영업(외)	16	8.2	3	18.8	6	37.5	4	25.0	0	0.0	1	6.3	2	12.5	0	0.0	
연가구소득(만원)	2000 이하	105	53.8	33	31.4	14	13.3	17	16.2	15	14.3	6	5.7	15	14.3	5	4.8	
	2000~4000	55	28.2	15	27.3	15	27.3	5	9.1	11	20.0	4	7.3	2	3.6	3	5.5	
	4000~6000	23	11.8	2	8.7	3	13.0	5	21.7	3	13.0	5	21.7	3	13.0	2	8.7	
	6000~8000	2	1.0	1	50.0	1	50.0	0	0.0	0	0.0	0	0.0	0	0.0	0	0.0	
	8000 초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195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 ③ 일상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숫자

- 대상지 주민 중 일상적 인사를 나누는 주민이 없는 경우가 5.6%이며, 2인 이하 누적의 경우 26.4%임. 3~20명 사이가 전체 주민의 50.2% 임.

	응답자 수(명)	비율(%)
없다	11	5.6
1-2인	41	20.8
3-5인	39	19.8
5-10인	28	14.2
10-20인	32	16.2
20-30인	13	6.6
30-50인	13	6.6
50인 초과	20	10.2
계	197	100



〈그림 III-10〉 인사하는 사람 숫자(1차 설문)

- 성별과 가족구성,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보여지지 않음.
- 아동이 없는 경우가 더 인사하는 사람 수가 많음. 연령이 높을수록 인사하는 수가 많음.
- 직업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지역내 자영업의 경우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수가 5인 이하가 40%이면서, 20인 이상이 52%로 개인별 편차가 큼, 이는 소매업과 전기배관 등 업종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됨.
- 가구소득을 보면 4000~6000만원 수준의 경우가 가장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수가 많은 경향을 나타내며, 2000만원이하가 2000~4000만원 보다 더 많은 경향을 보임.
- 인사를 나누는 주민 수에서는 아동간 그리고 아동을 매개로 한 부모세대의 교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동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연령과 소득수준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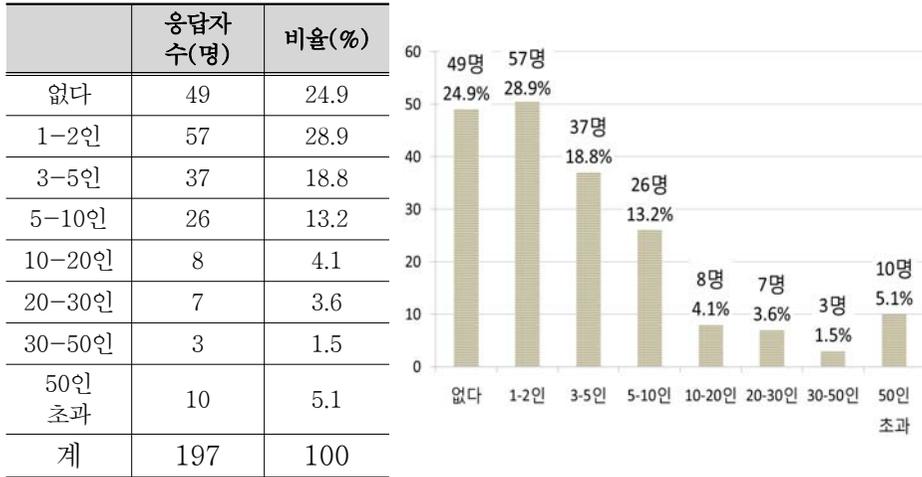
〈표 III-7〉 거주자 특성별 인사하는 사람의 수(1차 설문)

구분		계		없다		1~2인		3~5인		5~10인		10~20인		20~30인		30~50인		50인 초과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7	100	11	5.6	41	20.8	39	19.8	28	14.2	32	16.2	13	6.6	13	6.6	20	10.2
성별	남성	85	43.1	6	7.1	16	18.8	17	20.0	8	9.4	18	21.2	6	7.1	6	7.1	8	9.4
	여성	110	55.8	5	4.5	25	22.7	22	20.0	20	18.2	13	11.8	6	5.5	7	6.4	12	10.9
가족구성	독신가구	29	14.7	3	10.3	4	13.8	7	24.1	3	10.3	6	20.7	1	3.4	4	13.8	1	3.4
	부부 등 1세대	49	24.9	3	6.1	9	18.4	9	18.4	4	8.2	8	16.3	3	6.1	4	8.2	9	18.4
	2세대 이상 가구	119	60.4	5	4.2	28	23.5	23	19.3	21	17.6	18	15.1	9	7.6	5	4.2	10	8.4
	아동 (초등 학생 이하)	있음	27	13.7	2	7.4	12	44.4	7	25.9	2	7.4	-	0.0	2	7.4	-	0.0	2
	없음	170	86.3	9	5.3	29	17.1	32	18.8	26	15.3	32	18.8	11	6.5	13	7.6	18	10.6
연령	19세 이하	3	1.5	1	33.3	-	0.0	-	0.0	2	66.7	-	0.0	-	0.0	-	0.0	-	0.0
	20~29세	11	5.6	1	9.1	5	45.5	3	27.3	1	9.1	1	9.1	-	0.0	-	0.0	-	0.0
	30~39세	29	14.7	2	6.9	12	41.4	9	31.0	3	10.3	2	6.9	1	3.4	-	0.0	-	0.0
	40~49세	26	13.2	2	7.7	8	30.8	6	23.1	4	15.4	3	11.5	3	11.5	-	0.0	-	0.0
	50세 이상	127	64.5	5	3.9	16	12.6	21	16.5	18	14.2	25	19.7	9	7.1	13	10.2	20	15.7
거주기간	5년 이내	34	17.3	2	5.9	7	20.6	9	26.5	8	23.5	6	17.6	2	5.9	-	0.0	-	0.0
	5~10년	25	12.7	2	8.0	7	28.0	7	28.0	4	16.0	2	8.0	1	4.0	-	0.0	2	8.0
	10~20년	43	21.8	3	7.0	7	16.3	7	16.3	7	16.3	9	20.9	5	11.6	4	9.3	1	2.3
	20년 이상	90	45.7	3	3.3	20	22.2	15	16.7	8	8.9	15	16.7	3	3.3	9	10.0	17	18.9
직업	회사원	38	19.3	2	5.3	18	47.4	8	21.1	3	7.9	3	7.9	3	7.9	1	2.6	0	0.0
	가정주부	59	29.9	1	1.7	9	15.3	11	18.6	13	22.0	11	18.6	3	5.1	6	10.2	5	8.5
	자영업(내)	25	12.7	2	8.0	1	4.0	7	28.0	-	0.0	2	8.0	3	12.0	4	16.0	6	24.0
	자영업(외)	15	7.6	-	0.0	3	20.0	5	33.3	4	26.7	2	13.3	-	0.0	-	0.0	1	6.7
연가구소득 (만원)	2000 이하	106	53.8	7	6.6	17	16.0	21	19.8	21	19.8	14	13.2	5	4.7	8	7.5	13	12.3
	2000~4000	55	27.9	4	7.3	18	32.7	12	21.8	5	9.1	6	10.9	6	10.9	1	1.8	3	5.5
	4000~6000	23	11.7	-	0.0	3	13.0	3	13.0	-	0.0	8	34.8	2	8.7	3	13.0	4	17.4
	6000~8000	3	1.5	-	0.0	2	66.7	-	0.0	-	0.0	1	33.3	-	0.0	-	0.0	-	0.0
	8000 초과	0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197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 ④ 자택방문 교류를 하는 사람의 수

- 자택방문 교류는 한명도 없는 경우가 24.9%이며, 2인 이하를 포함하면 53.8%에 이릅니다.



〈그림 III-11〉 자택교류 숫자(1차 설문)

- 자택방문 교류에는 성별 및 가구구성에서는 그다지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아동이 있는 경우가 더 교류 대상인수가 적음.
- 연령이 높을수록 자택방문 교류인수가 많음.
- 직업면에서는 회사원이 가장 자택방문교류 대상인수가 적고,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의 방문교류 대상인수가 많음.
- 가구소득 수준에서는 4000~6000만원 사이의 가구가 가장 방문교류 대상인수가 많음.
- 지역 주민간 교류의 최상위 단계로 설정한 자택방문 교류의 대상인수에 아동이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다양한 교류수준에서의 동일한 결과로 아동을 매개로한 교류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동의 유무보다 가구소득수준과 직업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음.

〈표 III-8〉 자택방문 교류를 하는 사람의 수(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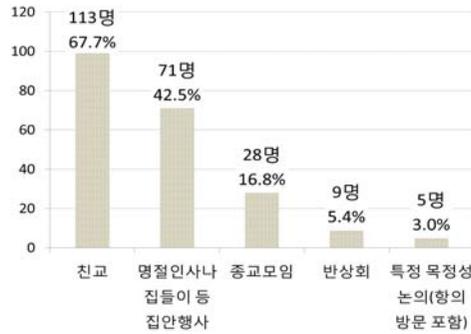
구분	계		없다		1~2인		3~5인		5~10인		10~20인		20~30인		30~50인		50인 초과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7	100	49	24.9	57	28.9	37	18.8	26	13.2	8	4.1	7	3.6	3	1.5	10	5.1	
성별	남성	86	43.7	22	25.6	25	29.1	19	22.1	9	10.5	1	1.2	4	4.7	2	2.3	4	4.7
	여성	109	55.3	27	24.8	32	29.4	18	16.5	15	13.8	7	6.4	3	2.8	1	0.9	6	5.5
가족구성	독신가구	28	14.2	9	32.1	7	25.0	6	21.4	4	14.3	1	3.6	-	0.0	1	3.6	-	0.0
	부부 등 1세대	50	25.4	5	10.0	20	40.0	8	16.0	7	14.0	2	4.0	4	8.0	-	0.0	4	8.0
	2세대 이상 가구	119	60.4	35	29.4	30	25.2	23	19.3	15	12.6	5	4.2	3	2.5	2	1.7	6	5.0
	아동 (초등 학생 이하)	있음	27	13.7	9	33.3	14	51.9	1	3.7	-	0.0	1	3.7	1	3.7	-	0.0	1
	없음	170	86.3	40	23.5	43	25.3	36	21.2	26	15.3	7	4.1	6	3.5	3	1.8	9	5.3
연령	19세 이하	3	1.5	1	33.3	1	33.3	1	33.3	-	0.0	-	0.0	-	0.0	-	0.0	-	0.0
	20~29세	11	5.6	6	54.5	3	27.3	2	18.2	-	0.0	-	0.0	-	0.0	-	0.0	-	0.0
	30~39세	30	15.2	14	46.7	11	36.7	1	3.3	3	10.0	-	0.0	1	3.3	-	0.0	-	0.0
	40~49세	25	12.7	7	28.0	8	32.0	5	20.0	3	12.0	2	8.0	-	0.0	-	0.0	-	0.0
	50세 이상	127	64.5	21	26.3	34	44.1	28	50.2	19	36.6	6	10.5	6	10.5	3	3.2	10	18.8
거주기간	5년 이내	34	17.3	10	29.4	11	32.4	9	26.5	4	11.8	-	0.0	-	0.0	-	0.0	-	0.0
	5~10년	25	12.7	6	24.0	10	40.0	5	20.0	2	8.0	-	0.0	-	0.0	1	4.0	1	4.0
	10~20년	43	21.8	7	16.3	10	23.3	10	23.3	8	18.6	3	7.0	3	7.0	-	0.0	2	4.7
	20년 이상	90	45.7	24	26.7	26	28.9	11	12.2	12	13.3	5	5.6	4	4.4	2	2.2	6	6.7
직업	회사원	37	18.8	21	56.8	8	21.6	4	10.8	3	8.1	1	2.7	0	0.0	-	0.0	-	0.0
	가정주부	59	29.9	11	18.6	18	30.5	9	15.3	12	20.3	6	10.2	0	0.0	-	0.0	3	5.1
	자영업(내)	25	12.7	1	4.0	5	20.0	7	28.0	1	4.0	1	4.0	4	16.0	1	4.0	5	20.0
	자영업(외)	15	7.6	-	0.0	7	46.7	3	20.0	4	26.7	-	0.0	-	0.0	-	0.0	1	6.7
연가소득(만원)	2000 이하	106	53.8	26	24.5	36	34.0	15	14.2	15	14.2	2	1.9	2	1.9	1	0.9	9	8.5
	2000~4000	54	27.4	18	33.3	11	20.4	15	27.8	5	9.3	1	1.9	3	5.6	-	0.0	1	1.9
	4000~6000	23	11.7	2	8.7	4	17.4	6	26.1	4	17.4	4	17.4	2	8.7	1	4.3	-	0.0
	6000~8000	3	1.5	1	33.3	1	33.3	-	0.0	1	33.3	-	0.0	-	0.0	-	0.0	-	0.0
	8000 초과	-	-	-	-	-	-	-	-	-	-	-	-	-	-	-	-	-	-

※ 항목별 응답자 수가 197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⑤ 자택방문교류의 목적(복수응답)

- 자택방문교류의 목적은 친교(약 68%), 집안행사(42.5%)의 비중이 높으며, 종교모임(16.8%), 반상회(5.4%), 특정 목적성 논의(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수(명)	비율 (%)
친교	113	67.7
집안행사	71	42.5
종교모임	28	16.8
반상회	9	5.4
특정 목적성 논의	5	3.0
계(중복된 숫자 제외)	167	



〈그림 III-12〉 자택방문교류의 목적(1차 설문)

- 자택방문 교류의 목적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남성과 여성 모두 친교, 집안행사 등 사적인 목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반상회 등 지역 모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가구구성 형태에 따라 친교, 집안행사의 비율이 뚜렷한 차이를 보임. 세대수가 많을수록, 아동이 있는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집안행사의 비중이 높고, 친교의 비율은 낮음. 또한 세대가 많을수록 반상회, 특정 목적성 논의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친교를 위한 교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반상회의 경우 응답자 모두 50세 이상이며, 특정 목적성 논의도 50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이 지역 모임의 주된 행위자임을 알 수 있음.
- 거주기간이 길수록 친교를 위한 방문교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집안행사 목적의 교류는 비중이 대체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이는 거주기간이

길수록 일상적 교류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전체 숫자가 적긴 하지만 반상회, 특정목적성 논의도 거주기간이 길수록 참여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가정주부는 가장 교류가 활발한 직업군임. 친교를 위한 교류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반상회, 특정 목적성 논의의 경우도 가정주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연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반상회 참여 항목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연평균 가구소득이 4000~6000만원인 가구의 반상회 참여 비율이 23.8%로 다른 가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체로 연령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가정주부가 친교 목적의 교류가 활발하며 반상회 등의 지역모임 참여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III-9〉 방문교류 목적(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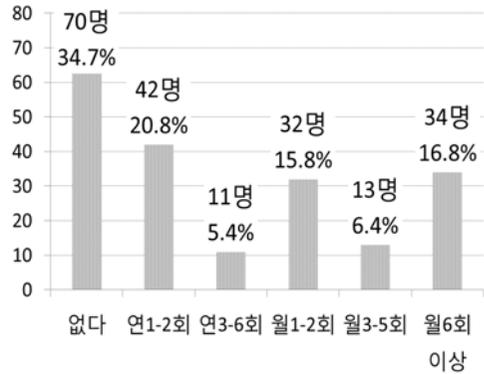
구분		계		친교		집안행사		종교모임		반사회		특정목적성 논의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67	100	113	67.7	71	42.5	28	16.8	9	5.4	5	3.0
성별	남성	70	41.9	52	74.3	25	35.7	9	12.9	2	2.9	2	2.9
	여성	95	56.9	61	64.2	45	47.4	18	18.9	7	7.4	3	3.2
가족구성	독신가구	23	13.8	20	87.0	6	26.1	5	21.7	0	0.0	0	0.0
	부부 등 1세대	44	26.3	35	79.5	18	40.9	6	13.6	3	6.8	0	0.0
	2세대 이상 가구	100	59.9	58	58.0	47	47.0	17	17.0	6	6.0	5	5.0
	미취학아동.초 등학생	있음	25	15.0	12	48.0	15	60.0	0	0.0	2	8.0	1
	없음	142	85.0	101	71.1	56	39.4	28	19.7	7	4.9	4	2.8
연속 령성	19세 이하	3	1.8	2	66.7	2	66.7	1	33.3	0	0.0	0	0.0
	20~29세	7	4.2	5	71.4	3	42.9	1	14.3	0	0.0	0	0.0
	30~39세	22	13.2	8	36.4	16	72.7	1	4.5	0	0.0	0	0.0
	40~49세	20	12.0	12	60.0	9	45.0	1	5.0	0	0.0	2	10.0
	50세 이상	114	68.3	86	75.4	40	35.1	24	21.1	9	7.9	3	2.6
거주 주 기 간	5년 이내	30	18.0	13	43.3	16	53.3	1	3.3	2	6.7	1	3.3
	5~10년	23	13.8	14	60.9	10	43.5	5	21.7	0	0.0	0	0.0
	10~20년	37	22.2	27	73.0	13	35.1	12	32.4	2	5.4	1	2.7
	20년 이상	73	43.7	55	75.3	30	41.1	9	12.3	5	6.8	3	4.1
직 업	회사원	24	14.4	15	62.5	12	50.0	1	4.2	1	4.2	0	0.0
	가정주부	54	32.3	38	70.4	26	48.1	11	20.4	5	9.3	3	5.6
	자영업(내부)	24	14.4	16	66.7	10	41.7	7	29.2	0	0.0	0	0.0
	자영업(외부)	13	7.8	7	53.8	6	46.2	1	7.7	0	0.0	0	0.0
연 가 구 소 득	2000만원 이하	89	53.3	61	68.5	42	47.2	18	20.2	2	2.2	2	2.2
	2000~4000만원	44	26.3	26	59.1	20	45.5	5	11.4	2	4.5	2	4.5
	4000~6000만원	21	12.6	16	76.2	7	33.3	4	19.0	5	23.8	1	4.8
	6000~8000만원	2	1.2	2	100	0	0.0	0	0.0	0	0.0	0	0.0
	8000만원 초과	0	0.0	0	0	0	0	0	0	0	0	0	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167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⑥ 행궁동 내 주민과의 20분이상 교류빈도

- 행궁동내 주민과의 20분 이상 교류빈도는 전혀 없는 경우가 34.7%이며, 절반이상(55.5%)이 연 2회 이하의 빈도를 보이고 있음.

	응답자 수(명)	비율(%)
없다	70	34.7
연1-2회	42	20.8
연3-6회	11	5.4
월1-2회	32	15.8
월3-5회	13	6.4
월6회 이상	34	16.8
계	202	100



〈그림 III-13〉 교류빈도(1차 설문)

-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빈도를 나타냄.
- 가구구성면에서는 그다지 차이는 없으나 독신가구의 경우가 약간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아동이 없는 가구의 빈도수가 더 높은 경향을 나타냄.
-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은 빈도를 나타냄. 50세 이상 응답자의 46.9%가 월 1회 이상 교류한다고 답한 반면, 20~29세는 9%에 불과함.
- 거주기간의 차이는 20분 이상 교류빈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면에서는 회사원이 가장 교류빈도가 낮고, 가정주부와 자영업자(내부)가 높은 교류빈도를 나타냄. 특히, 자영업자(내부)의 경우는 연 2회 이하가 38.4%, 월1회 이상이 61.6%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이는 소매업과 전기배관 등 업종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유추됨.

〈표 III-10〉 20분 이상 교류 빈도(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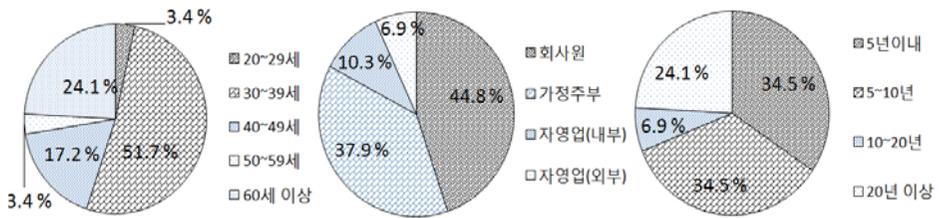
구분		계		없다		연1~2회		연3~6회		월1~2회		월3~5회		월6회이상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02	100	70	34.7	42	20.8	11	5.4	32	15.8	13	6.4	34	16.8
성별	남성	88	43.6	41	46.6	14	15.9	6	6.8	8	9.1	4	4.5	15	17.0
	여성	112	55.4	28	25.0	27	24.1	5	4.5	24	21.4	9	8.0	19	17.0
가족 구성	독신가구	29	14.4	6	20.7	8	27.6	2	6.9	4	13.8	4	13.8	5	17.2
	부부 등 1세대	51	25.2	18	35.3	12	23.5	4	7.8	7	13.7	1	2.0	9	17.6
	2세대 이상 가구	122	60.4	46	37.7	22	18.0	5	4.1	21	17.2	8	6.6	20	16.4
	아동(초등 학생이하)	있음	29	14.4	17	58.6	8	27.6	0	0.0	1	3.4	1	3.4	2
	없음	173	85.6	53	30.6	34	19.7	11	6.4	31	17.9	12	6.9	32	18.5
연령	19세 이하	3	1.5	1	33.3	1	33.3	0	0.0	0	0.0	0	0.0	1	33.3
	20~29세	11	5.4	7	63.6	2	18.2	1	9.1	0	0.0	1	9.1	0	0.0
	30~39세	31	15.3	18	58.1	6	19.4	0	0.0	5	16.1	1	3.2	1	3.2
	40~49세	26	12.9	8	30.8	8	30.8	1	3.8	4	15.4	2	7.7	3	11.5
	50세 이상	130	64.4	35	26.9	25	19.2	9	6.9	23	17.7	9	6.9	29	22.3
거주 기간	5년 이내	36	17.8	14	38.9	7	19.4	2	5.6	5	13.9	3	8.3	5	13.9
	5~10년	26	12.9	11	42.3	4	15.4	0	0.0	5	19.2	1	3.8	5	19.2
	10~20년	43	21.3	10	23.3	13	30.2	3	7.0	8	18.6	3	7.0	6	14.0
	20년 이상	92	45.5	32	34.8	18	19.6	6	6.5	13	14.1	6	6.5	17	18.5
직업	회사원	41	20.3	23	56.1	9	22.0	1	2.4	4	9.8	2	4.9	2	4.9
	가정주부	58	28.7	11	19.0	15	25.9	3	5.2	12	20.7	5	8.6	12	20.7
	자영업(내부)	26	12.9	5	19.2	5	19.2	0	0.0	7	26.9	2	7.7	7	26.9
	자영업(외부)	15	7.4	6	40.0	2	13.3	2	13.3	3	20.0	0	0.0	2	13.3
연 가구 소득	2000만원 이하	105	52.0	39	37.1	19	18.1	7	6.7	16	15.2	7	6.7	17	16.2
	2000~4000만원	60	29.7	21	35.0	11	18.3	0	0.0	12	20.0	4	6.7	12	20.0
	4000~6000만원	23	11.4	2	8.7	8	34.8	4	17.4	3	13.0	2	8.7	4	17.4
	6000~8000만원	3	1.5	2	66.7	1	33.3	0	0.0	0	0.0	0	0.0	0	0.0
	8000만원 초과	0	0.0	0	0	0	0	0	0	0	0	0	0	0	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202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 ⑦ 1차 설문 응답자 근린교류 특성 종합

- 해당 지역의 근린교류 정도는 '소득구간 4000~6000만원'에서, 그리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높음. 직업면에서는 '회사원'의 교류정도가 가장 낮고, '지역내 자영업자'가 가장 높음. 다만 자영업자는 교류정도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업종에 따른 특성으로 유추됨.

- 특정 목적성 교류보다는 일상적 친교의 비중이 높으며, 반사회 등 목적성 교류의 경우는 2세대 이상 동거 가구의 비중이 높음. 특히 연령면에서 50세 이상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을 볼 때, 노년층이 대상지역 주민모임의 주된 행위자로 유추됨.
- 근린교류의 특징 중 일반적으로 근린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아동이 있는 가구가 오히려 낮은 교류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아동이 있는 대상가구의 응답자가 젊고, 회사원이며, 거주기간이 짧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해당 지역의 근린교류에는 아동보다는 직업과 거주기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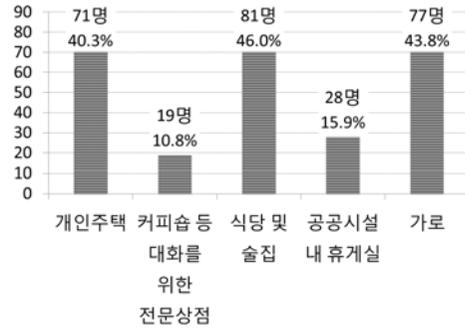
〈그림 III-14〉 아동이 있는 가구 특성(연령/ 직업/ 거주기간)

### (3) 가로이용

#### ① 이웃과의 대화장소(복수응답)

- 이웃과의 대화장소로 선호도가 높은 곳은 식당 및 술집(46%)이 가장 높고, 가로(43.8%), 개인주택(40.3%)이 이어지며, 커피숍 등 전문상점은 10.8%로 가장 선호도가 낮음.

	응답자 수(명)	비율(%)
개인주택	71	40.3
커피숍 등	19	10.8
식당 및 술집	81	46.0
공공시설 내 휴게실	28	15.9
가로	77	43.8
계(중복된 숫자 제외)	176	



〈그림 III-15〉 대화장소(1차 설문)

- 성별에 따른 대화장소의 차이는 남성의 경우 식당 및 술집이 과반수를 넘는 반면, 여성은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가구구성의 경우 세대가 많을수록, 아동이 있는 가구가 가로를 대화장소로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 50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식당 및 술집(56.9%), 개인주택(56.6%), 가로(54.3%) 등의 선택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연령이 높을수록 대화장소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연령이 높을수록 주민 간 교류가 활발하며, 그 장소도 다양하게 이용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지역에서 가장 이용빈도가 낮은 커피숍 등 전문상점의 경우는 20대가 가장 높은 이용빈도를 보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 빈도가 낮아짐.
- 거주기간은 대화장소와 큰 관련성을 보이지 않으며, 가정주부가 식당 및 술집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고르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연 가구소득수준의 경우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장소에서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요컨대 대체로 연령이 높은 경우, 가정주부인 경우 다양한 대화장소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임. 남성, 자영업자는 식당 및 술집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함.

〈표 III-11〉 대화장소(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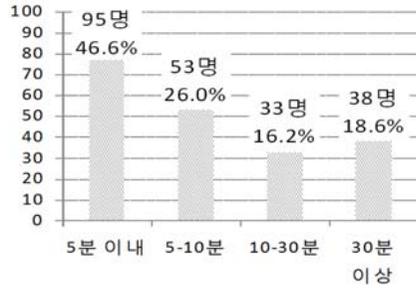
구분		계		개인주택		커피숍 등		식당 및 술집		공공시설 내 휴게실		가로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76	100	71	40.3	19	10.8	81	46.0	28	15.9	77	43.8	
성별	남성	76	43.2	25	32.9	5	6.6	42	55.3	5	6.6	31	40.8	
	여성	98	55.7	43	43.9	14	14.3	39	39.8	22	22.4	47	48.0	
가족 구성	독신가구	27	15.3	12	44.4	3	11.1	12	44.4	9	33.3	8	29.6	
	부부 등 1세대	44	25.0	22	50.0	3	6.8	21	47.7	6	13.6	20	45.5	
	2세대 이상 가구	105	59.7	36	34.3	13	12.4	48	45.7	13	12.4	50	47.6	
	미취학아 동.초등 학생	있음	27	15.3	6	22.2	1	3.7	10	37.0	1	3.7	14	51.9
	없음	149	84.7	64	43.0	18	12.1	71	47.7	27	18.1	67	45.0	
연령	19세 이하	3	1.7	1	33.3	1	33.3	1	33.3	0	0.0	1	33.3	
	20~29세	9	5.1	1	11.1	4	44.4	1	11.1	0	0.0	3	33.3	
	30~39세	27	15.3	5	18.5	5	18.5	14	51.9	0	0.0	11	40.7	
	40~49세	23	13.1	8	34.8	3	13.0	12	52.2	3	13.0	12	52.2	
	50세 이상	113	64.2	54	56.6	6	6.6	53	56.9	24	25.5	51	54.3	
거주 기간	5년 이내	34	19.3	13	38.2	5	14.7	19	55.9	6	17.6	14	41.2	
	5~10년	25	14.2	10	40.0	1	4.0	9	36.0	2	8.0	13	52.0	
	10~20년	32	18.2	18	56.3	4	12.5	19	59.4	2	6.3	10	31.3	
	20년 이상	80	45.5	27	33.8	8	10.0	30	37.5	18	22.5	39	48.8	
직업	회사원	34	19.3	6	17.6	4	11.8	14	41.2	2	5.9	19	55.9	
	가정주부	54	30.7	35	64.8	7	13.0	24	44.4	15	27.8	31	57.4	
	자영업(내부)	24	13.6	9	37.5	2	8.3	14	58.3	2	8.3	4	16.7	
	자영업(외부)	11	6.3	2	18.2	0	0.0	3	27.3	0	0.0	3	27.3	
연 가구 소득	2000만원 이하	92	52.3	42	45.7	12	13.0	39	42.4	15	16.3	40	43.5	
	2000~4000만원	52	29.5	11	21.2	5	9.6	24	46.2	8	15.4	23	44.2	
	4000~6000만원	19	10.8	13	68.4	1	5.3	11	57.9	4	21.1	11	57.9	
	6000~8000만원	3	1.7	0	0.0	0	0.0	2	66.7	0	0.0	1	33.3	
	8000만원 초과	0	0	0	0	0	0	0	0	0	0	0	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176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② 가로에서 이웃과의 대화시간(복수응답)

- 가로에서 이웃과의 대화시간은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5분 이내라고 응답함. 그러나 30분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8.6%에 이릅니다.

	응답자 수(명)	비율(%)
5분 이내	95	46.6
5-10분	53	26.0
10-30분	33	16.2
30분 이상	38	18.6
계(중복된 숫자 제외)	204	



〈그림 III-16〉 대화시간(1차 설문)

- 성별에 따른 대화시간은 큰 차이는 없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가구구성에 따른 대화시간 역시 큰 차이를 띠진 않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가 조금 더 짧은 경향을 보임.
-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적인 대화시간이 증가하며 또한 대체로 고른 시간 분포를 보이는 특징을 띠고 있음. 20대의 경우 80% 이상이 5분 이내라고 답한 반면, 50세 이상의 경우 5분 이내가 57%, 10~30분이 57%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로상에서의 대화 빈도와 시간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거주기간과 대화시간의 큰 상관성은 찾기 어려움.
- 대화시간의 가장 큰 차이는 직업군에서 나타남. 회사원은 가로에서의 대화시간이 가장 짧은 직업군이며, 반대로 자영업(내부)은 대화시간이 가장 길며, 가정주부는 그 다음임. 이는 지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업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표본수가 적은 6000만원 이상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대화시간은 대체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음.

- 가로에서의 대화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업과 연령으로 나타남. 이는 가로에서의 대화가 계획된 활동이라기보다 우연적인 만남에 따른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 볼 때,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업(자영업(내부), 가정주부)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III-12〉 소요시간(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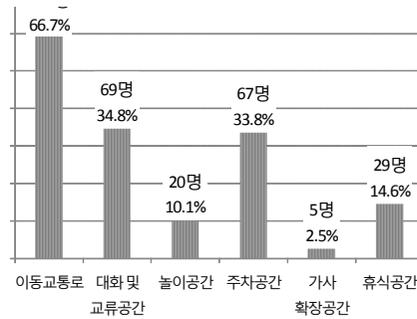
구분		계		5분 이내		5~10분		10~30분		30분 이상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204	100	95	46.6	53	26.0	33	16.2	38	18.6
성별	남성	89	43.6	45	50.6	21	23.6	14	15.7	15	16.9
	여성	113	55.4	51	45.1	31	27.4	18	15.9	23	20.4
가족 구성	독신가구	30	14.7	13	43.3	12	40.0	4	13.3	3	10.0
	부부 등 1세대	51	25.0	24	47.1	14	27.5	6	11.8	13	25.5
	2세대 이상 가구	123	60.3	59	48.0	27	22.0	23	18.7	22	17.9
	미취학아동,초등 학생	있음	29	14.2	17	58.6	5	17.2	5	17.2	5
	없음	175	85.8	79	45.1	48	27.4	28	16.0	33	18.9
연령	19세 이하	3	1.5	2	66.7	0	0.0	1	33.3	0	0.0
	20~29세	11	5.4	9	81.8	1	9.1	0	0.0	1	9.1
	30~39세	32	15.7	21	65.6	4	12.5	6	18.8	3	9.4
	40~49세	26	12.7	11	42.3	8	30.8	2	7.7	7	26.9
	50세 이상	131	64.2	53	56.6	40	6.6	23	56.9	27	25.5
거주 기간	5년 이내	37	18.1	19	51.4	6	16.2	5	13.5	9	24.3
	5~10년	26	12.7	19	73.1	2	7.7	4	15.4	3	11.5
	10~20년	43	21.1	16	37.2	15	34.9	8	18.6	9	20.9
	20년 이상	94	46.1	39	41.5	28	29.8	14	14.9	17	18.1
직업	회사원	41	20.1	30	73.2	2	4.9	6	14.6	4	9.8
	가정주부	59	28.9	22	37.3	22	37.3	11	18.6	12	20.3
	자영업(내부)	26	12.7	9	34.6	10	38.5	5	19.2	7	26.9
	자영업(외부)	16	7.8	6	37.5	4	25.0	3	18.8	3	18.8
연 가구 소득	2000만원 이하	107	52.5	52	48.6	38	35.5	14	13.1	13	12.1
	2000~4000만원	60	29.4	29	48.3	9	15.0	11	18.3	14	23.3
	4000~6000만원	23	11.3	8	34.8	4	17.4	5	21.7	8	34.8
	6000~8000만원	3	1.5	2	66.7	1	33.3	0	0.0	0	0.0
	8000만원 초과	0	-	0	0.0	0	0.0	0	0.0	0	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204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 ③ 가로이용목적(복수응답)

- 가로이용목적은 이동이 66.7%로 가장 높고, 이를 이어 교류(대화 및 교류, 놀이) 목적이 44.9%이며, 주차가 33.8% 였으며, 가사확장은 2.5%로 매우 적음.

	응답자 수(명)	비율 (%)
이동교통로	132	66.7
대화 및 교류공간	69	34.8
놀이공간	20	10.1
주차공간	67	33.8
빨래널기, 화초재배 등 가사 확장공간	5	2.5
휴식공간	29	14.6
계	198	



〈그림 III-18〉 가로이용목적(1차 설문)

- 가로이용 현황은 성별에 따라 뚜렷한 대조를 보임. ‘이동 및 주차’에서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그외 ‘교류 및 점유’면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가구구성에 있어서는 세대수가 적을수록, 교류 및 점유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 아동이 없는 가구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비해 이동 및 주차, 교류 및 점유의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남.
- 연령의 경우, 표본수가 적은 19세 이하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이동, 교류, 주차, 점유의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거주기간 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 직업의 경우, 이동 및 주차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가정주부의 교류 및 점유 비율 목적 사용이 높은 비율을 나타냄. 가정주부와 함께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영업(내부)의 교류 및 점유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로 볼 때, 성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 가구소득은 교류 및 점유와는 큰 상관성이 없으나, 이동 및 주차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가로의 교류 및 점유 이용은 성별과 직업 특성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교류 및 점유의 가장 활발한 행위자가 가정주부로 나타나는 것은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여성이라는 특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됨.

〈표 III-13〉 가로이용목적(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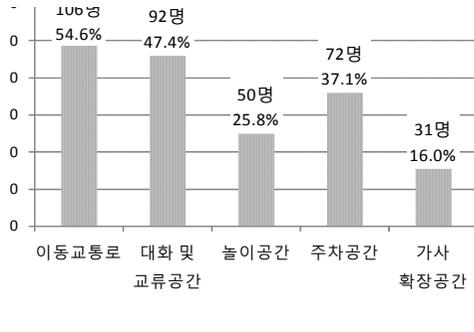
구분	계		이동교통로		대화 및 교류공간		놀이공간		주차공간		가사 확장공간		휴식공간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8	100	132	66.7	69	34.8	20	10.1	67	33.8	5	2.5	29	14.6	
성별	남성	83	41.9	59	71.1	22	26.5	5	6.0	32	38.6	0	0.0	8	9.6
	여성	113	57.1	71	62.8	46	40.7	15	13.3	34	30.1	5	4.4	21	18.6
가족구성	독신가구	30	15.2	16	53.3	14	46.7	3	10.0	7	23.3	0	0.0	5	16.7
	부부 등 1세대	48	24.2	36	75.0	14	29.2	2	4.2	17	35.4	3	6.3	7	14.6
	2세대 이상 가구	120	60.6	80	66.7	41	34.2	15	12.5	43	35.8	2	1.7	17	14.2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있음 없음	28 170	14.1 85.9	12 120	42.9 70.6	6 63	21.4 37.1	7 13	25.0 7.6	11 51	39.3 30.0	1 4	3.6 2.4	1 28
연령	19세 이하	3	1.5	2	66.7	2	66.7	1	33.3	1	33.3	0	0.0	2	66.7
	20~29세	11	5.6	6	54.5	2	18.2	1	9.1	3	27.3	0	0.0	1	9.1
	30~39세	32	16.2	20	62.5	6	18.8	4	12.5	12	37.5	1	3.1	3	9.4
	40~49세	25	12.6	15	60.0	9	36.0	4	16.0	12	48.0	0	0.0	2	8.0
	50세 이상	126	63.6	88	69.8	49	38.9	10	7.9	38	30.2	4	3.2	21	16.7
거주기간	5년 이내	34	17.2	21	61.8	10	29.4	8	23.5	11	32.4	1	2.9	7	20.6
	5~10년	26	13.1	17	65.4	10	38.5	5	19.2	9	34.6	1	3.8	4	15.4
	10~20년	42	21.2	32	76.2	13	31.0	0	0.0	8	19.0	0	0.0	5	11.9
	20년 이상	91	46.0	57	62.6	35	38.5	7	7.7	39	42.9	3	3.3	13	14.3
직업	회사원	41	20.7	20	48.8	11	26.8	6	14.6	23	56.1	1	2.4	4	9.8
	가정주부	59	29.8	41	69.5	31	52.5	11	18.6	16	27.1	4	6.8	9	15.3
	자영업(내부)	25	12.6	17	68.0	10	40.0	0	0.0	7	28.0	0	0.0	4	16.0
	자영업(외부)	12	6.1	8	66.7	3	25.0	1	8.3	3	25.0	0	0.0	2	16.7
연가구소득	2000만원 이하	103	52.0	73	70.9	35	34.0	7	6.8	20	19.4	4	3.9	10	9.7
	2000~4000만원	59	29.8	34	57.6	21	35.6	12	20.3	29	49.2	0	0.0	12	20.3
	4000~6000만원	23	11.6	18	78.3	9	39.1	1	4.3	13	56.5	0	0.0	5	21.7
	6000~8000만원	3	1.5	0	0.0	1	33.3	0	0.0	2	66.7	0	0.0	0	0.0
	8000만원 초과	0	-	0	-	0	-	0	-	0	-	0	-	0	-

※ 항목별 응답자 수가 198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④ 가로에서 기대하는 것(복수응답)

- 가로에서 기대하는 활동은 이동 및 주차가 91.8%, 교류 및 점유가 89.2%로 조사되었음.

	응답자 수(명)	비율 (%)
이동교통로	106	54.6
대화 및 교류공간	92	47.4
놀이공간	50	25.8
주차공간	72	37.1
빨래 널기, 화초재배 등 가사 확장공간	31	16.0
계(중복된 숫자 제외)	194	



〈그림 III-19〉 가로에서 기대하는 것(1차 설문)

- 이용목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별에 있어서는 뚜렷한 대조가 확인됨. 여성은 교류 및 점유를 기대하는 비율이 98.1%로 이동 및 주차(85.2%) 보다 높게 나타남. 남성은 반대로 이동 및 주차에 대한 기대가 더 높음.
- 가구구성의 경우, 현재 이용과는 다르게 세대가 많은 가구의 교류 및 점유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남. 또한 아동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도 현재 이용과는 반대로 없는 가구에 비해 교류 및 점유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남.
- 연령의 경우에는 현재 이용과 비슷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이동 및 주차, 교류 및 점유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거주기간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교류 및 점유에 대한 기대가 높게 형성되고 있음.
- 직업의 경우, 자영업(외부)과 가정주부가 교류 및 점유에 대해 높은 기대를 나타내고 있음. 회사원은 이동 및 주차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직업군임.

- 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이동 및 주차에 대한 기대가 높게 형성되고 있으나, 교류 및 점유에서는 이와 같은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음. 다만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구에 속한 응답자는 이동 및 주차, 교류 및 점유 모두에서 가장 낮은 기대치를 보임.
- 요약하면 대체로 많은 응답자 특성에서 가로의 현재이용 양태와 가로에 대한 기대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음. 즉 현재 가로이용이 이동 및 주차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반해 기대하는 것은 교류 및 점유활동으로 조사됨. 아동이 있는 가구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대표적인 집단임.

〈표 III-14〉 가로에 기대하는 것(1차)

구분		계		이동교통로		대화 및 교류공간		놀이공간		주차공간		가사 확장공간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194	100	106	54.6	92	47.4	50	25.8	72	37.1	31	16.0
성별	남성	86	44.3	50	58.1	35	40.7	20	23.3	36	41.9	12	14.0
	여성	108	55.7	56	51.9	57	52.8	30	27.8	36	33.3	19	17.6
가족 구성	독신가구	30	15.5	19	63.3	16	53.3	3	10.0	5	16.7	6	20.0
	부부 등 1세대	45	23.2	28	62.2	20	44.4	8	17.8	20	44.4	8	17.8
	2세대 이상 가구	119	61.3	59	49.6	56	47.1	39	32.8	47	39.5	17	14.3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있음	28	14.4	9	32.1	6	21.4	18	64.3	17	60.7	3
	없음	166	85.6	97	58.4	86	51.8	32	19.3	55	33.1	28	16.9
연령	19세 이하	3	1.5	1	33.3	1	33.3	0	0.0	0	0.0	1	33.3
	20~29세	10	5.2	4	40.0	3	30.0	3	30.0	5	50.0	2	20.0
	30~39세	32.0	16.5	17	53.1	10	31.3	12	37.5	16	50.0	2	6.3
	40~49세	26.0	13.4	11	42.3	17	65.4	12	46.2	13	50.0	7	26.9
	50세 이상	123	63.4	73	59.3	61	49.6	23	18.7	38	30.9	19	15.4
거주 기간	5년 이내	34	17.5	18	52.9	18	52.9	15	44.1	13	38.2	8	23.5
	5~10년	26	13.4	10	38.5	13	50.0	10	38.5	8	30.8	3	11.5
	10~20년	41	21.1	25	61.0	18	43.9	6	14.6	12	29.3	5	12.2
	20년 이상	88	45.4	50	56.8	40	45.5	18	20.5	38	43.2	15	17.0
직업	회사원	40	20.6	19	47.5	14	35.0	16	40.0	25	62.5	5	12.5
	가정주부	57	29.4	31	54.4	32	56.1	18	31.6	16	28.1	13	22.8
	자영업(내부)	24	12.4	12	50.0	9	37.5	7	29.2	8	33.3	2	8.3
	자영업(외부)	15	7.7	8	53.3	9	60.0	4	26.7	7	46.7	5	33.3
연 가구 소득	2000만원 이하	99	51.0	61	61.6	41	41.4	15	15.2	26	26.3	20	20.2
	2000~4000만원	59	30.4	26	44.1	31	52.5	26	44.1	33	55.9	9	15.3
	4000~6000만원	23	11.9	14	60.9	15	65.2	7	30.4	10	43.5	1	4.3
	6000~8000만원	3	1.5	1	33.3	0	0.0	0	0.0	2	66.7	0	0.0
	8000만원 초과	0	-	0	-	0	-	0	-	0	-	0	-

※ 항목별 응답자 수가 194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 ⑤ 1차 설문 응답자 가로 등 이용 특성 종합

- 대상지역 거주민의 가로이용 등과 관련된 특성을 보면, 대화장소로는 식당 및 술집이 주로 이용되며, 가로와 개인주택이 그 뒤를 잇는다. 커피숍 등 전문상점은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성들에게 크게 나타나며, 여성들은 가로와 개인주택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가로에서의 교류 및 점유 등은 성별과 직업에 따라 차이가 크며, 특히 여성과 가정주부의 비율이 높음.
- 소득수준에서는 6000만원까지는 소득이 높을수록 이웃과의 대화시간이 증가함.
- 거주기간은 대화장소 및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여짐.
- 현재의 가로이용 목적은 이동 및 주차가 높고, 교류 및 점유는 적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그 경향이 강함.
- 향후 가로에서 기대하는 것에서는 남성은 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여성의 경우는 교류 및 점유에 대한 이용기대가 이동 및 주차에 비등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가로에 대한 이용기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아동이 있는 경우는 교류 및 점유에 대한 기대정도가 이동 및 주차보다 오히려 높으나, 전반적으로 가로이용에 있어 이동통로로서의 기본적인 기능과 더불어 주차이용은 지속적으로 높게 기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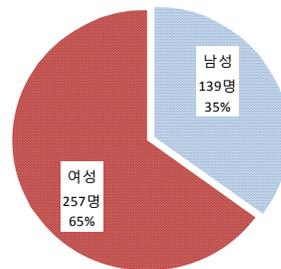
## 2) 2차 설문조사결과

### (1) 응답자 특성

- 2차 설문조사의 유효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35.1%, 여성이 64.9%였음.
- 가족구성을 보면, 1인가구가 15.3%, 부부, 친인척, 동거 등 1세대 동거가구가 27.7%, 2세대 이상 복수세대 가구가 56.9%이었으며, 아동(초등학교 이하)유무를 기준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가 14.6%, 없는 가구가 85.4%를 차지함.
- 50대 이상 장노년층이 응답자의 58.4%를 차지하며, 10년 이상 거주자가 53.9%를 차지함.
- 직업은 가정주부(45.4%)와 회사원(24.8%)이 가장 많으며, 이 둘을 합하면 유효응답의 70.2%를 차지함.
- 가구소득은 2000만원 이하가 40.7%이며, 전체 응답자의 74.5%가 4000만원 이하임.

#### ①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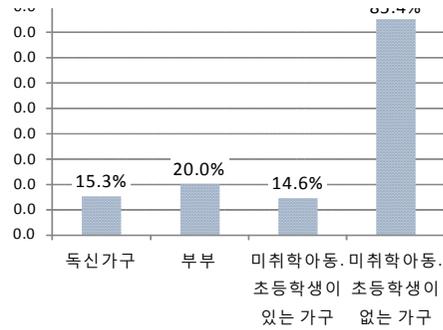
성별	응답자 수(명)	비율(%)
남성	139	35.1
여성	257	64.9
계	396	100



〈그림 Ⅲ-20〉 성별 구성(2차 설문)

## ② 가족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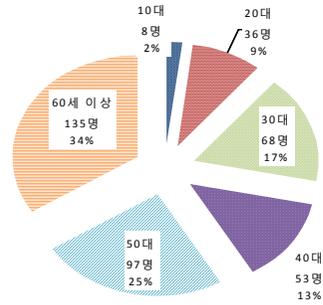
가족구성	응답자수(명)	비율(%)
독신가구	62	15.3
부부	81	20.0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	59	14.6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없는 가구	345	85.4
계 (중복된 숫자 제외)	404	



〈그림 III-21〉 가족구성(2차 설문)

## ③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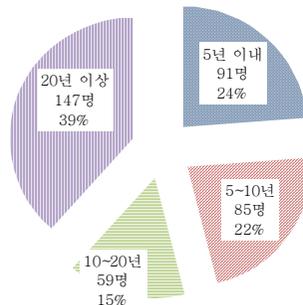
	응답자수(명)	비율(%)
10대	8	2.0
20대	36	9.1
30대	68	17.1
40대	53	13.4
50대	97	24.4
60세 이상	135	34.0
계	397	100.0



〈그림 III-22〉 연령 구성(2차 설문)

## ④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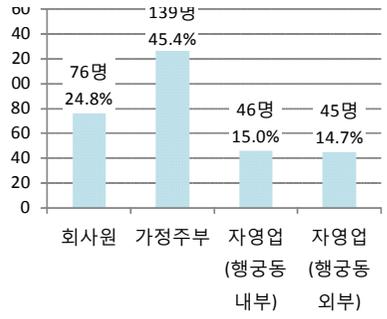
	응답자수(명)	비율(%)
5년 이내	91	23.8
5-10년	85	22.3
10-20년	59	15.4
20년 이상	147	38.5
계	382	100.0



〈그림 III-23〉 거주기간(2차 설문)

⑤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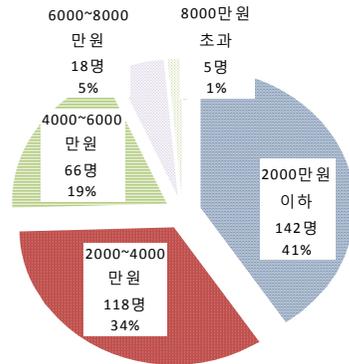
	응답자 수(명)	비율(%)
회사원	76	24.8
가정주부	139	45.4
자영업(행궁동 내)	46	15.0
자영업(행궁동 외)	45	14.7
계	306	100.0



〈그림 III-24〉 직업 구성(2차 설문)

⑥ 가구소득

	응답자 수(명)	비율(%)
2000만원 이하	142	40.7
2000~4000만원	118	33.8
4000~6000만원	66	18.9
6000~8000만원	18	5.2
8000만원 초과	5	1.4
계	3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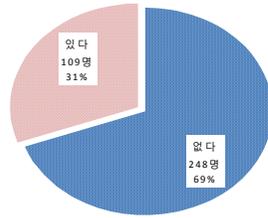
〈그림 III-25〉 가구소득 구성(2차 설문)

(2) 근린교류

① 행궁동 일대를 활동범위로 하는 주민모임 참여 여부

- 행궁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0.5%를 차지하고 있음.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109	30.5
없다	248	69.5
계	357	100



〈그림 III-26〉 참여모임 비율(2차 설문)

- 응답자 특성에 따른 모임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의 참여가 31%로, 여성(29.8%)보다 다소 높지만 큰 차이는 없음.
- 가구구성 세대 수는 큰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으나, 다만, 아동이 없는 가구의 모임 참여비율이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음.
-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 주민모임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아, 연령과 거주기간은 지역 주민모임에 대한 참여와 뚜렷한 상관성을 보임.
- 직업면에서는 지역내 자영업 영위자의 59%가 참여 모임이 있다고 답해, 가장 높은 모임참여집단으로 나타났고, 회사원은 가장 낮은 참여비율을 보이고 있음.
- 지역 내 주민모임에 참여한다고 답한 이는 4000만원 미만이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모임 참여정도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모임참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직업에 있어서는 자영업(내부)의 참여가 높고, 회사원이 가장 낮음. 다만, 아동에 의한 추가적 교류기회 등을 고려할 때, 아동이 지역 모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거주기간과 연령에 의한 영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유추됨. 이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통해 확인함.

〈표 III-15〉 참여모임(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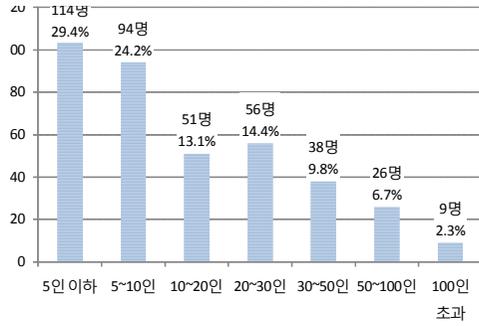
구분		계		있다		없다		
		개체수	%	빈도	%	빈도	%	
전체		357	100	109	30.5	248	69.5	
성별	남성	126	35.3	39	31.0	87	69.0	
	여성	228	63.9	68	29.8	160	70.2	
가족 구성	독신가구	56	15.7	12	21.4	44	78.6	
	부부 등 1세대	98	27.5	37	37.8	61	62.2	
	2세대 이상 가구	203	56.9	60	29.6	143	70.4	
	미취학아 동.초등학 생	있음	56	15.7	9	16.1	47	83.9
		없음	301	84.3	100	33.2	201	66.8
연령	19세 이하	7	2.0	1	14.3	6	85.7	
	20~29세	34	9.5	3	8.8	31	91.2	
	30~39세	64	17.9	7	10.9	57	89.1	
	40~49세	48	13.4	16	33.3	32	66.7	
	50세 이상	201	56.3	80	39.8	121	60.2	
거주 기간	5년 이내	82	23.0	11	13.4	71	86.6	
	5~10년	73	20.4	17	23.3	56	76.7	
	10~20년	54	15.1	22	40.7	32	59.3	
	20년 이상	134	37.5	55	41.0	79	59.0	
직업	회사원	72	20.2	10	13.9	62	86.1	
	가정주부	122	34.2	35	28.7	87	71.3	
	자영업(내부)	39	10.9	23	59.0	16	41.0	
	자영업(외부)	42	11.8	12	28.6	30	71.4	
연 가구 소득	2000만원 이하	124	34.7	43	34.7	81	65.3	
	2000~4000만원	102	28.6	37	36.3	65	63.7	
	4000~6000만원	64	17.9	14	21.9	50	78.1	
	6000~8000만원	18	5.0	3	16.7	15	83.3	
	8000만원 초과	5	1.4	0	0.0	5	10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357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 응답이 있기 때문임

## ② 인지하는 동네사람 숫자

- 동네사람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5인 이하가 29.4%이고 10인 이하를 포함하는 경우 전체의 53.6%임.

	응답자 수(명)	비율(%)
5인 이하	114	29.4
5-10인	94	24.2
10-20인	51	13.1
20-30인	56	14.4
30-50인	38	9.8
50-100인	26	6.7
100인 초과	9	2.3
계	388	100



〈그림 III-27〉 인지하는 사람 숫자(2차 설문)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인지하는 사람 숫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음. 다만 여성이 남성보다 인지하는 숫자가 조금 더 많음.
- 가구구성의 경우, 세대수가 적을수록 즉, 독신가구의 경우 가장 인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아동이 있는 가구는 없는 가구에 비해 인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음.
- 연령과 거주기간은 인지하는 사람의 숫자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 연령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인지하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의 경우 자영업(내부)과 가정주부가 높은 인지숫자를 나타냄. 반면 회사원은 가장 낮음. 전자의 경우 동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업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가구소득은 6000~8000만원 수준이 가장 높은 인지 경향을 보임.
- 인지하는 동네사람의 수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업에 있어서는 자영업(내부)의 인지 숫자가 높고, 회사원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임.

〈표 III-16〉 인지하는 사람의 숫자(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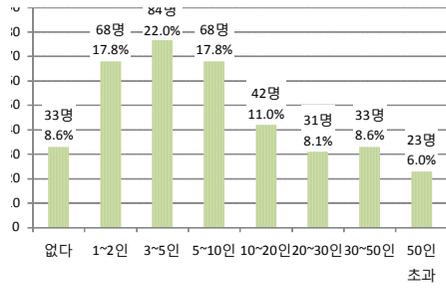
구분	계		5인 이하		5~10인		10~20인		20~30인		30~50인		50~100인		100인 초과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88	100	114	29.4	94	24.2	51	13.1	56	14.4	38	9.8	26	6.7	9	2.3		
성별	남성	134	34.5	40	29.9	38	28.4	14	10.4	19	14.2	19	14.2	2	1.5	2	1.5	
	여성	251	64.7	74	29.5	56	22.3	36	14.3	36	14.3	18	7.2	24	9.6	7	2.8	
가족구성	독신가구	62	16.0	23	37.1	13	21.0	7	11.3	5	8.1	5	8.1	6	9.7	3	4.8	
	부부 등 1세대	103	26.5	31	30.1	27	26.2	5	4.9	15	14.6	17	16.5	7	6.8	1	1.0	
	2세대 이상 가구	223	57.5	60	26.9	54	24.2	39	17.5	36	16.1	16	7.2	13	5.8	5	2.2	
	아동(초등학생 이하)	있음	59	15.2	17	28.8	14	23.7	9	15.3	13	22.0	3	5.1	2	3.4	1	1.7
	없음	329	84.8	97	29.5	80	24.3	42	12.8	43	13.1	35	10.6	24	7.3	8	2.4	
연령	19세 이하	8	2.1	4	50.0	3	37.5	1	12.5	0	0.0	0	0.0	0	0.0	0	0.0	
	20~29세	36	9.3	17	47.2	13	36.1	4	11.1	2	5.6	0	0.0	0	0.0	0	0.0	
	30~39세	65	16.8	24	36.9	20	30.8	6	9.2	10	15.4	3	4.6	1	1.5	1	1.5	
	40~49세	53	13.7	10	18.9	14	26.4	9	17.0	10	18.9	8	15.1	2	3.8	0	0.0	
	50세 이상	224	57.7	58	25.9	44	19.6	30	13.4	34	15.2	27	12.1	23	10.3	8	3.6	
거주기간	5년 이내	90	23.2	37	41.1	28	31.1	10	11.1	11	12.2	1	1.1	3	3.3	0	0.0	
	5~10년	83	21.4	28	33.7	25	30.1	9	10.8	13	15.7	6	7.2	2	2.4	0	0.0	
	10~20년	58	14.9	11	19.0	10	17.2	16	27.6	10	17.2	6	10.3	4	6.9	1	1.7	
	20년 이상	143	36.9	30	21.0	27	18.9	15	10.5	22	15.4	24	16.8	17	11.9	8	5.6	
직업	회사원	74	19.1	35	47.3	25	33.8	6	8.1	5	6.8	3	4.1	0	0.0	0	0.0	
	가정주부	136	35.1	38	27.9	29	21.3	20	14.7	25	18.4	6	4.4	12	8.8	6	4.4	
	자영업(내)	46	11.9	6	13.0	4	8.7	7	15.2	7	15.2	15	32.6	6	13.0	1	2.2	
	자영업(외)	45	11.6	8	17.8	14	31.1	4	8.9	13	28.9	3	6.7	2	4.4	1	2.2	
연가구소득(만원)	2000 이하	138	35.6	53	38.4	33	23.9	18	13.0	11	8.0	12	8.7	7	5.1	4	2.9	
	2000~4000	113	29.1	33	29.2	26	23.0	15	13.3	18	15.9	15	13.3	6	5.3	0	0.0	
	4000~6000	65	16.8	12	18.5	15	23.1	10	15.4	13	20.0	6	9.2	7	10.8	2	3.1	
	6000~8000	18	4.6	3	16.7	4	22.2	2	11.1	5	27.8	1	5.6	2	11.1	1	5.6	
	8000 초과	5	1.3	0	0.0	1	20.0	0	0.0	3	60.0	0	0.0	0	0.0	1	2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388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 ③ 일상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숫자

- 일상적으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숫자는 3~5인이 22%로 가장 많으며, 5~10인, 1~2인이 17.8%, 10~20인이 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응답자 수(명)	비율(%)
없다	33	8.6
1~2인	68	17.8
3~5인	84	22.0
5~10인	68	17.8
10~20인	42	11.0
20~30인	31	8.1
30~50인	33	8.6
50인 초과	23	6.0
계	382	100



〈그림 III-28〉 인사하는 사람 숫자(2차 설문)

- 응답자 특성에 따라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숫자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음. 여성은 3~5인이 23.8%로 가장 많고, 남성은 5~10인이 2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전체적으로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음.
- 가구구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세대 수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반면, 아동의 유무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있음. 아동이 없는 가구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비해 인사를 나누는 사람이 두 배 이상 더 많음.
-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연령과 거주기간은 인사하는 사람 숫자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
- 자영업(내부)과 가정주부는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숫자가 가장 많음. 특히 자영업(내부)은 30~50인이라고 답한 사람이 24.4%로 가장 많음. 반면 회사원은 38%가 1~2명이라고 답함.
- 연 가구소득은 인사하는 사람 숫자와 큰 상관성이 없음.
- 인사를 하는 사람수에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방문교류 대상 주민이 많은 경향을 보이며, 직업면에서는 자영업(내부)과 가정주부의 인지수가 높고, 회사원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임.

〈표 III-17〉 인사하는 사람의 숫자(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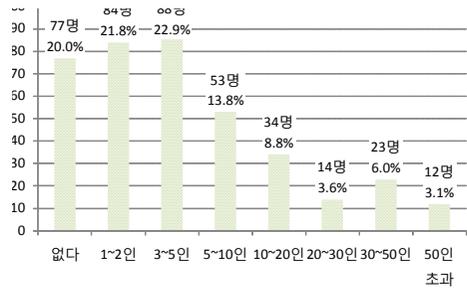
구분	계		없다		1~2인		3~5인		5~10인		10~20인		20~30인		30~50인		50인 초과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82	100	33	8.6	68	17.8	84	22.0	68	17.8	42	11.0	31	8.1	33	8.6	23	6.0	
성별	남성	131	34.3	16	12.2	19	14.5	25	19.1	33	25.2	11	8.4	9	6.9	14	10.7	4	3.1
	여성	248	64.9	17	6.9	49	19.8	59	23.8	34	13.7	29	11.7	22	8.9	19	7.7	19	7.7
가족구성	독신가구	61	16.0	4	6.6	15	24.6	16	26.2	5	8.2	5	8.2	6	9.8	3	4.9	7	11.5
	부부 등 1세대	104	27.2	14	13.5	12	11.5	15	14.4	18	17.3	13	12.5	10	9.6	16	15.4	6	5.8
	2세대 이상 가구	217	56.8	15	6.9	41	18.9	53	24.4	45	20.7	24	11.1	15	6.9	14	6.5	10	4.6
	아동 (초 등학 생 이하)	있음	55	14.4	1	1.8	17	30.9	21	38.2	7	12.7	5	9.1	1	1.8	3	5.5	0
	없음	327	85.6	32	9.8	51	15.6	63	19.3	61	18.7	37	11.3	30	9.2	30	9.2	23	7.0
연령	19세 이하	8	2.1	3	37.5	2	25.0	3	37.5	0	0.0	0	0.0	0	0.0	0	0.0	0	0.0
	20~29세	36	9.4	5	13.9	18	50.0	9	25.0	4	11.1	0	0.0	0	0.0	0	0.0	0	0.0
	30~39세	64	16.8	9	14.1	19	29.7	21	32.8	8	12.5	3	4.7	1	1.6	2	3.1	1	1.6
	40~49세	52	13.6	2	3.8	8	15.4	15	28.8	11	21.2	6	11.5	5	9.6	5	9.6	0	0.0
	50세 이상	211	55.2	14	6.6	21	10.0	36	17.1	44	20.9	23	10.9	25	11.8	26	12.3	22	10.4
거주기간	5년 이내	89	23.3	14	15.7	28	31.5	24	27.0	10	11.2	6	6.7	4	4.5	2	2.2	1	1.1
	5~10년	83	21.7	6	7.2	20	24.1	25	30.1	16	19.3	6	7.2	5	6.0	4	4.8	1	1.2
	10~20년	58	15.2	2	3.4	8	13.8	15	25.9	11	19.0	10	17.2	3	5.2	7	12.1	2	3.4
	20년 이상	142	37.2	8	5.6	11	7.7	19	13.4	27	19.0	20	14.1	19	13.4	20	14.1	18	12.7
직업	회사원	71	18.6	11	15.5	27	38.0	18	25.4	6	8.5	3	4.2	2	2.8	3	4.2	1	1.4
	가정주부	135	35.3	5	3.7	23	17.0	30	22.2	24	17.8	20	14.8	16	11.9	7	5.2	10	7.4
	자영업(내)	45	11.8	1	2.2	3	6.7	4	8.9	9	20.0	8	17.8	5	11.1	11	24.4	4	8.9
	자영업(외)	45	11.8	4	8.9	6	13.3	12	26.7	15	33.3	3	6.7	3	6.7	1	2.2	1	2.2
연가 구소득 (만원)	2000 이하	135	35.3	18	13.3	23	17.0	32	23.7	21	15.6	12	8.9	9	6.7	13	9.6	7	5.2
	2000~4000	113	29.6	8	7.1	21	18.6	20	17.7	23	20.4	17	15.0	9	8.0	10	8.8	5	4.4
	4000~6000	65	17.0	3	4.6	12	18.5	18	27.7	10	15.4	8	12.3	5	7.7	5	7.7	4	6.2
	6000~8000	18	4.7	0	0.0	5	27.8	6	33.3	4	22.2	1	5.6	0	0.0	1	5.6	1	5.6
	8000 초과	5	1.3	0	0.0	0	0.0	0	0.0	4	0.0	0	0.0	0	0.0	0	0.0	1	2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382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 ④ 자택방문교류를 한 사람의 숫자

- 방문교류를 한 사람의 숫자는 인사를 나누는 사람의 숫자에 비해 더 적게 나타남. 3~5인이 22.9%, 1~2인이 21.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없다고 답한 사람도 20%를 차지함.

	응답자 수(명)	비율(%)
없다	77	20.0
1~2인	84	21.8
3~5인	88	22.9
5~10인	53	13.8
10~20인	34	8.8
20~30인	14	3.6
30~50인	23	6.0
50인 초과	12	3.1
계	385	100



〈그림 III-29〉 자택교류 숫자(2차 설문)

- 방문교류를 한 사람의 숫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음. 여성의 경우 1~2인이 24.2%로 가장 많고, 남성은 3~5인이 24.1%로 가장 많지만 전체적인 차이는 거의 없음.
- 세대수와 방문교류 숫자의 상관성은 발견하기 어려우나, 아동의 유무는 조금 차이를 보임. 아동이 없는 가구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비해 두 배 이상 방문교류의 숫자가 많음.
- 연령과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방문교류 숫자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인지하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의 숫자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 바 있음.
- 직업군 역시 자영업(내부)이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 다음은 가정주부이며, 회사원은 자택교류가 가장 저조한 직업군에 속함.

- 연 가구소득은 방문교류와 숫자와 상관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 방문교류 거주민 수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대상 주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직업에 있어서는 자영업(내부)의 참여가 높고, 회사원이 가장 낮음.

〈표 III-18〉 자택방문교류 숫자(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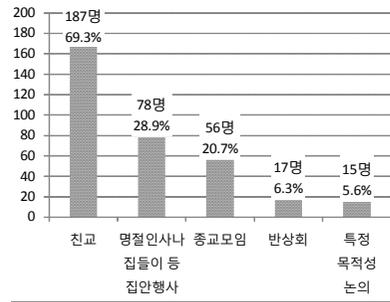
구분	계		없다		1~2인		3~5인		5~10인		10~20인		20~30인		30~50인		50인 초과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85	100	77	20.0	84	21.8	88	22.9	53	13.8	34	8.8	14	3.6	23	6.0	12	3.1	
성별	남성	133	34.5	29	21.8	24	18.0	32	24.1	19	14.3	11	8.3	6	4.5	10	7.5	2	1.5
	여성	248	64.4	48	19.4	60	24.2	55	22.2	33	13.3	23	9.3	7	2.8	13	5.2	9	3.6
가족구성	독신가구	60	15.6	11	18.3	12	20.0	17	28.3	8	13.3	5	8.3	3	5.0	1	1.7	3	5.0
	부부 등 1세대	102	26.5	21	20.6	17	16.7	21	20.6	16	15.7	8	7.8	3	2.9	12	11.8	4	3.9
	2세대 이상 가구	223	57.9	45	20.2	55	24.7	50	22.4	29	13.0	21	9.4	8	3.6	10	4.5	5	2.2
	아동(초등학생 이하)	있음	58	15.1	15	25.9	24	41.4	13	22.4	2	3.4	1	1.7	0	0.0	3	5.2	0
	없음	327	84.9	62	19.0	60	18.3	75	22.9	51	15.6	33	10.1	14	4.3	20	6.1	12	3.7
연령	19세 이하	8	2.1	3	37.5	1	12.5	3	37.5	1	12.5	0	0.0	0	0.0	0	0.0	0	0.0
	20~29세	36	9.4	17	47.2	13	36.1	3	8.3	2	5.6	1	2.8	0	0.0	0	0.0	0	0.0
	30~39세	63	16.4	22	34.9	22	34.9	13	20.6	2	3.2	1	1.6	0	0.0	3	4.8	0	0.0
	40~49세	53	13.8	10	18.9	10	18.9	20	37.7	6	11.3	3	5.7	0	0.0	4	7.5	0	0.0
	50세 이상	222	57.7	24	22.7	38	34.6	49	45.0	41	35.8	29	26.2	14	12.4	16	13.5	11	10.0
거주기간	5년 이내	90	23.4	40	44.4	23	25.6	18	20.0	4	4.4	2	2.2	1	1.1	1	1.1	1	1.1
	5~10년	81	21.0	12	14.8	23	28.4	23	28.4	15	18.5	5	6.2	1	1.2	2	2.5	0	0.0
	10~20년	58	15.1	9	15.5	10	17.2	16	27.6	6	10.3	10	17.2	1	1.7	5	8.6	1	1.7
	20년 이상	141	36.6	10	7.1	25	17.7	28	19.9	27	19.1	17	12.1	11	7.8	15	10.6	8	5.7
직업	회사원	74	19.2	28	37.8	24	32.4	13	17.6	3	4.1	3	4.1	1	1.4	2	2.7	0	0.0
	가정주부	135	35.1	14	10.4	33	24.4	41	30.4	21	15.6	12	8.9	4	3.0	7	5.2	3	2.2
	자영업(내)	45	11.7	3	6.7	3	6.7	11	24.4	6	13.3	9	20.0	3	6.7	7	15.6	3	6.7
	자영업(외)	44	11.4	15	34.1	5	11.4	10	22.7	8	18.2	4	9.1	1	2.3	0	0.0	1	2.3
연가구소득(만원)	2000 이하	137	35.6	30	21.9	28	20.4	33	24.1	15	10.9	12	8.8	4	2.9	12	8.8	3	2.2
	2000~4000	114	29.6	18	15.8	22	19.3	26	22.8	25	21.9	11	9.6	4	3.5	6	5.3	2	1.8
	4000~6000	65	16.9	17	26.2	17	26.2	13	20.0	3	4.6	4	6.2	3	4.6	3	4.6	5	7.7
	6000~8000	18	4.7	6	33.3	6	33.3	3	16.7	2	11.1	1	5.6	0	0.0	0	0.0	0	0.0
	8000 초과	5	1.3	0	-	2	40.0	1	20.0	0	0.0	1	20.0	0	0.0	0	0.0	1	2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385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⑤ 자택방문교류의 목적(복수응답)

- 자택방문교류의 목적은 친교가 6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안행사(28.9%), 종교모임(20.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응답자 수(명)	비율(%)
친교	187	69.3
집안행사	78	28.9
종교모임	56	20.7
반사회	17	6.3
특정 목적성 논의	15	5.6
계(중복된 숫자 제외)	270	



〈그림 III-30〉 자택방문교류의 목적(2차 설문)

- 응답자 특성에 따라 자택방문교류 목적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큰 차이는 없음. 다만 응답자 수가 적긴 하지만 특정 목적성 논의 목적의 교류에 있어 여성이 남성보다 3배 이상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세대 수, 아동의 유무 등 가구 특성에 따른 방문교류 목적의 차이는 크지 않음. 다만 세대 수가 많을수록 집안행사 목적의 교류가 많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의 반사회 참여비율이 적은 것이 특징임.
- 연령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대체로 친교, 반사회 목적의 방문교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음.
- 거주기간의 경우, 거주기간이 길수록 대체로 친교, 집안행사 목적의 교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며, 특정목적성 논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직업의 경우, 회사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친교, 종교모임의 교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며, 집안행사, 특정목적성 논의 목적의 교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연 가구소득수준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에 속한 응답자가 대체로 반상회, 특정 목적성 논의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방문교류의 목적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대체로 연령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방문교류의 목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표 III-19〉 방문교류 목적(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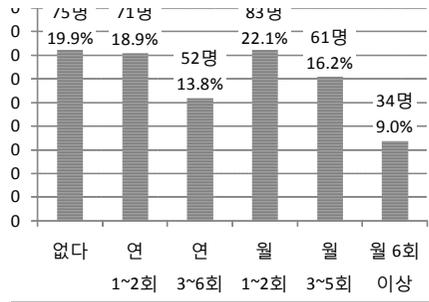
구분		계		친교		집안행사		종교모임		반상회		특정목적성 논의		
		개체	%	빈도	%									
전체		270	100	187	69.3	78	28.9	56	20.7	17	6.3	15	5.6	
성별	남성	90	33.3	57	63.3	25	27.8	21	23.3	6	6.7	2	2.2	
	여성	176	65.2	127	72.2	52	29.5	35	19.9	11	6.3	12	6.8	
가족 구성	독신가구	33	12.2	25	75.8	8	24.2	4	12.1	2	6.1	1	3.0	
	부부 등 1세대	76	28.1	48	63.2	22	28.9	16	21.1	5	6.6	6	7.9	
	2세대 이상 가구	161	59.6	114	70.8	48	29.8	36	22.4	10	6.2	8	5.0	
	미취학아동.초 등학생	있음	42	15.6	30	71.4	12	28.6	11	26.2	1	2.4	2	4.8
		없음	228	84.4	157	68.9	66	28.9	45	19.7	16	7.0	13	5.7
연령	19세 이하	4	1.5	1	25.0	3	75.0	1	25.0	0	0.0	0	0.0	
	20~29세	19	7.0	12	63.2	5	26.3	4	21.1	0	0.0	2	10.5	
	30~39세	39	14.4	26	66.7	11	28.2	5	12.8	1	2.6	4	10.3	
	40~49세	40	14.8	30	75.0	8	20.0	11	27.5	1	2.5	5	12.5	
	50세 이상	166	61.5	117	70.5	50	30.1	35	21.1	15	9.0	3	1.8	
거주 기간	5년 이내	51	18.9	35	68.6	13	25.5	6	11.8	1	2.0	7	13.7	
	5~10년	56	20.7	37	66.1	16	28.6	15	26.8	2	3.6	3	5.4	
	10~20년	45	16.7	30	66.7	11	24.4	10	22.2	6	13.3	2	4.4	
	20년 이상	108	40.0	77	71.3	35	32.4	24	22.2	8	7.4	2	1.9	
직업	회사원	48	17.8	27	56.3	19	39.6	7	14.6	1	2.1	6	12.5	
	가정주부	105	38.9	81	77.1	34	32.4	27	25.7	4	3.8	2	1.9	
	자영업(내부)	36	13.3	26	72.2	7	19.4	7	19.4	2	5.6	2	5.6	
	자영업(외부)	28	10.4	20	71.4	9	32.1	6	21.4	3	10.7	0	0.0	
연 가구 소득	2000만원 이하	88	32.6	56	63.6	22	25.0	15	17.0	9	10.2	6	6.8	
	2000~4000만원	83	30.7	54	65.1	27	32.5	19	22.9	5	6.0	6	7.2	
	4000~6000만원	46	17.0	37	80.4	13	28.3	12	26.1	3	6.5	2	4.3	
	6000~8000만원	12	4.4	8	66.7	5	41.7	2	16.7	0	0.0	0	0.0	
	8000만원 초과	2	0.7	2	100	0	0.0	0	0.0	0	0.0	0	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270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⑥ 행궁동 내 주민간 20분이상 교류 빈도

- 행궁동 내 주민간 ‘20분 이상 교류’ 빈도는 월 1~2회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2.1%로 가장 많으나,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도 19.9%를 차지함.

	응답자 수(명)	비율(%)
없다	75	19.9
연1~2회	71	18.9
연3~6회	52	13.8
월1~2회	83	22.1
월3~5회	61	16.2
월6회 이상	34	9.0
계	376	100



〈그림 III-31〉 교류빈도(2차 설문)

- 응답자 특성에 따른 교류빈도를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전체적인 교류빈도는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여성은 빈도분포가 상대적으로 고른 반면, 남성은 불균등한 양상을 보임. 남성의 경우 월 3~5회 응답자의 비율이 20.2%로 여성보다 많지만, 없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도 25.6%로 여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가구특성의 경우, 대체로 세대 수가 적을수록 전체적인 교류빈도는 증가하지만, 교류분포는 더 불균등하게 되는 경향을 보임. 아동의 유무는 아동이 없는 경우 전체적인 교류빈도가 조금 더 많지만, 큰 차이는 없음.
- 연령과 거주기간은 대체로 교류빈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50세 이상 응답자의 24%가 월 6회 이상 교류한다고 응답한 반면, 20~20세 응답자는 8.3%만이 그렇다고 응답함. 또한 20년 이상 거주자의 약 60%가 월 1회 이상 교류한다고 응답한 반면, 5년 이내 거주자는 37.5%만이 그렇다고 응답.
- 교류빈도는 직업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 가장 교류빈도가 높은 직업군은 자영업(내부)으로 응답자의 64%가 월 1회 이상 교류한다고 응답함.

반면 교류빈도가 가장 낮은 회사원은 31.5%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연 가구소득과 교류빈도 간의 상관관계는 잘 드러나지 않으며, 2000~4000만원의 가구소득에 속한 응답자가 가장 활발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분 이상 교류빈도 역시 다른 교류평가 기준과 마찬가지로 연령과 거주 기간, 직업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I-20〉 교류 빈도(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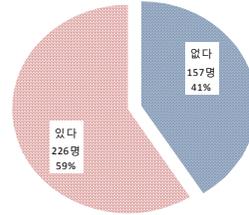
구분	계		없다		연1~2회		연3~6회		월1~2회		월3~5회		월6회 이상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76	100	75	19.9	71	18.9	52	13.8	83	22.1	61	16.2	34	9.0	
성별	남성	129	34.3	33	25.6	19	14.7	12	9.3	26	20.2	26	20.2	13	10.1
	여성	243	64.6	41	16.9	51	21.0	39	16.0	56	23.0	35	14.4	21	8.6
가족 구성	독신가구	58	15.4	13	22.4	13	22.4	4	6.9	11	19.0	8	13.8	9	15.5
	부부 등 1세대	100	26.6	18	18.0	17	17.0	14	14.0	19	19.0	23	23.0	9	9.0
	2세대 이상 가구	218	58.0	44	20.2	41	18.8	34	15.6	53	24.3	30	13.8	16	7.3
	미취학아동, 초등학교생	있음	58	15.4	8	13.8	17	29.3	8	13.8	12	20.7	7	12.1	6
	없음	318	84.6	67	21.1	54	17.0	44	13.8	71	22.3	54	17.0	28	8.8
연령	19세 이하	8	2.1	5	62.5	1	12.5	1	12.5	1	12.5	0	0.0	0	0.0
	20~29세	36	9.6	8	22.2	6	16.7	3	8.3	14	38.9	2	5.6	3	8.3
	30~39세	63	16.8	17	27.0	15	23.8	8	12.7	8	12.7	11	17.5	4	6.3
	40~49세	53	14.1	6	11.3	12	22.6	9	17.0	14	26.4	9	17.0	3	5.7
	50세 이상	213	56.6	38	17.8	37	17.4	30	14.1	45	21.1	39	18.3	24	11.3
거주 기간	5년 이내	88	23.4	28	31.8	19	21.6	8	9.1	17	19.3	10	11.4	6	6.8
	5~10년	80	21.3	13	16.3	25	31.3	12	15.0	18	22.5	10	12.5	2	2.5
	10~20년	55	14.6	4	7.3	7	12.7	17	30.9	14	25.5	9	16.4	4	7.3
	20년 이상	138	36.7	23	16.7	19	13.8	13	9.4	33	23.9	29	21.0	21	15.2
직업	회사원	73	19.4	25	34.2	15	20.5	10	13.7	15	20.5	6	8.2	2	2.7
	가정주부	131	34.8	14	10.7	32	24.4	18	13.7	38	29.0	16	12.2	13	9.9
	자영업(내부)	45	12.0	5	11.1	6	13.3	5	11.1	6	13.3	16	35.6	7	15.6
	자영업(외부)	43	11.4	9	20.9	6	14.0	8	18.6	12	27.9	6	14.0	2	4.7
연 가구 소득	2000만원 이하	132	35.1	32	24.2	31	23.5	15	11.4	20	15.2	23	17.4	11	8.3
	2000~4000만원	113	30.1	18	15.9	17	15.0	19	16.8	29	25.7	21	18.6	9	8.0
	4000~6000만원	64	17.0	13	20.3	13	20.3	11	17.2	10	15.6	11	17.2	6	9.4
	6000~8000만원	18	4.8	1	5.6	4	22.2	2	11.1	8	44.4	3	16.7	0	0.0
	8000만원 초과	5	1.3	0	0.0	0	0.0	0	0.0	3	60.0	0	0.0	2	4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376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⑦ 생태교통 페스티벌 이후 거주민 간 교류에 있어 변화여부

- 생태교통 페스티벌 이후 주민 간 교류에 있어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60%를 차지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226	59.0
없다	157	41.0
계	383	100



〈그림 III-32〉 근린교류 변화 여부(2차 설문)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62%)은 남성(51.5%)보다 근린교류의 변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음.
-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2세대 이상 가구에서 변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보다 변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다소 높음.
- 연령과 변화가 있다고 답한 비율과의 뚜렷한 상관성은 없음. 변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49세(71.2%)이며, 50세 이상(60.4%), 20~29세(58.3%), 30~39세(4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 역시 뚜렷한 상관성은 없으나, 10년 이상 거주자(62%)가 10년 이하 거주자(56%)보다 근린교류의 변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다소 높음.
- 직업별 차이를 보면, 가정주부 직업군에서 변화가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63.9%). 다음은 자영업(내부)(61.4%)으로 동네에서 교류가 활발한 직업군에 속한 응답자들에게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응답자 수가 적은 8000만원 초과가구를 제외하면 연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변화가 있다고 답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생태교통 페스티벌 이후 근린교류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있다고 인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활발한 근린교류를 하는 직업(가정주부, 자영업(내부))군에서 그 인식정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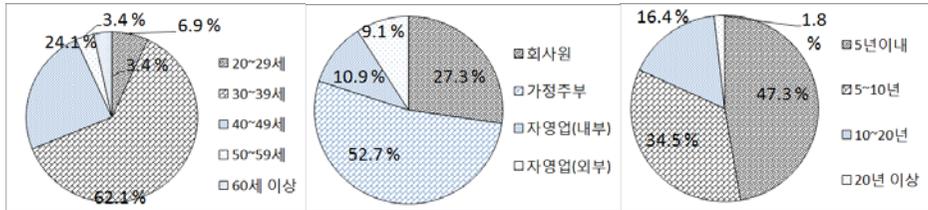
〈표 III-21〉 근린교류 변화(2차)

구분		계		있다		없다	
		개체수	%	빈도	%	빈도	%
전체		383	100	226	59.0	157	41.0
성별	남성	132	34.5	68	51.5	64	48.5
	여성	245	64.0	152	62.0	93	38.0
가족구성	독신가구	61	15.9	34	55.7	27	44.3
	부부 등 1세대	99	25.8	50	50.5	49	49.5
	2세대 이상 가구	223	58.2	142	63.7	81	36.3
	미취학아동.초 등학생	있음	59	15.4	36	61.0	23
	없음	324	84.6	190	58.6	134	41.4
연령	19세 이하	8	2.1	2	25.0	6	75.0
	20~29세	36	9.4	21	58.3	15	41.7
	30~39세	65	17.0	31	47.7	34	52.3
	40~49세	52	13.6	37	71.2	15	28.8
	50세 이상	217	56.7	131	60.4	86	39.6
거주기간	5년 이내	89	23.2	54	60.7	35	39.3
	5~10년	81	21.1	42	51.9	39	48.1
	10~20년	55	14.4	38	69.1	17	30.9
	20년 이상	142	37.1	84	59.2	58	40.8
직업	회사원	75	19.6	39	52.0	36	48.0
	가정주부	133	34.7	85	63.9	48	36.1
	자영업(내부)	44	11.5	27	61.4	17	38.6
	자영업(외부)	44	11.5	25	56.8	19	43.2
연 가구소득	2000만원 이하	136	35.5	69	50.7	67	49.3
	2000~4000만원	113	29.5	70	61.9	43	38.1
	4000~6000만원	65	17.0	40	61.5	25	38.5
	6000~8000만원	18	4.7	14	77.8	4	22.2
	8000만원 초과	5	1.3	2	40.0	3	6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383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⑧ 2차 설문 응답자 근린교류 특성 종합

- 전반적 지역민의 근린교류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근린교류가 다양하고 강한 것으로 나타나며, 직업면에서는 지역내부 자영업의 참여가 높고, 회사원이 가장 낮음.
- 방문교류의 목적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대체로 연령이 높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방문교류의 목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 생태교통 페스티벌 이후 근린교류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있다고 인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활발한 근린교류를 하는 직업(가정주부, 자영업(내부))군에서 그 인식정도가 높음.
- 근린교류의 특징 중 일반적으로 근린교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아동이 있는 가구가 오히려 낮은 교류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이 있는 대상가구의 응답자가 젊고, 회사원이며, 거주기간이 짧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III-33〉 아동이 있는 가구 특성(연령/ 직업/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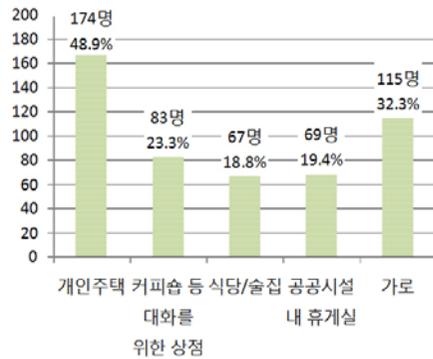
따라서, 해당 지역의 근린교류에는 아동보다는 직업과 거주기간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1차 설문에 이어 재확인 할 수 있음.

### (3) 가로이용

#### ① 이웃과의 대화장소(복수응답)

- 이웃과의 대화장소는 개인주택(48.9%), 가로(32.3%), 커피숍 등(23.3%), 공공시설 내 휴게실(19.4%), 식당 및 술집(18.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응답자 수(명)	비율(%)
개인주택	174	48.9
커피숍 등	83	23.3
식당 및 술집	67	18.8
공공시설 내 휴게실	69	19.4
가로	115	32.3
계(중복된 숫자 제외)	356	



〈그림 III-34〉 대화장소(2차 설문)

- 성별에 따른 대화장소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남. 개인주택을 제외하면 남성은 식당 및 술집(35.2%)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식당 및 술집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음. 대화장소로 가로를 선택하는 비율은 남성(32.8%)과 여성(32.3%)이 비슷하게 나타남.
- 가구특성에 따른 대화장소를 보면, 세대수가 많을수록 대화장소로 개인주택을 꼽은 비율이 줄어들고, 가로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와 비슷하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없는 가구에 비해 개인주택을 대화장소로 꼽은 비율이 적으나, 가로를 꼽은 비율은 더 높음.
- 표본수가 적은 19세 이하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대화장소로 개인주택, 식당 및 술집, 가로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이 길수록 대화장소로 개인주택을 꼽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그 외 항목에서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으나, 20년 이상 거주자에게서 가로를 꼽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대화장소의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 근린교류가 활발한 가정주부와 자영업(내부)의 가로 선택 비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음.
- 연 가구소득과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주택과 가로에서 대화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로를 대화장소로 선택하는 비율은 가구 구성 세대수가 많거나, 아동이 있는 가구, 연령이 높고, 거주기간이 긴 주민,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주부와 내부 자영업자, 가구소득이 낮은 주민 등이 높은 경향을 보임.

〈표 III-22〉 대화장소(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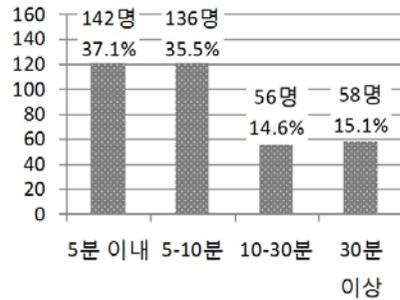
구분	계		개인주택		커피숍 등		식당 및 술집		공공시설 내 휴게실		가로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56	100	174	48.9	83	23.3	67	18.8	69	19.4	115	32.3	
성별	남성	125	35.1	56	44.8	20	16.0	44	35.2	15	12.0	41	32.8
	여성	226	63.5	114	50.4	63	27.9	21	9.3	52	23.0	73	32.3
가족 구성	독신가구	53	14.9	28	22.6	8	5.7	10	22.6	8	17.0	14	15.1
	부부 등 1세대	102	28.7	61	21.6	18	2.9	25	20.6	16	5.9	30	19.6
	2세대 이상 가구	201	56.5	85	17.9	57	6.5	32	23.9	45	6.5	71	24.9
	미취학아동. 있음	57	16.0	16	10.5	19	1.8	10	17.5	21	1.8	17	24.6
	초등학생 없음	299	84.0	158	21.4	64	6.0	57	23.7	48	9.0	98	22.4
연령	19세 이하	5	1.4	1	20.0	1	20.0	0	0.0	1	20.0	2	40.0
	20~29세	33	9.3	5	15.2	11	33.3	4	12.1	8	24.2	6	18.2
	30~39세	61	17.1	20	32.8	19	31.1	12	19.7	12	19.7	12	19.7
	40~49세	48	13.5	22	45.8	25	52.1	10	20.8	15	31.3	15	31.3
	50세 이상	206	57.9	124	79.8	27	18.7	39	26.9	32	22.0	79	52.6
거주 기간	5년 이내	78	21.9	23	29.5	21	26.9	18	23.1	16	20.5	23	29.5
	5~10년	72	20.2	30	41.7	18	25.0	11	15.3	20	27.8	15	20.8
	10~20년	53	14.9	26	49.1	16	30.2	9	17.0	11	20.8	15	28.3
	20년 이상	137	38.5	83	60.6	27	19.7	27	19.7	18	13.1	59	43.1
직업	회사원	68	19.1	31	45.6	15	22.1	15	22.1	12	17.6	15	22.1
	가정주부	128	36.0	79	61.7	24	18.8	11	8.6	28	21.9	48	37.5
	자영업(내부)	43	12.1	17	39.5	16	37.2	15	34.9	8	18.6	16	37.2
	자영업(외부)	40	11.2	8	20.0	7	17.5	12	30.0	9	22.5	12	30.0
연 가구 소득	2000만원 이하	126	35.4	57	45.2	25	19.8	21	16.7	22	17.5	46	36.5
	2000~4000만원	103	28.9	56	54.4	33	32.0	21	20.4	12	11.7	30	29.1
	4000~6000만원	60	16.9	22	36.7	15	25.0	14	23.3	24	40.0	16	26.7
	6000~8000만원	16	4.5	3	18.8	5	31.3	3	18.8	6	37.5	3	18.8
	8000만원 초과	5	1.4	1	20.0	1	20.0	2	40.0	1	20.0	1	2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356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② 이웃과의 대화시간(복수응답)

- 가로에서 이웃과의 대화시간은 5분 이내(37.1%), 5~10분(35.5%)을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응답자 수(명)	비율(%)
5분 이내	142	37.1
5-10분	136	35.5
10-30분	56	14.6
30분 이상	58	15.1
계(중복된 숫자 제외)	383	



〈그림 III-35〉 대화시간(2차 설문)

- 성별에 따른 대화시간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긴 것으로 나타남. 10분 이상 대화한다고 답한 비율이 여성은 31.7%, 남성은 29.8%임.
- 가족구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세대수가 많을수록 가로에서의 대화시간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며, 아동이 없는 가구가 아동이 있는 가구에 비해 대화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가로에서의 대화시간과 연령은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음. 50세 이상 응답자는 19세 이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시간을 가로에서 대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거주기간 역시 대화시간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20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 37.3%가 가로에서 10분 이상 대화한다고 응답한 반면, 5년 이내 거주자는 23.6%만이 그렇다고 응답함.
- 직업의 경우, 동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주부와 자영업자(내부)의 대화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가정주부의 35.5%가 가로에서 10분 이상 대화한다고 답한 반면, 회사원은 13.9%만이 그렇다고 응답함.

- 표본 수가 적은 8000만원 초과 가구를 제외하면, 대체로 연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가로에서의 대화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
- 대화시간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조금 긴 경향을 보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보이며, 직업면에서는 가정주부와 지역내 자영업자가 길고 회사원이 짧은 경향을 보임. 가족구성면에서는 독신가구에서 비교적 긴 대화시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표 III-23〉 소요시간(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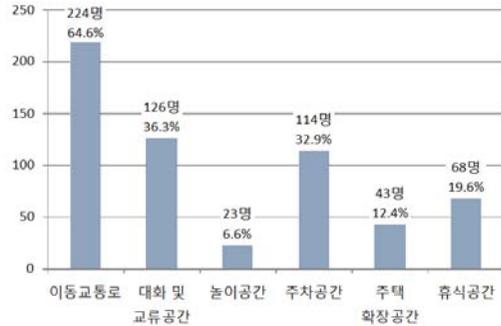
구분		계		5분 이내		5~10분		10~30분		30분 이상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83	100	142	37.1	136	35.5	56	14.6	58	15.1
성별	남성	128	33.4	49	38.3	48	37.5	16	12.5	16	12.5
	여성	249	65.0	91	36.5	87	34.9	39	15.7	40	16.1
가족 구성	독신가구	61	15.9	23	37.7	18	29.5	11	18.0	10	16.4
	부부 등 1세대	99	25.8	35	35.4	36	36.4	14	14.1	15	15.2
	2세대 이상 가구	223	58.2	84	37.7	82	36.8	31	13.9	33	14.8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있음	58	15.1	31	53.4	21	36.2	2	3.4	7
	없음	325	84.9	111	34.2	115	35.4	54	16.6	51	15.7
연령	19세 이하	7	1.8	3	42.9	3	42.9	1	14.3	0	0.0
	20~29세	35	9.1	23	65.7	6	17.1	2	5.7	4	11.4
	30~39세	66	17.2	38	57.6	17	25.8	5	7.6	7	10.6
	40~49세	51	13.3	20	39.2	26	51.0	5	9.8	5	9.8
	50세 이상	220	57.4	58	56.6	83	6.6	42	56.9	40	25.5
거주 기간	5년 이내	89	23.2	49	55.1	22	24.7	11	12.4	10	11.2
	5~10년	81	21.1	35	43.2	35	43.2	6	7.4	9	11.1
	10~20년	57	14.9	16	28.1	23	40.4	9	15.8	10	17.5
	20년 이상	142	37.1	38	26.8	52	36.6	29	20.4	24	16.9
직업	회사원	72	18.8	41	56.9	22	30.6	6	8.3	4	5.6
	가정주부	138	36.0	48	34.8	46	33.3	24	17.4	25	18.1
	자영업(내부)	42	11.0	12	28.6	19	45.2	9	21.4	5	11.9
	자영업(외부)	43	11.2	18	41.9	11	25.6	11	25.6	3	7.0
연 가구 소득	2000만원 이하	137	35.8	50	36.5	52	38.0	18	13.1	21	15.3
	2000~4000만원	114	29.8	36	31.6	45	39.5	21	18.4	15	13.2
	4000~6000만원	63	16.4	31	49.2	18	28.6	3	4.8	12	19.0
	6000~8000만원	18	4.7	9	50.0	4	22.2	2	11.1	3	16.7
	8000만원 초과	5	1.3	3	0.0	0	0.0	1	0.0	1	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383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③ 가로이용목적(복수응답)

- 가로이용목적으로 이동 및 주차를 꼽은 비율은 97.4%, 교류 및 점유를 꼽은 비율은 74.9%로 조사되었음.

	응답 자 수(명)	비율 (%)
이동교통로	224	64.6
대화 및 교류공간	126	36.3
놀이공간	23	6.6
주차공간	114	32.9
빨래널기, 화초재배 등 가사 확장공간	43	12.4
휴식공간	68	19.6
계(중복된 숫자 제외)	347	



〈그림 III-36〉 가로이용목적(2차 설문)

- 생태교통 페스티벌 이전 큰 차이를 보였던 성별에 따른 가로이용 차이는 페스티벌 이후 크게 줄어들었음. 여전히 여성의 교류 및 점유 목적 이용 비율(76.8%)이 남성(70.3%)보다 높긴 하지만 차이는 크지 않음.
- 모든 가족구성 형태에서 교류 및 점유목적의 이용 비율이 생태교통 페스티벌 이후 늘어남. 세대 수 기준으로 보면 부부 등 1세대 가구의 교류 및 점유목적 이용 비율이 가장 높으며(87%), 아동이 없는 가구의 교류 및 점유목적 이용 비율(77.4%)이 아동이 있는 가구(61.8%)에 비해 여전히 높음.
-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교류 및 점유 이용 목적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가장 이용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40~49세(87.8%)이며,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39세(55.2%)임.
-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교류 및 점유 이용 목적 비율은 증가함. 20년 이상 거주자는 91.4%, 5년 이내 거주자는 46.8%임.

- 동네에서 활동시간이 많은 자영업자(내부)와 가정주부의 교류 및 점유 이용 목적 비율이 각각 90.5%, 76.4%로 타 직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표본 수가 적은 8000만원 초과 가구를 제외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교류 및 점유 목적의 가로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가로이용 목적은 전반적으로 이용교통로로서의 기능이 높고, 다음으로 대화 및 교류공간으로서의 이용이 높고, 주차가 그 뒤를 잇고 있음. 특히, 여성과 장기거주자, 근린교류 활동이 활발한 직업(가정주부, 자영업자(내부))군에서 교류 및 점유 목적의 가로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III-24) 가로이용목적(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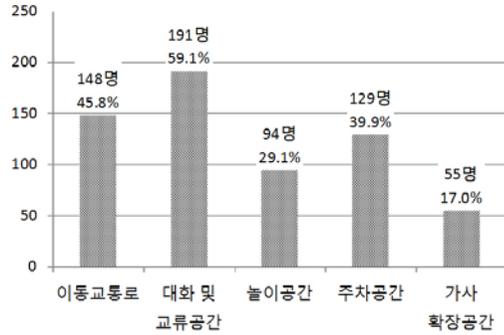
구분	계		이동 교통로		대화 및 교류공간		놀이공간		주차 공간		가사 확장공간		휴식공간		
	개체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47	100	224	64.6	126	36.3	23	6.6	114	32.9	43	12.4	68	19.6	
성별	남성	118	34.0	71	60.2	44	37.3	7	5.9	39	33.1	10	8.5	22	18.6
	여성	224	64.6	151	67.4	80	35.7	16	7.1	74	33.0	31	13.8	45	20.1
가족구성	독신가구	47	13.5	26	55.3	20	42.6	2	4.3	11	23.4	5	10.6	9	19.1
	부부 등 1세대	92	26.5	55	59.8	38	41.3	8	8.7	31	33.7	11	12.0	23	25.0
	2세대 이상 가구	208	59.9	143	68.8	68	32.7	13	6.3	72	34.6	27	13.0	36	17.3
	미취학아동·초등학생	55	15.9	44	80.0	15	27.3	4	7.3	30	54.5	9	16.4	6	10.9
연령	19세 이하	5	1.4	2	40.0	1	20.0	1	20.0	2	40.0	0	0.0	1	20.0
	20~29세	33	9.5	23	69.7	7	21.2	4	12.1	16	48.5	1	3.0	8	24.2
	30~39세	58	16.7	42	72.4	12	20.7	2	3.4	27	46.6	8	13.8	10	17.2
	40~49세	49	14.1	32	65.3	22	44.9	3	6.1	22	44.9	10	20.4	8	16.3
	50세 이상	198	57.1	125	63.1	83	41.9	13	6.6	47	23.7	22	11.1	40	20.2
거주기간	5년 이내	79	22.8	60	75.9	19	24.1	2	2.5	39	49.4	5	6.3	11	13.9
	5~10년	73	21.0	44	60.3	21	28.8	4	5.5	24	32.9	12	16.4	15	20.5
	10~20년	56	16.1	38	67.9	21	37.5	4	7.1	11	19.6	9	16.1	11	19.6
	20년 이상	128	36.9	79	61.7	61	47.7	13	10.2	39	30.5	15	11.7	28	21.9
직업	회사원	68	19.6	42	61.8	18	26.5	7	10.3	33	48.5	7	10.3	13	19.1
	가정주부	127	36.6	84	66.1	51	40.2	8	6.3	40	31.5	14	11.0	24	18.9
	자영업(내부)	42	12.1	30	71.4	17	40.5	2	4.8	12	28.6	8	19.0	11	26.2
	자영업(외부)	42	12.1	27	64.3	11	26.2	1	2.4	17	40.5	2	4.8	7	16.7
연가소득	2000만원 이하	117	33.7	67	57.3	48	41.0	9	7.7	25	21.4	15	12.8	26	22.2
	2000~4000만원	107	30.8	66	61.7	40	37.4	8	7.5	35	32.7	14	13.1	21	19.6
	4000~6000만원	64	18.4	49	76.6	16	25.0	2	3.1	35	54.7	10	15.6	9	14.1
	6000~8000만원	16	4.6	15	93.8	1	6.3	0	0.0	9	56.3	2	12.5	0	0.0
	8000만원 초과	5	1.4	4	80.0	2	40.0	1	20.0	3	60.0	0	0.0	0	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347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 응답이 있기 때문임

④ 가로에서 기대하는 것(복수응답)

- 가로에 기대하는 활동으로 이동 및 주차를 꼽은 비율은 85.8%, 교류 및 점유를 꼽은 비율은 105.3%로 조사되었음.

	응답자 수(명)	비율 (%)
이동교통로	148	45.8
대화 및 교류공간	191	59.1
놀이공간	94	29.1
주차공간	129	39.9
빨래널기, 화초재배 등 가사 확장공간	55	17.0
계(중복된 숫자 제외)	323	



〈그림 III-37〉 가로에서 기대하는 것(2차 설문)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은 남성보다 7.5% 가량 더 교류 및 점유 활동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모든 가구 형태에서 교류 및 점유 활동을 기대하는 비율이 현재 이용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현재 이용 비율과 기대 비율의 차이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두 배 이상).
- 연령이 높을수록 교류 및 점유 이용에 대한 기대 비율이 높아지나, 5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다소 그 비율이 낮아짐.
- 거주기간이 길수록 교류 및 점유 목적의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기대 비율은 이와 같은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음. 거주기간에 크게 상관없이 기대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남.
- 자영업자(내부)는 교류 및 점유 목적의 이용 비율과 기대 비율이 모두 가장 높은 직업임. 현재 이용 비율이 가장 낮은 자영업자(외부)의 기대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이한 지점임.
- 교류 및 점유 목적의 현재 이용 비율은 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았지

만, 기대 비율은 거꾸로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남.

- 향후 가로 이용희망 목적에 대해서는 ‘대화 및 교류공간’이 가장 높고 늘이공간을 포함하는 경우 88.2%에 달함. 특히, 연령이나 가족구성, 거주기간 및 가구소득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이동 및 주차공간으로서의 이용보다는 교류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점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5〉 가로에 기대하는 것(2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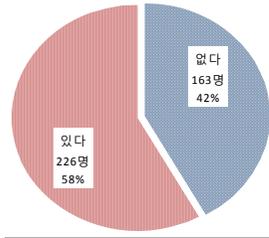
구분		계		이동 교통로		대화 및 교류공간		늘이 공간		주차공간		가사 확장공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23	100	148	45.8	191	59.1	94	29.1	129	39.9	55	17.0
성별	남성	105	32.5	40	38.1	54	51.4	34	32.4	41	39.0	17	16.2
	여성	212	65.6	107	50.5	134	63.2	56	26.4	87	41.0	38	17.9
가족 구성	독신가구	47	14.6	17	36.2	27	57.4	14	29.8	15	31.9	8	17.0
	부부 등 1세대	83	25.7	43	51.8	46	55.4	17	20.5	37	44.6	18	21.7
	2세대 이상 가구	193	59.8	88	45.6	118	61.1	63	32.6	77	39.9	59	30.6
	미취학아동.초 등학생	있음	55	17.0	24	43.6	32	58.2	27	49.1	31	56.4	11
	없음	268	83.0	124	46.3	159	59.3	67	25.0	98	36.6	44	16.4
연령	19세 이하	5	1.5	3	60.0	1	20.0	2	40.0	1	20.0	0	0.0
	20~29세	34	10.5	18	52.9	20	58.8	10	29.4	18	52.9	7	20.6
	30~39세	57	17.6	30	52.6	26	45.6	24	42.1	35	61.4	15	26.3
	40~49세	46	14.2	21	45.7	29	63.0	16	34.8	16	34.8	9	19.6
	50세 이상	177	54.8	76	42.9	113	63.8	39	22.0	59	33.3	24	13.6
거주 기간	5년 이내	78	24.1	36	46.2	45	57.7	28	35.9	39	50.0	16	20.5
	5~10년	63	19.5	29	46.0	29	46.0	19	30.2	29	46.0	10	15.9
	10~20년	53	16.4	23	43.4	36	67.9	18	34.0	16	30.2	14	26.4
	20년 이상	118	36.5	59	50.0	74	62.7	25	21.2	44	37.3	15	12.7
직업	회사원	63	19.5	31	49.2	34	54.0	18	28.6	33	52.4	11	17.5
	가정주부	116	35.9	63	54.3	79	68.1	25	21.6	47	40.5	14	12.1
	자영업(내부)	42	13.0	20	47.6	23	54.8	16	38.1	17	40.5	10	23.8
	자영업(외부)	39	12.1	13	33.3	25	64.1	15	38.5	20	51.3	5	12.8
연 가구 소득	2000만원 이하	107	33.1	46	43.0	55	51.4	31	29.0	29	27.1	18	16.8
	2000~4000만원	100	31.0	41	41.0	60	60.0	25	25.0	41	41.0	19	19.0
	4000~6000만원	60	18.6	31	51.7	42	70.0	23	38.3	35	58.3	13	21.7
	6000~8000만원	16	5.0	5	31.3	11	68.8	8	50.0	10	62.5	2	12.5
	8000만원 초과	5	1.5	4	0	4	0	2	0	3	0	1	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323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응답이 있기 때문임

⑤ 생태교통 페스티벌 이후 가로이용에 있어 변화여부

- 생태교통 페스티벌 이후 가로이용에 있어 변화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모두 226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8.1%를 차지함.

	응답자 수(명)	비율(%)
있다	226	58.1
없다	163	41.9
계	389	100



〈그림 III-38〉 가로이용 변화 여부(2차 설문)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가로이용에 있어 변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8%가량 더 많음.
- 가구 구성 세대수가 많을수록 대체로 변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했으며, 아동이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보다 변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더 많음.
- 연령은 40대 이상에서 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이 길수록 변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만 10~20년 거주자의 변화인식비율이 가장 높음.
- 지역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직업, 즉 자영업자(내부), 가정주부에서 변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각각 69.8%, 63%).
- 표본수가 적은 8000만원 초과가구를 제외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변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6000~8000만원 가구에 속한 응답자 중 변화가 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82.4%인 반면, 2000만원 이하 가구는 절반 이하인 49.3%에 그쳤음.
- 지역내 체류시간이 많고, 40대 이상이며, 가구구성 세대수가 많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변화에 대한 인식 비율이 높음. 이는 가로이용에서 교류에 대한 이용도와 기대치가 높은 응답자들의 특성에 해당함.

〈표 III-26〉 가로이용 변화(2차)

구분		계		있다		없다		
		빈도	%	빈도	%	빈도	%	
전체		389	100	226	58.1	163	41.9	
성별	남성	134	34.4	71	53.0	63	47.0	
	여성	249	64.0	152	61.0	97	39.0	
가족구성	독신가구	61	15.7	28	45.9	33	54.1	
	부부 등 1세대	103	26.5	57	55.3	46	44.7	
	2세대 이상 가구	225	57.8	141	62.7	84	37.3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있음	58	14.9	37	63.8	21	36.2
		없음	331	85.1	189	57.1	142	42.9
연령	19세 이하	8	2.1	1	12.5	7	87.5	
	20~29세	35	9.0	12	34.3	23	65.7	
	30~39세	67	17.2	31	46.3	36	53.7	
	40~49세	51	13.1	36	70.6	15	29.4	
	50세 이상	223	57.3	145	65.0	78	35.0	
거주기간	5년 이내	88	22.6	43	48.9	45	51.1	
	5~10년	81	20.8	46	56.8	35	43.2	
	10~20년	58	14.9	41	70.7	17	29.3	
	20년 이상	143	36.8	87	60.8	56	39.2	
직업	회사원	73	18.8	38	52.1	35	47.9	
	가정주부	135	34.7	85	63.0	50	37.0	
	자영업(내부)	43	11.1	30	69.8	13	30.2	
	자영업(외부)	44	11.3	24	54.5	20	45.5	
연가구소득	2000만원 이하	138	35.5	68	49.3	70	50.7	
	2000~4000만원	116	29.8	67	57.8	49	42.2	
	4000~6000만원	65	16.7	43	66.2	22	33.8	
	6000~8000만원	17	4.4	14	82.4	3	17.6	
	8000만원 초과	5	1.3	2	40.0	3	60.0	

※ 항목별 응답자 수가 389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개별 항목에 대해 표기하지 않은 설문 응답이 있기 때문임

## ⑥ 2차 설문 응답자 가로 등 이용 특성 종합

- 대화장소의 선택에 있어 공히 개인주택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그 외의 장소중 식당과 술집에 대해 남성들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반면 여성들은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
- 가로를 대화장소로 선택하는 비율은 가구 구성 세대수가 많거나, 아동이 있는 가구, 연령이 높고, 거주기간이 긴 주민,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주부와 내부 자영업자, 가구소득이 낮은 주민 등이 높은 경향을 보임.
- 대화시간은 여성들이 남성보다 조금 긴 경향을 보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길어지는 경향이 보이며, 직업면에서는 가정주부와 지역내 자영업자가 길고 회사원이 짧은 경향을 보임. 가족구성면에서는 독신가구에서 비교적 긴 대화시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 가로이용 목적은 이용교통로로서의 기능 다음으로 대화 및 교류공간으로서의 이용이 높고, 주차가 그 뒤를 잇고 있음. 특히, 여성과 장기거주자, 근린교류 활동이 활발한 직업(가정주부, 자영업자(내부))군에서 교류 및 점유 목적의 가로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남.
- 향후 가로 이용희망 목적에 대해서는 ‘대화 및 교류공간’이 가장 높고 놀이공간을 포함하는 경우 88.2%에 달함. 특히, 연령이나 가족구성, 거주기간 및 가구소득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이동 및 주차공간으로서의 이용보다는 교류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점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 체류시간이 많고, 40대 이상이며, 가구구성 세대수가 많고, 거주기간이 길수록 변화에 대한 인식 비율이 높음. 이는 가로이용에서 교류에 대한 이용도와 기대치가 높은 응답자들의 특성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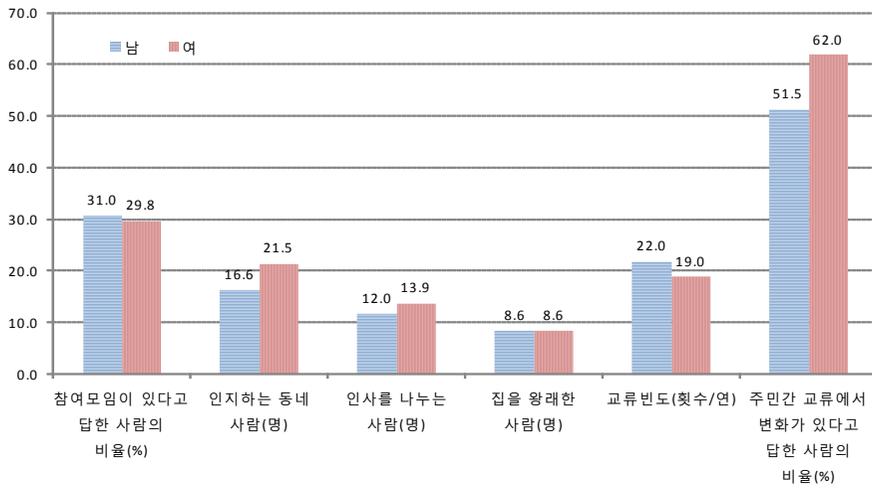
## 2. 정비 전·후 변화 분석

### 1) 근린 교류에 대한 개별 항목별 특성

- 근린교류 기준항목은 참여모임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과 인지하는 동네사람 수, 인사를 나누는 사람 수, 자택방문교류 대상인 수, 교류빈도, 교류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함.

#### (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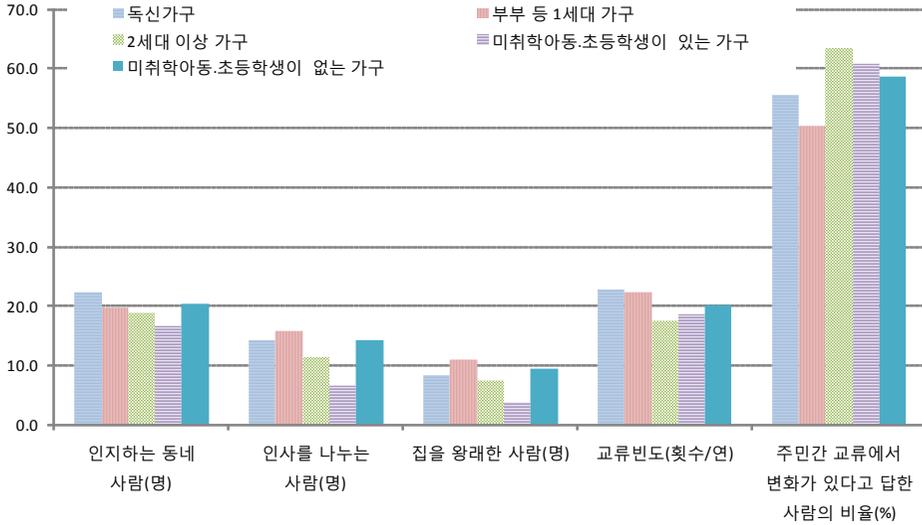
- 남녀 모두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주민간 교류에 변화가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남정보다는 여성들의 교류변화에 대한 인식이 다소 높으나, 이는 보행환경의 정비에 대한 영향보다는 생태교통행사 참여가 주로 낮시간에 지역내에 존재하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III-39〉 성별 근린교류정도(정비 후)

## (2) 가족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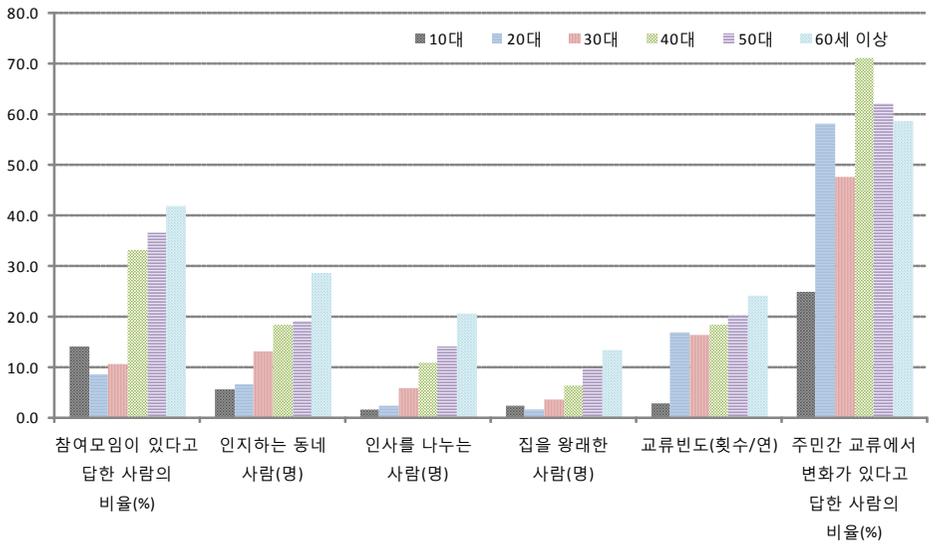
- 가족구성 중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이 있는 경우가 가장 교류정도가 낮음.
- 모든 가구구성 형태에서 정비이후 교류변화를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그림 III-40〉 가족구성별 근린교류정도(정비 후)

## (3)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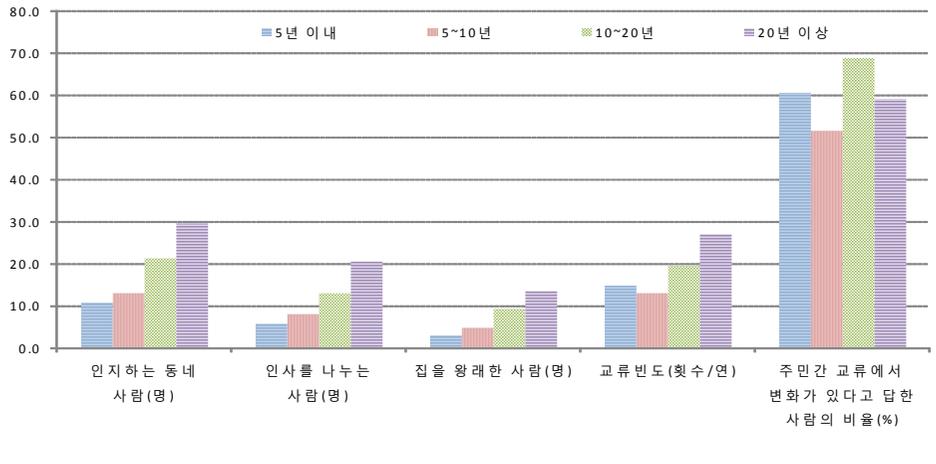
-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민간 교류정도가 강하며, 특히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마을에서의 주민간 교류정도가 높음.
- 20대는 교류폭은 좁으나 빈도는 높음.
- 10대 이외의 대부분의 연령층이 주민간 교류에 변화가 있다고 인식함.



〈그림 III-41〉 연령별 근린교류정도(정비 후)

#### (4) 거주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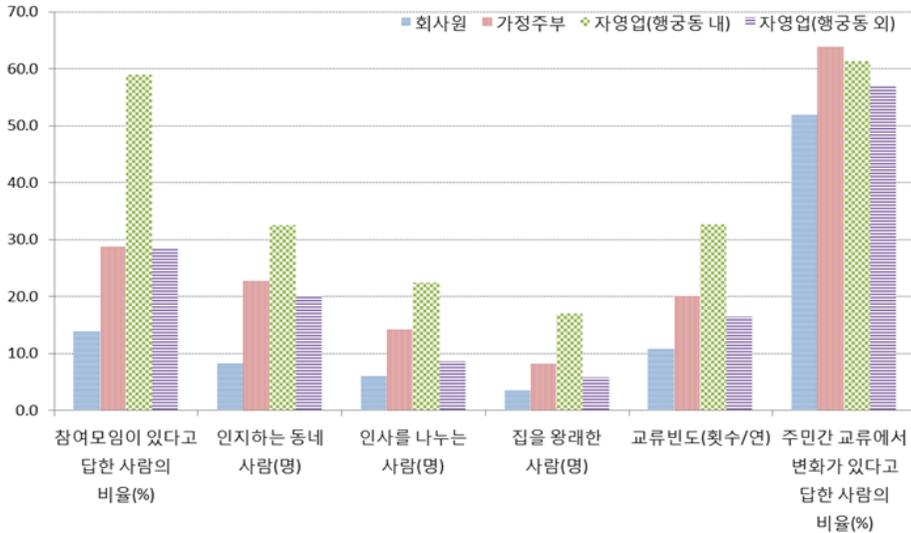
- 거주년수가 높을수록 교류정도가 강함.
- 정비이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절반이상이 변화가 있다고 인식함.



〈그림 III-42〉 거주기간별 근린교류정도(정비 후)

## (5) 직업

- 직업간에는 행궁동내 자영업자가 가장 높은 교류비율을 보이며, 회사원의 근린교류정도가 가장 낮음.
- 업에 상관없이 절반이상이 정비이후 교류에 변화가 있다고 인식함.



〈그림 III-43〉 직업별 근린교류정도(정비 후)

## (6) 근린교류 개별항목별 특성 종합

- 성별, 나이, 거주년수, 직업, 가족특성등 대상자들의 특성기준에 관계없이 절반 이상의 주민들이 근린교류에 변화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어린이 등이 있는 가족이 특히 낮은 교류정도를 보인점에 대해 해당 가구들의 거주기간을 보면, 약 절반정도가 5년 이내 거주자로 거주자간의 교류정도는 가족구성원 중 어린이의 영향 보다는 지역 내 거주기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7〉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의 거주기간

거주기간	응답자수(명)	비율(%)
5년 이내	26	47.3
5~10년	19	34.5
10~20년	9	16.4
20년 이상	1	1.8
계	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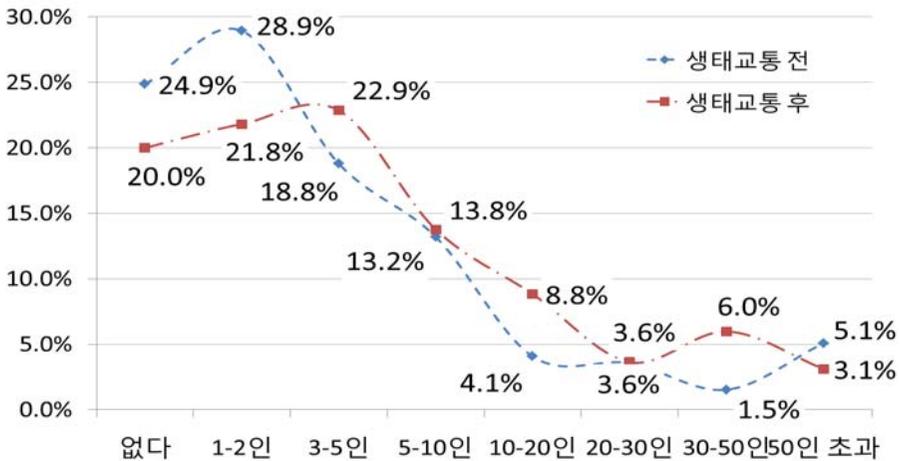
## 2) 정비 전·후 주요 변화 분석

### (1) 마을 주민간 자택방문 교류 비율

- 본 설문에서 상정한 가장 높은 수준의 교류단계인 ‘주민간 자택방문 교류’ 비율을 보면, 생태교통 이전 대상 지역 주민의 25%가 이웃집에 방문교류한 적이 없었으며, 2인 이하인 경우를 포함하면 53.8%에 달하였음.
- 정비 이후 자택방문교류 경험이 없는 경우는 20.0%로 낮아졌고, 2인이하 누적시 41.8%로 큰폭의 감소를 보임<sup>20)</sup>.
- 자택방문교류 대상자가 2인 이하인 비율이 줄고 3인 이상의 이웃집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비율이 증대한 것은 지역 거주민간 커뮤니티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중앙값으로 환산한 자택방문교류 인수 평균값은 사업이전 7.3인에서 사업 이후 8.8인으로 1.5인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비 이후 주민간 밀접한 수준의 교류가 약 20.5%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20) 특히 직업군 중 회사원이 56.8%에서 37.8%로 가장 큰 폭의 감소폭을 보였음

구분	중앙값	응답수(인)		환산값(인)		구성비	
		전	후	전	후	전	후
0	0	49	77	0	0	24.9%	20.0%
1-2인	1.5	57	84	85.5	126	28.9%	21.8%
3-5인	4	37	88	148	352	18.8%	22.9%
5-10인	7.5	26	53	195	397.5	13.2%	13.8%
10-20인	15	8	34	120	510	4.1%	8.8%
20-30인	25	7	14	175	350	3.6%	3.6%
30-50인	40	3	23	120	920	1.5%	6.0%
50인초과	60	10	12	600	720	5.1%	3.1%
계	-	197	385	1443.5	3375.5	100%	100%
평균/인	-	-	-	7.3	8.8	-	-



〈그림 III-44〉 마을주민간 자택방문 교류 비율

## (2) 이웃과 대화하는 장소(복수응답)

- 생태교통 이전 이웃과의 대화는 주로 식당 및 술집 / 개인주택 / 가로에서 이루어졌음.
- 정비 이후 이웃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각각의 장소의 발생비율을 보면, 식

당/술집이 -27.2%, 가로가 -11.5%로 줄고<sup>21)</sup>, 커피숍이 +12.5%, 공공시설이 +3.5%, 개인주택이 +18.6% 증가하였음.

- 이를 기준발생 비율을 기준으로 신장율을 환산하면, 식당/술집 -59.1%, 가로 -35.6%, 커피숍 +115.7%, 공공시설 +22%, 개인주택+21.3%로 식당/술집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커피숍이 가장 큰폭의 신장을 보이고 있음.
- 변화의 특징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던 ‘식당 및 술집’이 가장 낮은 빈도로 바뀌었고, 개인주택과 가로에 이어 커피숍과 공공시설 내 휴게실 등이 비슷한 빈도를 보여주는 등 평준화되었다는 것은 장소특성에 비추어 비목적성의 일상적 교류가 증대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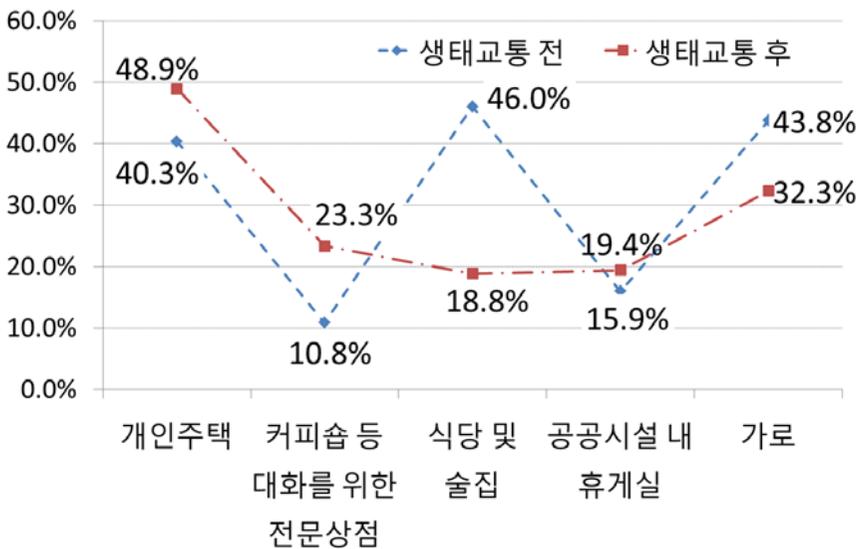
- 물리적으로 새로이 정비된 공원 등 공공시설 및 자생적으로 증가한 민간 커피숍 등이 유효하게 이용됨을 의미함.
- 커뮤니티 측면에서, 일상적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되었고,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개인주택 비율이 증가한 것은 앞서 확인한 보다 밀집한 커뮤니티 관계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재확인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교류를 위한 상업시설면에서 보면 정비이전에는 식당/술집(46.0%)이 커피숍등 대화를 위한 전문상점(10.8%)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으나 정비이후에는 오히려 커피숍등(23.3%)이 식당/술집(18.8%)보다 더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해당 상점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목적성을 갖는 목적성 대화 위주의 교류에서 일상적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류가 지역내에 증가하는 등 주민간 일상적 교류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21) 가로의 빈도가 감소하였으나, 가로공간에 대한 대화 및 교류공간으로서의 이용선호도를 보면 정비이전 34.8%였 정비 이후 36.3%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가로의 경우는 대화장소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기 보다는 이전에는 식당, 주택에 갈 정도가 아닌 경우, 어쩔 수 없이 가로에서 대화를 하였으나, 이제는 커피숍 등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증가하여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구분	전		후		비율변화	증감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개인주택	71	40.3%	174	48.9%	+8.6%	+21.3%
커피숍 등 대화를 위한 전문상점	19	10.8%	83	23.3%	+12.5%	+115.7%
식당/술집	81	46.0%	67	18.8%	-27.2%	-59.1%
공공시설 내 휴게실	28	15.9%	69	19.4%	+3.5%	+22%
가로	77	43.8%	115	32.3%	-11.5%	-35.6%
유효응답 수	176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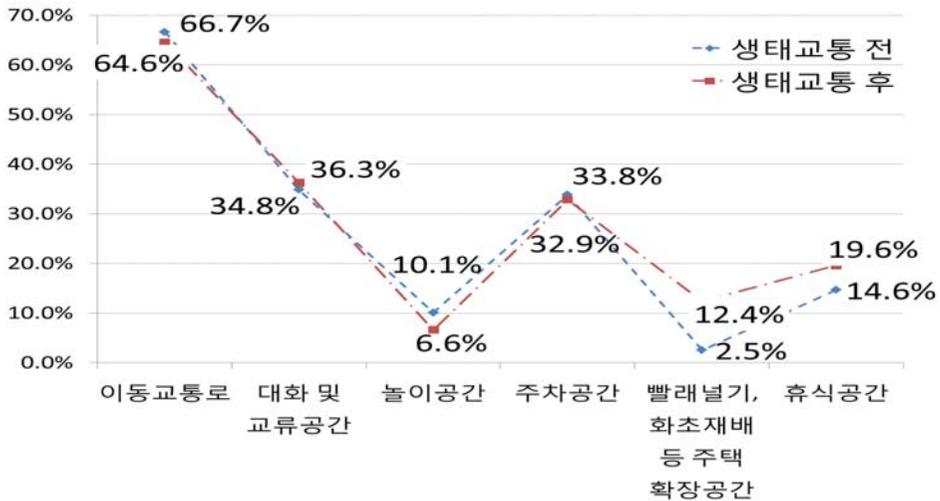
〈그림 III-45〉 이웃과 대화하는 장소 변화

### (3) 가로이용 목적(복수응답)

- 가로이용 목적을 보면 정비 이후에도 가로의 기본적인 기능인 이동교통로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정비이후, 가로의 이용목적은 이동교통로, 주차공간이 소폭 감소하였고,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 인식이 크게 감소하였음.

○ 대화 및 교류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소폭 증가하였고, 휴식공간으로서의 인식이 대폭 높아졌음. 무엇보다도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구분	전		후		비율변화	증감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이동교통로	132	66.7%	224	64.6%	-2.1%	-3.1%
대화 및 교류공간	69	34.8%	126	36.3%	+1.5%	+4.3%
놀이공간	20	10.1%	23	6.6%	-3.5%	-34.6%
주차공간	67	33.8%	114	32.9%	-0.9%	-2.7%
빨래널기, 화초재배 등 주택 확장공간	5	2.5%	43	12.4%	+9.9%	+396%
휴식공간	29	14.6%	68	19.6%	+5%	+34.2%
유효 응답자 수	198		347			



〈그림 III-46〉 가로이용 목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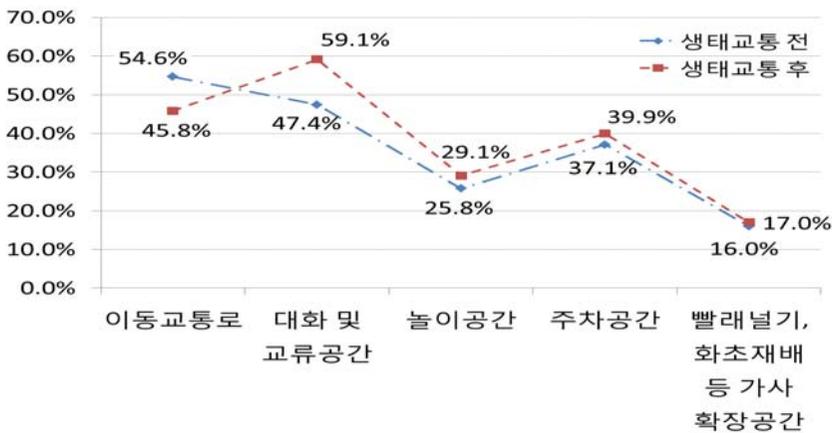
#### (4) 가로이용 희망기대 사항(복수응답)

○ 향후 가로에서 하고 싶은 것, 혹은 기대되는 것으로는 이동교통로로서의

기능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sup>22)</sup>, 대화와 교류공간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기대치를 보임.

- 놀이공간, 주차공간, 가사확장 공간등 이동교통로로서의 기능을 비롯하여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기대수치가 높아졌음.
- 다만, 공간변화의 주요 요인이 자동차의 통행제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율(39.9%)의 거주민이 주차공간으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구분	전		후		비율변화	증감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이동교통로	106	54.6%	148	45.8%	-8.8%	-16.1%
대화 및 교류공간	92	47.4%	191	59.1%	+11.7%	+24.7%
놀이공간	50	25.8%	94	29.1%	+3.3%	+12.8%
주차공간	72	37.1%	129	39.9%	+2.8%	+7.5%
빨래널기, 화초재배 등 주택 확장공간	31	16.0%	55	17.0%	+1%	+6.2%
유효 응답자 수	194		323			



〈그림 III-47〉 가로이용 희망 변화

22) 이동교통로의 기대변화에서 여성들은 51.9%에서 50.5%로 거의 변화가 없으나 남성들은 58.1%에서 38.1%로 대폭 감소하였음.

### 3. 정비 전·후 거주자 인식 주요변화 종합

- 해당지역의 근린교류에 있어서는 개별 특성항목 중에서는 해당 지역내 거주년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보행환경의 정비에 따른 교류정도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교류가 증가하였다는 인식이 강하며, 실제 가장높은 교류수준인 자택방문교류에서도 2인이하의 교류대상자를 가진 주민수가 줄고, 평균대상인수가 20.5% 증가하는 등 교류도의 상승경향이 확인되었음. 이웃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응답에서도 개인주택의 비율이 정비이후 18.6% 증가하였다는 것에서도 재확인 됨.
- 특히, 정비이전에는 주민간 대화장소로 식당 및 술집이 가장 높은 수치(46.0%)를 보였고, 이에 반해 커피숍 등은 10.8%에 그쳤으나, 정비이후 오히려 커피숍 등이 23.3%가 되고 식당술집이 18.8%로 감소하여 이용비율면에서 역전되었음. 이는, 보행환경 정비와 더불어 수요에 대한 민간차원의 예측에서 지역내에 커피숍 등이 신규로 입점하였고, 이러한 점포들이 실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해당 상점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목적에 갖는 목적성 대화 위주의 교류에서 일상적 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류가 지역내에 증가하는 등 주민간 일상적교류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가로이용에 있어서는 이용현황을 보면 정비전·후 공히 이동교통로와 주차공간으로서의 이용수치가 높았음.
- 정비이후, 생활의 확장공간과 휴식공간으로서의 이용비율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향후 이용기대활동에 대한 응답에서는 이동교통로(45.8%)로서보다 대화 및 교류공간으로서의 기대(59.1%)가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거주지내 가로가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 보행자중심의 교통환경으로 정비되고 자동차 교통의 제한을 거주자들이 경험한 이후, 가로에 대해 이동교통로로서의 기초적 기능보다는, 가로상의 커뮤니티 활동

등이 증가하였고, 향후 이에 대한 기대 또한,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성 시가지 가로환경을 이제까지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대상지역 거주민의 교류활동 증진과 가로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유효하며, 관련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운용될 필요가 있음.
- 다만, 보행자 활동과 부합되지 않는 주차공간으로서의 이용 기대는 정비 전·후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들이 보행환경 위주의 정비를 통해 가로에 대한 이용변화와 커뮤니티 교류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보행자 중심의 활동공간으로서의 활용현황과 향후 활용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으나, 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라는 현실적 문제의 해결방안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해줌.
- 따라서, 본 대상지와 같은 기성시가지의 보행환경의 정비에 있어, 그 효용성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거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로환경정비와 더불어 주차공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제3절 가로이용자 현장관측 및 추적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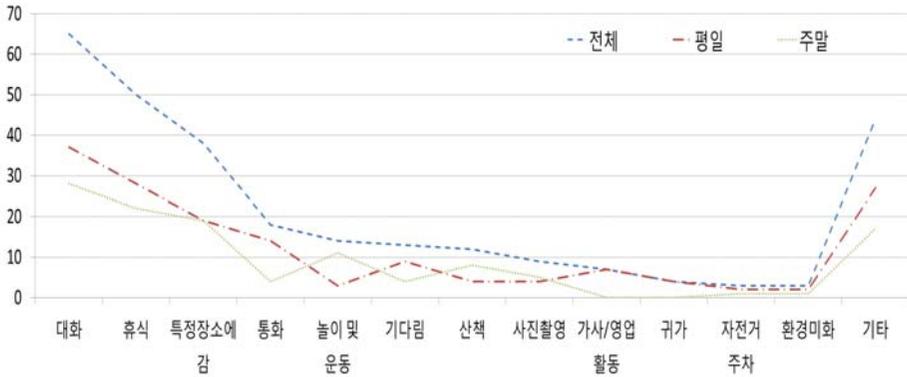
- 가로이용자 현장조사는 지역내 주요도로 및 골목길 등 가로내에서 이루어지는 주민활동과 공원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한 관찰조사와 주요 가로를 지나는 보행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나뉘어 수행됨.

### 1. 가로상(가로변 공원포함) 활동조사

- 이용행태 조사는 가로상(가로변 공원포함)에서 이루어지는 보행이외의 활동내용과 주요 활동지점에 대한 파악을 위한 현장 관찰조사를 행함.

〈표 III-28〉 가로상 활동내용

#	분류	건수	건수	건수	활동 종류 설명
		계	평일	주말	
1	대화	65	37	28	일반적인 대화 외에 회의, 배웅, 길 알려주기 등이 있음.
2	휴식	50	28	22	공원 벤치에서 휴식, 흡연 등
3	특정장소방문	38	19	19	교회, 도서관, 미용실, 슈퍼, 식당, 옷가게, 카페, 학원, 분식집 등
4	통화	18	14	4	휴대전화 통화
5	놀이 및 운동	14	3	11	조형물 등 활용 놀이, 줄넘기, 훌라우프, 공놀이, 스케이트보드 등
6	기다림	13	9	4	지인이나 택시를 기다림
7	산책	12	4	8	산책
8	사진촬영	9	4	5	사진촬영
9	가사/영업활동	7	7	0	빨래 널기, 콩널기, 난로 청소, 과일 판매, 자전거 수리 등
10	자전거 주차	3	2	1	
11	환경미화	3	2	1	화단에 물을 줌, 가게 앞 청소 등
12	기타	44	27	17	군것질, 주차관리, 폐지 수거, 쇼핑 등
합계		276	156	120	



〈그림 III-48〉 가로상 활동내용

- 가로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내용으로는 대화, 휴식, 특정장소방문, 통화, 놀이 및 운동, 기다림, 산책, 사진촬영, 가사/영업활동, 자전거 주차, 환경미화 등 다양함.
- 활동 중 대화의 빈도가 가장 높으며, 휴식이나 특정장소 방문, 통화 등 ‘표 3-6’상의 표기순으로 빈도를 보이고 있음.
- 주말은 평일과 비교해 가로활동 중 놀이와 산책 빈도가 높음.

## 2. 이용자 추적조사

- 가로 이용자 추적조사를 보면, 평일과 주말의 활동내용에서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정도가 단순통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역 내 진입경로에 따라 각 행태에서 많은 차이를 보임.

〈표 III-29〉 추적조사에 따른 보행이용자 활동내용

활동종류	건수			비율 (%)	비고
	계	평일	주말		
단순통과	82	44	38	50.0	
군것질	3	2	1	1.8	
기다림	6	4	2	3.7	
대화	11	8	3	6.7	
특정장소방문	40	19	21	24.4	도서관, 교회, 옷가게, 식당, 카페, 은행, 슈퍼, 미용실, 세탁소, 학원 등
사진촬영	2	2	0	1.2	
산책	4	4	0	2.4	
인사	2	1	1	1.2	
통화	3	3	0	1.8	
휴식	5	2	3	3.0	
기타	6	2	4	3.7	폐품수거, 흡연, 차량탑승 등
계	158	91	73	100	

- 화성행궁 방향에서 진입하는 이들은, 이동로 상의 가로변에 위치한 공원, 점포, 노점 등을 이용함. 가장 다양한 활동내용을 보임. 이는 화성행궁 쪽에서의 관광객 등에 의한 것으로 유추됨. 주말에는 화서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들의 비율이 높아짐.
- 화서문 방향에서 진입하는 이들은, 단순 통과자 비율이 가장 높으며, 가로변 시설 및 점포를 이용하지 않으며, 특히 일요일에는 교회로 가는 이들이 많고, 이들을 제외하는 경우 이쪽에서 진입하는 보행이용자의 지역 관련성이 가장 적음.
- 정조로에서 진입하는 이들은 지역 전체를 이동범위로 하며, 특정 목적성 활동을 보임. 특히, 지역내 시설 및 점포 등의 방문 등 특정 목적을 갖고 방문하는 지역과 가장 관계성이 높은 보행자로 나타남.

〈표 III-30〉 가로보행자 활동(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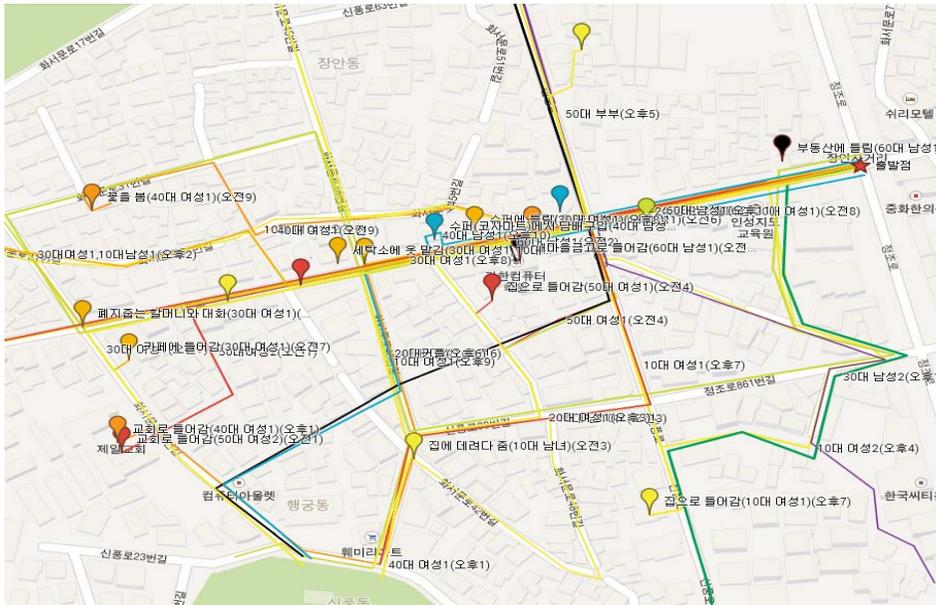
활동종류	계	지점1		지점2		지점3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단순통과	44	15	46.9	12	50.0	17	48.6
특정장소방문	19	5(1)	15.6	4	16.7	10(2)	28.6
대화	8	5	15.6	1	4.2	2	5.7
기다림	4	1	3.1	-	-	3	8.6
산책	4	-	-	1	4.2	3	8.6
통화	3	-	-	3	12.5	-	-
휴식	2	1	3.1	1	4.2	-	-
군것질	2	2	6.3	-	-	-	-
사진촬영	2	1	3.1	1	4.2	-	-
인사	1	1	3.1	-	-	-	-
기타	2	1	3.1	1	4.2	-	-
계	91	32	100	24	100	35	100

〈표 III-31〉 가로보행자 활동(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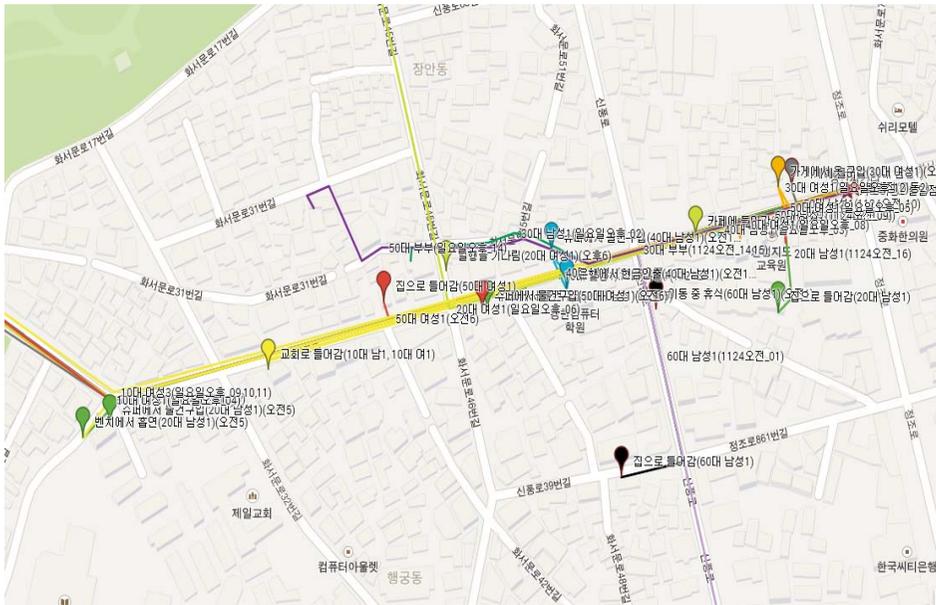
활동종류	계	지점1		지점2		지점3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단순통과	38	9	42.9	17	54.8	12	48.0
특정장소방문	21	6(3)	28.6	8(5)	25.8	7	28.0
대화	3	2	9.5	1	3.2	-	-
휴식	3	1	4.8	-	-	1	4.0
기다림	2	-	-	1	3.2	1	4.0
인사	1	-	-	1	3.2	-	-
군것질	1	1	4.8	-	-	-	-
사진촬영	-	-	-	-	-	-	-
산책	-	-	-	-	-	-	-
통화	-	-	-	-	-	-	-
기타	4	2	9.5	1	3.2	1	-
계	73	21	100	29	100	22	100







〈그림 III-53〉 지점3: 정소로에서 진입하는 보행자의 이동동선과 활동(평일)



〈그림 III-54〉 지점3: 정소로에서 진입하는 보행자의 이동동선과 활동(주말)

---

제4장

결론



# 제4장 결론

## 1. 연구 개요 및 결과

- 수원시는 ‘생태교통 수원 2013’을 통해, 기성시가지인 신평동·장안동을 대상으로 기 조성된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으로 정비하고, 9월 한달간 지역내 일반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세계최초의 시도를 실시하였음.
- 본 연구는 자동차 중심 가로환경에서 보행중심으로 가로환경이 정비되었을 때, 나타나는 지역 커뮤니티 인식변화 및 가로활동내용에 대한 조사연구로서, 보행중심의 가로환경과 거주민 커뮤니티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음.
- 생태교통 수원2013 관련 담당자들의 인터뷰, 신평·장안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주민인식변화와 가로상 활동내용을 확인하였음.
- 근린교류 정도는 거주자의 거주년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보행환경의 정비에 따라 전반적으로 교류가 증가하였다는 인식이었음.
- 특히, 자택을 방문하여 교류하는 대상주민의 평균인수가 20.5% 증가하는 등 거주민간 교류의 상승경향이 확인되었음.
- 교류장소로서 정비이전에는 식당·술집의 빈도가 가장 높고, 커피숍이 가장 낮았으나, 정비이후 식당·술집의 빈도가 가장 낮아졌음.
-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장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주민간 일상적교류가 증가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음.
- 가로 대해서는 정비이후, 이동교통로로서의 기초적 기능보다는, 가로상의 커뮤니티 활동 등이 증가하였고, 향후 대화 및 교류공간으로서의 기대 또한 확대되었음.

## 2. 연구의 제언

- 상기 결과를 기반으로 기성 시가지 가로환경을 이제까지의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대상지역 거주민의 교류활동 증진과 가로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유효하며, 관련 정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운용될 필요가 있음.
- 다만, 주민들이 보행환경 정비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직접 체험하더라도, 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주차라는 현실적 문제의 해결방안 또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성시가지의 보행환경의 정비에 있어, 가로환경정비와 더불어 주차공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병행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박병철(2009) 차없는 거리가 가로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건축학회연합 논문집 11(2): 135-144.
- 손장원, 이동배(2002) 문화성을 지향한 도시가로 보행자 공간의 행위유형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10):193-200
- 장 장제르 지음/ 김교신 번역(1997) 르 코르뷔지에, (주)시공사:서울
- 정창식(1985) 주요도로주변의 토지이용에 따른 보행교통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학회, 국토계획 20(1):121-140.
- 수원시(2012) 교통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보고서.
- 수원시2(2012)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인식 및 가구통행 실태 조사 연구
- Buckner JC(1988)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Neighborhood Cohesio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6(6):771-791.
- Frank LD, Engelke PO and Schmid TL(2003) *Health And Community Design: The Impact of the Built On Physical Activity*, Island Press: Washington, DC
- Frank LD, Sallis JF, Conway TL et. al.(2006) Many Pathways from Land Use to Health: Associations between Neighborhood Walkability and Active Transportation, Body Mass Index, and Air Qu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2(1): 75-87.
- Frank LD, Sallis JF, Saelens BE, et. al.(2010) The Development of a wakability index: Application to the Neighborhood Quality of Life Study. *BJ R Sports Med* 44: 924-933.
- Frank LD, Saelens BE, Chapman J, et. al.(2012)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Methods and Spatial Findings from the Neighborhood Impact on Kids Study, *AM J Prev Med* 42(5):e47-55.
- Howard E(1902) *Garden Cities of Tomorrow*

- Ihlder J(1924) The Automobile and Community Planning,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16 : 199–205.
- Jacobs J(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Inc.: New York
- Larco N, Steiner B, Stockard J and West A(2012) Pedestrian-Friendly Environments and Active Travel for Residents of Multifamily Housing: The Role of Preferences and Perceptions, *Environment and Behavior*, 44(3) 303-333
- Lund H(2002) Pedestrian Environments and Sense of Community,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1: 301–312.
- Saelens BE and Handy SL(2008) Built Environment Correlates of Walking:A Review.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es* 40: 550–566.
- Skjaeveland O, Garling T and Maeland JG(1996)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Neighboring.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3): 413–435.
- Sundquist K, Eriksson U, Kawakami N, et. al.(2011) Neighborhood Walkability, Physical Activity, and Walking Behavior: The Swedish Neighborhood and Physical Activity (SNAP) study, *Social Science & Medicine* 72: 1266–1273.
- Taylor RB편저(1986) *Urban Neighborhoods Research and Policy*, Praeger: New York
- Thomas HK(1926) The Dept of the Community to the Automobile,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Automobile Engineers*, 21:6–7.
- United Nations(1987)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2/187, 11 December.
- United Nations(1992) *Agenda 21*, 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io de Janeiro, Brazil

Woollard FG(1945) The Automobile and the Community,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Automobile Engineers* 40 :1-20.

Wood L, Frank LD, Giles-Corti B(2010) Sense of community and its relationship with walking and neighborhood design, *Social Science & Medicine* 70: 1381-1390.

American Studies at the Univ. of Virginia, William Penn Plans the City, <http://xroads.virginia.edu/~CAP/PENN/pnplan.html>, 2013.12.12. 최종확인

The OpenLearn team(2001) CIAM, <http://www.open.edu/openlearn/history-the-arts/history/heritage/ciam-congres-internationaux-darchitecture-moderne>), 2013.12.12. 최종확인



---

## 영문요약(Abstract)



- 『Ecomobility World Festival Suwon 2013』 was held in Shin-pung and Jang-an Dong that is a built-up area in Suwon from September 1. to 30.
- The Traffic environment, include paving materials, street furnitures and building facade, have been reconstructed to improve pedestrian walking amenity and moving safety of eco-mobilities as like bicycle.
- This research is focused to confirm the correlationship between walking environment and regional community by investigation about changes of community cognitions and street activities of residents in that area.
- As research methods, Interviews with cocerned city officials and residents, surveys(before and after) and a site inspection are used.
- Be confirmed ‘Dwelling years’ exert a great influence on the degree of neighborhood association in this area. and the neighborhood association was increased by walking environment improvements
- Especially, that is confirmed, the average of home visiting association between residents have been 20.5% increased.
- The associating place, that is indicated high choice frequency, is ‘restaurants or pops’ before reconstruction, and ‘a cafe’ was the lowest place. After reconstruction, ‘restaurants or pops’ was choiced as the lowest frequency.
- On considering characters of the places, this result show that the residents’ ordinary associations have been increased.
- About Street, after reconstruction, community activities are increased on street. And on expected function of road, a conversation or association place was relatively increased than fundamental function as a moving path.
- Based on these results, to improve a street environment of a built-up area in city, there is need to change the focus from on the efficiency of auto mobility to on the pedestrian amenity, for growing up residents

association.

- But, before reconstruction of street for pedestrians, there are needed some considerings to prepare parking lots for residents occupying cars. Because, in many case, ordinary residents park his car on the road in Corea.

---

## 부 록

설문지 준비이전

설문지 준비이후



# 1. 설문지(정비이전)

<span style="float: right;">생태교통 수원 2013 설문조사</span>		
-	<b>생태교통 수원 2013 거주민 설문조사</b>	ID <span style="border: 1px dashed red; display: inline-block; width: 20px; height: 15px; vertical-align: middle;"></span> <span style="border: 1px dashed red; display: inline-block; width: 20px; height: 15px; vertical-align: middle;"></span> <span style="border: 1px dashed red; display: inline-block; width: 20px; height: 15px; vertical-align: middle;"></span> <span style="border: 1px dashed red; display: inline-block; width: 20px; height: 15px; vertical-align: middle;"></span>
<p style="text-align: center;">안녕하십니까?</p> <p>수원시는 <b>리콜레이(RCLE)</b> 및 <b>유엔 주거개선활동(UN-Habitat)</b>과 공동으로 '생태교통 수원 2013'을 2013년 9월에 개최하여, 이에 맞추어 <b>생각문</b> 일대불 대상으로 <b>지역내외</b>의 의견선호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적 교통기반으로서의 자동차 교통을 제한하고 생태교통을 중심으로 <b>지역교통편의</b>를 기획하고 있습니다.</p> <p>본 설문조사는 '생태교통 수원 2013' 개최에 따라 추진되는 <b>경공통일</b>의 자동차 교통 제어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현실 등 <b>교통편의</b>의 변화가 거주민 여러분의 <b>가르내</b> 활동 및 지역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보다 나은 주거지 환경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오니 설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년 9월</p> <p style="text-align: center;">                 연구수행자 : 연세대학교 <b>신뢰이오브</b> <b>카이프</b>팀 연구원 연구교수 <b>김준희</b>                  조사수행기관 : 생태교통사무국 <b>이윤국</b>장                  문     화 : <b>김준희</b> 010-2712-6046 / linkbet@yonsei.ac.kr             </p>		
<p><b>*통계유형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b></p> <p>제23조 (비밀의 보호)</p> <p>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p> <p>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u>안된다</u>.</p>		
<p><b>* 작성 요령</b></p> <p>1.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응답의 보기번호 앞 <input type="checkbox"/> 안에 V를 체크해 주십시오.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V</p> <p>2. 또는,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적어서 주십시오. 예 <input type="checkbox"/> 기타 <u>원인없이 불응 함</u></p>		
<span style="float: left;">연세대 연구교수 김준희</span> <span style="float: right; 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01</span>		

I. 귀하의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1) 남성  2) 여성

문2. 귀하가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구성원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본인  2) 배우자  
 3) 미취학 아동  4) 초등학교  
 5) 중학교  6) 고등학교  
 7) 대학원, 대학원생  8) 그 외 자녀  
 9) 아버지(장인, 시아버지 포함)  10) 어머니 (장모, 시어머니 포함)  
 11) 형제, 자매, 친인척  12) 기타

문3. 귀하의 나이는 다음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 1) 20세 미만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이상

문4. 귀하가 항공등의 거주하신지는 몇 년이 경과되었습니까?

- 1) 5년 이내  2) 5-10년  
 3) 10-20년  4) 20년 이상

문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회사원  2) 가정주부  
 3) 자영업(항공동 내부소계)  4) 자영업(항공동 외부소계)  
 5) 공무원  6) 교사  
 7) 시민단체  8) 기타 \_\_\_\_\_

문4. 귀 가정의 연 가구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1) 200만원 이하  2) 200-400만원  
 3) 400-600만원  4) 600-800만원  
 5) 800만원 초과

II. 귀하의 근린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5. **점교를** 일대출 활동범위로 하는 주연모임 중 귀하가 참여하시는 모임이 있습니까?

- 1) 없다 문6.으로  2) 있다 문6.-1로

문6.-1 귀하는 참여하시는 주연모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주연자서위원회, 새마을 부녀회, **종우회**, 000사랑모임, 000번영회, 조기축구회, 000정월단 등.

문6. **여지에서도 우려동년** 사람이라고 인지하실 수 있는 분은 몇 분입니까 ?

- 1) 5인 이하  2) 5~10인  
 3) 10~20인  4) 20~30인  
 5) 30~50인  6) 50~100인  
 7) 100인 초과

문7. **상기** 연지대상자 중 **일상적으로** 연사를 나누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 1) 없다  2) 1~2인  
 3) 3~5인  4) 5~10인  
 5) 10~20인  6) 20인~30인  
 7) 30~50인  8) 50인 초과

문8. 문6.의 연지대상자 중 대상자의 **지역** 혹은 **귀덕에서** 방문 교류를 한 적이 있는 여는 몇 분입니까?

- 1) 없다  2) 1~2인  
 3) 3~5인  4) 5~10인  
 5) 10~20인  6) 20인~30인  
 7) 30~50인  8) 50인 초과

문9. **귀하** 혹은 타 주연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방문교류의 목적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친교  2) 명절인사나 김들이 등 김인행사  
 3) 종교모임  4) 반성회  
 5) 특정 목적성 논의(합의 방문 포함)  6) 기타 \_\_\_\_\_

문10. 귀하의 **월공통 내 거주민과 자택 혹은 직부거리나 찾집 등에서 20분이상** 소요하는 **교류 빈도는** 다음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없다     | <input type="checkbox"/> 2) 년 1~2회  |
| <input type="checkbox"/> 3) 년 3~6회 | <input type="checkbox"/> 4) 월 1~2회  |
| <input type="checkbox"/> 5) 월 3~6회 | <input type="checkbox"/> 6) 월 6회 이상 |

**Ⅲ. 귀하의 가로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1. 귀하가 여윌과 대화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1) 개인주택    | <input type="checkbox"/> 2) <b>커피숍</b> 등 대화를 위한 전문 상점 |
| <input type="checkbox"/> 3) 식당 및 술집 | <input type="checkbox"/> 4) <b>물품시설회</b> 휴거실          |
| <input type="checkbox"/> 5) 가로      | <input type="checkbox"/> 6) 기타 _____                  |

문11-1 귀하가 가로에서 여윌과 대화하는 경우 소요시간은 다음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1) <b>5분이내</b> | <input type="checkbox"/> 2) 5~10분  |
| <input type="checkbox"/> 3) 10~30분      | <input type="checkbox"/> 4) 30분 이상 |

문12. 귀하가 가로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input type="checkbox"/> 1) 이동교통로                                    | <input type="checkbox"/> 2) 대화 및 교류공간 |
| <input type="checkbox"/> 3) 놀이공간                                     | <input type="checkbox"/> 4) 주차공간      |
| <input type="checkbox"/> 5) <b>빨래날기</b> <b>화순계제</b> 등 주택 <b>확장공간</b> | <input type="checkbox"/> 6) 휴식공간      |
| <input type="checkbox"/> 7) 기타 _____                                 |                                       |

문13. 귀하가 가로에서 하고 싶은 것, 혹은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1) 이동교통로                                    | <input type="checkbox"/> 2) 대화 및 교류공간 |
| <input type="checkbox"/> 3) 놀이공간                                     | <input type="checkbox"/> 4) 주차공간      |
| <input type="checkbox"/> 5) <b>빨래날기</b> <b>화순계제</b> 등 <b>가사 확장공간</b> | <input type="checkbox"/> 6) 기타 _____  |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에 주셔서 **권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2. 설문지(정비이후)

생태교통 수원 2013 설문조사	
-	생태교통 수원 2013 거주민 설문조사
(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안녕하십니까?</p> <p>수원시 <b>행정동에서는 이클레의(ICLEI)</b> 및 유엔 주거개선활동(UN-Habitat)과 공동으로 '생태교통 수원 2013'이 2013년 9월 한달 간 거주민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신중동, 장안동 일대를 중심대상으로 지역 내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개별과 교통기관으로서의 자동차 교통을 제한하고 생태교통을 중심으로 지역정비환경을 정립하였습니다.</p> <p>본 설문조사는 '생태교통 수원 2013'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던 행정동일대의 자동차 교통 제어 및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향상 등 <b>교통환경의 변화</b>가 거주민 여러분의 길거리 생활 및 지역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보다 나은 주거지 환경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오니 성의 있게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년 10월</p>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수행자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b>김주석</b>          조사수행기관 : 생태교통마을사무소 마을국장          문의 : <b>김주석</b> 010-2712-6046 / tinkneti@suwon.re.kr</p> <p style="text-align: center;"><b>「동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문」</b></p> <p>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p> <p>※ 작성 요령</p> <p>1.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응답의 보기번호 앞 <input type="checkbox"/> 안에 V를 체크해 주십시오.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V</p> <p>2. 또는, 문항을 잘 읽고 해당하는 내용을 직접 써넣어 주십시오. 예) 0) 기타 <b>취업감에 활동 중</b></p>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b>김주석</b> (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I. 귀하의 근린교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7. 행궁동 일대를 활동범위로 하는 주민모임 중 귀하가 참여하시는 모임이 있습니까?

- 1) 없다 문8.으로  2) 있다 문7.-1트

문7.-1 귀하가 참여하시는 주민모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부녀회, 동우회, 000사랑모임, 000번영회, 조기축구회, 000방역단 등

문8. 동네 밖에서 만나도 우리 동네(신중동, 경안동) 분이라고 알아 줄 수 있는 분은 몇 분이십니까?

- 1) 5인 이하  2) 5~10인  
 3) 10~20인  4) 20~30인  
 5) 30~50인  6) 50~100인  
 7) 100인 초과

문9. 위 아는 분 중에서 일상적으로 인사들 나누시는 분은 몇 분이십니까?

- 1) 없다  2) 1~2인  
 3) 3~5인  4) 5~10인  
 5) 10~20인  6) 20인~30인  
 7) 30~50인  8) 50인 초과

문10. 위 아는 분 중(문8)에서 그 분의 집 혹은 나의 집을 왕래 한 적이 있는 이는 몇 분이십니까?

- 1) 없다  2) 1~2인  
 3) 3~5인  4) 5~10인  
 5) 10~20인  6) 20인~30인  
 7) 30~50인  8) 50인 초과

문11. 귀하 혹은 타 주민의 자택에서 이루어지는 방문교류의 목적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친교  2) 명절인사나 김들이 등 김인행사  
 3) 종교모임  4) 반상회  
 5) 특정 목적성 논의(협의 방문 포  
 합)  6) 기타 \_\_\_\_\_

문12. 귀하의 행궁동 마을 주민과 가 가정 또는 외부거리, 컷집, 식당 등의 공간에서 20분이상 소요하는 교류 빈도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1) 없다  2) 연 1~2회  
 3) 연 3~6회  4) 월 1~2회  
 5) 월 3~5회  6) 월 6회 이상

문13. 자동차가 없던 한달 이후 귀하는 행궁동내 거주민 간 교류에 있어 변화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없다 문14으로  2) 있다 문13-1트

문13-1 거주민 간 교류에 있어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는 이가 늘었다. 길에 다니는 이가 많다. 길에서 이야기 하는 시간이 늘었다. 얼굴이 많아졌다. 등

I. 귀하의 신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1) 남성  2) 여성

문2. 귀하가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구성원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본인  2) 배우자  
 3) 미취학 아동  4) 초등학교생  
 5) 중학생  6) 고등학교생  
 7) 대학생, 대학원생  8) 그 외 자녀  
 9) 아버지(장인, 시아버지 포함)  10) 어머니 (장모, 시어머니 포함)  
 11) 형제, 자매, 친인척  12) 기타

문3. 귀하의 나이는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 1) 20세 미만  2) 20~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문4. 귀하가 **행궁동**에 거주하신지는 몇 년이 경과되었습니까?

- 1) 5년 이내  2) 5~10년  
 3) 10~20년  4) 20년 이상

문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회사원  2) 가정주부  
 3) 자영업(**행궁동** 내부소계)  4) 자영업(**행궁동** 외부소계)  
 5) 공무원  6) 교사  
 7) 시민단체  8) 기타 \_\_\_\_\_

문6. 귀 가정의 연 가구소득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 1) 2000 만원 이하  2) 2000~4000 만원  
 3) 4000~6000 만원  4) 6000~8000 만원  
 5) 8000 만원 초과

III. 귀하의 길거리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14. 귀하가 이웃과 대화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개인주택
- 2) 커피숍 등 대화를 위한 전문 상점
- 3) 식당 및 술집
- 4) 공공시설내 휴게실
- 5) 길거리
- 6) 기타 \_\_\_\_\_

문14-1 귀하가 길거리에서 이웃과 대화하는 경우 소요시간은 다음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5분 이내
- 2) 5~10분
- 3) 10~30분
- 4) 30분 이상

문15. 귀하는 길거리들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계십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이동교통로
- 2) 대화 및 교류공간
- 3) 놀이공간
- 4) 주차공간
- 5) 팔레널기, 피초개배 등 주막 활감공간
- 6) 휴식공간
- 7) 기타 \_\_\_\_\_

문16. 귀하가 길거리에서 하고 싶은 것, 혹은 기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1) 이동교통로
- 2) 대화 및 교류공간
- 3) 놀이공간
- 4) 주차공간
- 5) 팔레널기, 피초개배 등 가사 활감공간
- 6) 기타 \_\_\_\_\_

문17. 자동차가 없던 한 달 이후 귀하의 길거리이용에 변화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없다. 끝(감사합니다)
- 2) 있다 문17-1로

문17-1 길거리이용에 있어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길거리 화단에 물을 준다. 파는 등을 내놓는다. 의자를 내놓았다. 등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 추진지역  
주민공동체 교류정도 변화 및 가로 내 활동 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

**발행인** 손혁재

**발행일** 2014년 2월 17일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 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

값 0,000원 ISBN 979-11-952339-2-2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

